

업 무 자 료

협력정책 2004-3-54

개 발 협 력

2003년도
OECD/DAC 보고서

2004. 7



한국국제협력단 KOICA



902285

KOICA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개 발 협 력

2003 년도

OECD/DAC 보고서

2004. 7

KOICA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60 년 12 월 14 일 파리에서 체결되어 1961 년 9 월 30 일 효력이 발생한 OECD 설립 협정 제 1 조에 의거하여 OECD 는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진작한다.

-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 달성. 아울러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
-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 확대에 기여.
- 국제무역이 국제질서에 입각한 다자주의적이고 비차별적인 토대 위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

OECD 최초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이다. 이후 OECD 회원국이 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1964.4.28), 핀란드(1969.1.28), 호주(1971.7.7), 뉴질랜드(1973.5.29), 멕시코(1994.5.18), 체코(1995.12.21), 헝가리(1996.5.7), 폴란드(1996.11.22), 한국(1996.12.12), 슬로바키아(2000.12.14). OECD 설립 협정 제 13 조에 의거하여 유럽공동체 위원회(EC)는 OECD 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OECD 는 많은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DAC 는 이러한 OECD 전문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DAC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자원의 총량을 확대하고 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AC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양자 및 다자간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기여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원조정책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있다.

DAC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및 유럽공동체위원회(EC)이다.

OECD 사무총장 서문

2003 년도 개발협력보고서는 DAC 의 신임 의장인 Richard Manning 의 책임 하에 작성된 첫 번째 개발협력보고서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DAC 를 이끌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임 의장을 맞아들인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OECD 는 여러 측면에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2002 년 약 600 억 미불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한 양자간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감소 노력을 지원할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장인 DAC 를 OECD 에 두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들 개발도상국 중 많은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ODA 에 계속하여 의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성장과 발전은 교역과 투자에 기초하였을 경우에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OECD 와 회원국들은 공유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OECD 전문위원회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점점 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있다. OECD 의 '개발을 위한 투자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Investment for Development)'는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태도를 반영한다. 교역과 투자의 논점을 넘어서, OECD 의 수많은 사업들은 개발에 공헌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 농업, 환경 등이 해당될 것이다. DAC 는 OECD 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OECD 는 DAC 가 이러한 지속적인 중요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DAC 및 OECD 의 다른 중요한 위원회의 작업이 개발도상국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경제성장의 다양한 요인 사이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만족스러운 일이다.

Donald J. Johnston
OECD 사무총장

머리말

40 년 넘게 OECD 의 개발협력보고서는, DAC 의장의 지도 아래, 개발의 진척도와 특히 주 업무 중 하나인 공적개발기금이 어떻게 제공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왔다. 개발협력보고서는 공여국의 관점에서 쓰이지만, 다방면으로부터 통찰력 있는 정보를 얻어 작성된다.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수원국 스스로의 노력은 계속해서 수원국 성장의 주 요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우호적이냐 아니냐도 수원국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DAC 그리고 보다 넓게는 OECD 의 생각의 중심은 원조는 수원국이 자신들의 개발을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외부재원의 한 요소일 뿐이며,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재원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DAC 는 연간 미화 600 억불에 달하는 금액이 현재 공적개발원조로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며, 새천년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정한 개발목표와 개도국이 처해 있는 현실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조의 효과와 영향을 증진할 필요를 느낀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가능한 최대로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개발과 관련된 많은 정책 이슈에 대하여 양자간 원조사회 전체의 집단 논의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DAC 의 전반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DAC 의 새 의장으로서 나는 먼저 전임 의장 Jean-Claude Faure 를 포함한 이전 의장들이 원조공여국 전체의 생각이 진화해 오는데 공헌한 점을 언급하고 싶다. 이것은 보고서에 부족하나마 반영되어 있다. 두 번째로 나는 이번 보고서에 자료를 기고한 Michael Roeskau 와 여러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자료를 한 데 모으고 예정에 맞춰 발행되도록 해 준 Kerry Burns 에게 큰 감사를 표하고 싶다.

Richard Manning
DAC 의장

목 차

OECD 사무총장 서문
머리말
감사의 말

1. DAC 의장 개관	1
서 문	3
개발정책의 일관성 제고	4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	10
더 많은 원조제공	21
건설적 대화의 촉진	27
성장인가 빈곤감축인가?	28
공공인가 민간인가?	28
사회 분야인가 생산과 인프라인가?	29
프로젝트인가 프로그램인가?	30
주 석	
2. 원조흐름의 동향	33
서 문	35
원조흐름의 전반적 개관	36
DAC 와 비 DAC 공여국	38
지역별 및 소득 그룹별 원조	41
다자간 ODA 의 비율	43
분야별 원조경향	48
형태별 원조집행 동향	53
원조 증가	56
부록: 농업분야 원조감소	58
주 석	

3. MDGs 달성 진전 현황 65

서 문	67
MDGs 를 향한 진전 현황	70
목표 1 -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70
목표 2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71
목표 3 -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73
목표 4 - 아동 사망률 감소	76
목표 5 - 모자 보건 증진	76
목표 6 -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76
목표 7 -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78
목표 8 -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79
원조효과성 제고	86
원조조화와 일치	89
공공재정 관리	96
개도국의 조달능력 강화	97
개발 결과의 관리	98
주 석	

4. 양자간 원조 공여국들의 정책 및 노력 101

DAC 회원국의 원조 규모와 원조 프로그램	103
DAC 회원국들의 개발원조 내역	105
호주	108
오스트리아	110
벨기에	112
캐나다	114
덴마크	117
유럽공동체(EC)	120
핀란드	122
프랑스	126
독일	128
그리스	130
아일랜드	132
이탈리아	136

일본	138
룩셈부르크	142
네덜란드	145
뉴질랜드	147
노르웨이	149
포르투갈	151
스페인	153
스웨덴	155
스위스	157
영국	159
미국	161
DAC 비회원국의 개발원조 현황	165
체코공화국	165
헝가리	166
아이슬란드	167
한국	168
멕시코	169
폴란드	170
슬로바키아	171
터키	172
 DAC 개요	 175
개발원조위원회(DAC)	177
DAC의 주요 활동	181
DAC 산하기관의 임무, 역할 및 작업계획	185
개발협력국	195
 기술적 용어	 205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207
용어의 정의 및 각종 수치측정 관련 참고사항	212
2002년 DAC 수원국 목록	216
약자(acronym) 목록	217

상 자(Box)

1.1. 모범 수원국(good performers)에 대한 양자간 원조의 점진적 증가 현황	15
1.2. 원조효과성과 선택(selectivity): 다수의 목표를 원조 분배로 통합시키는 문제	18
1.3. DAC 회원국 중 양자간 원조의 집중 추세는 없음	24
3.1. 새천년개발목표(MDGs)	68
3.2. PARIS21 - 모델링에서 성과측정에 이르기까지	73
3.3.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MDGs	74
3.4. 새천년개발협약 - 최빈국들을 위한 행동 계획	81
3.5.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ODA 관련 2001 년 DAC 권고안에 대한 진전사항	88
3.6.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 (2003.2.25)	92
4.1. 덴마크에 대한 DAC 동료심사 (2003.5.22)	118
4.2. 핀란드에 대한 DAC 동료평가 (2003.6.17)	124
4.3. 아일랜드에 대한 DAC 동료평가 (2003.11.17)	134
4.4. 일본에 대한 DAC 동료심사 (2003.12.12)	140
4.5. 룩셈부르크에 대한 DAC 동료심사 (2003.3.18)	143
4.6.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및 일본의 탄자니아 내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평가	163

표

1.1. 예상되는 2006 년도 ODA	22
A.1. 공여국의 농업원조액 및 총액대비 비율 ; 1980-2001	59
3.1.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진전 현황	72
3.2. DAC 회원국가들의 2006 년도 ODA 전망 : 최신 예측	85
4.1. 2002 년 DAC 회원국의 ODA	104

도 표

2.1.	2001 년 물가기준으로 산정한 GNI 대비 DAC 회원국들의 총 ODA, 1980-2002	36
2.2.	DAC 회원국의 대개도국 자금의 흐름, 1980-2002	37
2.3.	실질가치 기준으로 본 DAC 국가의 ODA, 1980-2002	41
2.4.	수원 지역별 DAC 공여국들의 원조비율 (1970-71 에서 2000-01 까지)	43
2.5.	다자간 국제기구에 대한 DAC 회원국들의 ODA 비율, 1992-2002	46
2.6.	유럽공동체(EC)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46
2.7.	UN 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46
2.8.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46
2.9.	지역개발은행(RDB)들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46
2.10.	다자간 기구에 의한 양허성 자금 지출 총액 (1992 년, 2001 년)	47
2.11.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중 사회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1980-2001	48
2.12.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중 생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1980-2001	50
2.13.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중 인프라분야 차지하는 비율, 1980-2001	51
2.14.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중 특정분야와 무관한 원조 (non-sector aid)가 차지하는 비율	52
2.15.	총 ODA 구성비, 1980-2001	53
2.16.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원조와 기술협력에 대한 ODA 회원국의 연평균 공여액	55
A.1.	DAC 회원국의 지역별 농업분야 양자간 원조, 1980-2001 (2001 년 물가기준)	60
A.2.	DAC 회원국의 농업부문 세부분야별 양자간 원조, 1980- 2001 (2001 년 물가기준)	62
A.3.	농업연구를 위한 DAC 회원국의 원조, 1980-2001 (2001 년 물가기준)	62
4.1.	2002 년 순(net) ODA - 총규모 및 GNI 대비 비율	106

제 1 장 DAC 의장 개관

DAC 의장이 밝히는 본 개관에서는 두 가지의 광범위한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주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발도상국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동 개발목표의 달성 전망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DAC 회원국들의 정책들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 하나는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DAC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정책의 일관성(coherence)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발협력의 규모와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이들 각 주제와 관련하여, 본 개관에서는 특히 DAC 회원국 전체의 통일된 행동을 통하여 개별 회원국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개발공동체 내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슈들을 개관하는 한편, 건설적이며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통영역을 제시하도록 한다.

서 문

2004 년이 된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가 개발목표기간으로 설정한 1990 년에서 2015 년까지의 25 년 시한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DAC 는 1996 년도에, UN 은 2000 년에 개최된 새천년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감소를 위하여 세계 빈곤인구 비율을 2015 년까지 1990 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교육 및 보건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개발목표 중 목표달성이 기대되는 분야는 소득증대 분야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세계 빈곤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의 큰 국가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보건부문과 관련된 목표달성은 특히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많은 빈곤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발전의 성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은 유사 이래 대단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개발원조사회의 일원인 우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질적인 발전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보다 나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발전 전망을 극대화하고 그러한 발전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금 개발원조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DAC 회원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논의와 합의가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개발이란 당해 국가의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당해 국가들 자신의 정책과 제도는 계속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개발원조사회는 단지 이들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도와서 그러한 도움이 없었을 경우에 비하여 보다 빠른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개발원조사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책일관성(coherence)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원조의 양적 확대와 개발원조의 질적 개선을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일이다. DAC 는 이상의 두 가지 과제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DAC 는 정책일관성에 관한 공론화를 주도해나가고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원조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DAC 가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아울러, DAC 는 개발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용어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개관은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며, 관례적으로 DAC 의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본인은 DAC 의장으로 취임한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 개관을 작성하고 있다. 탁월한 나의 전임 DAC 의장들은 귀중한 전통을 남겨 놓았는데, 그 하나는 주요 주제에 관해 의장이 직접 관여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발이 얼마만큼 진전되었는지와 국제 개발원조사회가 개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였는지에 대하여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 개관의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 개발과 관련된 주요 실질적인 과제들은 DAC 에서는 물론,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개발공동체내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들 각자가 다양하고 독립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 반면, 집단적인 토론 및 합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본 개관은 DAC, 개발원조사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OECD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논의 및 접근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 과제들 가운데 몇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발정책의 일관성 제고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담당 부처들이 국내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개도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원조사회가 정책일관성을 갖도록 주요 국가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자금의 대부분이 DAC 회원국 각 정부가 실시하는 원조 이외의 여타 정책들로 인해 수원국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그저 상쇄시켜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¹. 원칙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소홀한 태도로 인해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다.

DAC 회원국 각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원조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DAC 회원국들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몇몇 정책들(예: 돈세탁 방지)의 경우에는 소규모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참여시켜야만 효과가 있다. 지난 2003 년 9 월 칸쿤(Cancun)에서 개최된 WTO 회의에서 도하개발라운드(DDR: Doha Development Round)를 진척시키는데 대한 합의도출 실패는 다자간 접근방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 간의 실질적이고도 진지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발원조사회는 그러한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가난하고 영향력이 약한 개도국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
- 시민사회 단체들은 OECD 의 정책들이 제반분야에 걸쳐 개도국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 점차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에 보다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 주빌리 2000 년 운동 (Jubilee 2000 Movement)”²은 특정 사안에 집중하면서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¹ 역주: 만약 A 라는 공여국이 B 라는 수원국에게 100 만불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자국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B 국이 A 국에 농산물을 수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100 만불 감소시켰다면 A 국의 B 국에 대한 원조는 A 국의 농업보조금으로 상쇄되었다고 할 것임.

² 역주: 빈곤국의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비정부기구(NGO) 연합체. 주빌리(jubilee)란 원래 구약성서에 나오는 50 년제(祭)를 뜻하는 말로 성 요한의 해, 즉 50 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가리킴. 이 해에는 노예해방, 부채탕감 등 은혜가 베풀어짐. 그 후 1300 년에

시민사회의 로비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들 역시 개발과 관련된 이슈에 점차 많이 관여해 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진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사회 내 일부 그룹으로부터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원조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분명히 요구된다.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원조,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자금제공, 분쟁이 종식된 국가의 재건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개발원조기관 및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를 비롯한 개발관련 연구기관들은 개발분야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어떤 특정한 정책을 선택할 경우 당해 개도국에 미칠 수는 성과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책관련 연구결과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개발원조사회와 개발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정부 정책부처들 쌍방간의 대화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DDR 관련 회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 농업 및 개발과 관련된 각 공동체간 긴밀한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원조, 이민, 환경, 무역정책 등과 같이 개도국 개발과 연관이 있는 정책들을 OECD 국가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가톨릭에서 회개와 면죄를 위한 성년(聖年)으로서 주빌리 년(年)을 제정하여 25 년마다 이를 실시하고 있음.

2000 년은 이 성년과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겹치는 대성년(大聖年)에 해당함. 경제의 세계화, 시장경제화가 촉진되면서 빈곤국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세계경제의 분열화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10 년 이상 중채무국의 채무를 삭감해 주자는 캠페인을 벌여 온 유럽과 미국 등의 NGO 는 이를 계기로 주빌리 2000 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 방법의 하나로 세계 160 개국에서 받은 1,700 만 명 이상의 서명을 1999 년 6 월 18 일 독일 케른에서 개최된 제 25 회 선진 8 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전달하고, 남북문제와 빈곤국의 채무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음. 이들의 활동은 케른정상회담의 폐회 성명에서 중채무국의 채무총액 1,300 억 달러를 반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제안한, 이른바 케른채무이니셔티브를 채택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음.

세계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작성한 “개발공약지표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는 DAC 회원국 정부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인 난제들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 지수를 개발한 방법론이나 동 지수를 이용해서 내리는 판단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있어서 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면,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의 지원이 빈곤국가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동 지표는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는 OECD 국가들의 일부 정책들이 개도국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개도국에게 발생시키는 비용이 DAC 회원국들이 개발협력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도국 상호간에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또한 상당히 높다. 슈마허 (Schumacher)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개발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일관성 문제는 단순히 경제정책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개발의 중요성은 환경에서부터 외교, 안보, 반(反)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DAC 또는 전체적으로는 개발원조사회가 이러한 분야에서 단독으로 이를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OECD 가 현재 OECD 내의 여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을 개발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상호협력 프로젝트(cross-cutting project)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동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는 소수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OECD 기구차원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개발협력의 틀 내에서, 개발원조사회가 전체적으로 개발협력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개인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 개발정책과 관련한 정책 비일관성(incoherence)의 사례들 - 특히 널리 인정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하는 가운데 생기는 정책 비일관성 - 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조화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에 나오는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 어떤 특정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그 정책이 비록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능한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많은 역사적 선택은 부정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개발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이 추구된다면, 결국 그 문제의 프로그램은 불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UN 새천년총회(UN Millennium Assembly)는 빈민의 삶을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개선하는 것이 개발원조의 핵심 목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많은 DAC 회원국들은 동 목표를 반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목표가 장기적으로는 공여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다른 정책적 목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원조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보다 많은 OECD 국가들이 개발협력을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더 큰 맥락 속에 위치시키도록 하는 공약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다. 정책일관성 문제를 확인하는 역량 및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trade-offs 관계를 고려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그러한 성명에 뒤이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DAC 회원국 중에는 어떻게 이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흥미롭고도 긍정적인 사례가 존재함.)
- 정책일관성(coherence) 문제, 특히 종종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작고 가난한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 국가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한 수준 높은 분석을 위한 보다 조정된 접근 방법을 유지한다. 이러한 종류의 방대한 양의 연구는 현재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사회가 중기적으로 보다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도국의 NGO 및 연구기관과 적절하게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정책일관성 관련 연구는 이민 문제처럼 아직까지는

정책결정자들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OECD 국가들 내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bona fide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조치에 대해 보다 큰 지지를 이끌어낼 방법을 도출한다. 소비자들에게 널리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생산자 집단의 이해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혁이 늘 그러하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고도 창의적인 리더쉽이 요구된다.
-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발도상국들이 가난한 다른 개발도상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시장을 이전보다 더 개방하도록 장려한다.
-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발도상국(그리고 캠페인을 벌이는 NGO 들)이 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협상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한다.
- 개발교육에 더욱 주안점을 둔다. OECD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정치, 경제적 개혁의 성패는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몇몇 OECD 국가들이 상당한 자원을 개발문제에 관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바,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서로 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세계의 부의 편중이 심해질 경우 초래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내 대중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대중들은 종종 개발도상국 문제와 개발정책은 동떨어진 문제라고 오해하고 있거나, 개발도상국 전반에 만연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개발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문제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려는 마음을 감소시킨다.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

40 년이 넘게 DAC 의 주요 관심사는 DAC 회원국 정부의 국제 원조 프로그램 지출 규모, 그리고 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이었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효과성의 문제는 원조 규모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이므로, 효과성의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수년 동안 원조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만일 원조가 건전한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갖춘 수원국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개발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조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져올 것이지만, 체제전반이 보다 취약하고 제도가 부실한 국가들의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다. 1996 년 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DAC 보고서 「21 세기를 만들며(Shaping the 21st Century)」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결과들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원조효과성 평가와 개선을 위한 시도를 새롭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동 보고서에서 설정한 제반 기준들은 이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개발 원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첫째는, MDGs 에서 설정한 목표를 향해 어떻게 세계가 발전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둘째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은 그러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 중 심지어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주요변수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ARIS21³이나,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통계처리역량강화기금(Trust Fund for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통계자료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그 통계자료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³ PARIS21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국별, 특히 빈곤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OECD, UN, 세계은행, IMF 와 EC 에 의해 1999 년에 설립된 컨소시엄. OECD 개발협력국(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이 관리. 보다 자세한 설명은 Box 3.2. 참조.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주지하다시피, 일부 지침들은 이미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훨씬 일관성 있는 국제 보고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여러 증거들은 전체적인 소득증대가 빈곤층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 지역과 그 하부 지역(그 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절대 이 지역만이 배타적인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이 겪고 있는 고유한 문제, 그리고 HIV/AIDS 가 가져오는 심각한 영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소득 목표,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지역의 보편적인 기본교육, 모든 지역에서의 보건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진전(a step-change)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문제들보다는 덜 구체적으로 목표설정이 되어 있지만, 환경과 양성평등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세계 도처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은 자만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2005 년으로 예정된 주요 UN 행사들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개발원조사회 구성원들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⁴.

두 번째 문제는 양자 및 다자간 개발원조사회 모두에게 특별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MDGs 달성과 관련한 성과의 대부분은 동아시아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원조의 절대액수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 지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원조의 비중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자원, 아이디어 및 모범관행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원조가 이 지역 국가들이 개발과 관련한 접근법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평가절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원조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기술이전과 MDGs 로 표현되는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특정 원조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다 광범위한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공여국이 단독으로든 혹은 집단으로든 보다 자신 있게 자신의 원조지출이 가져올 실질적 효과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잃어버린 중간 부분(missing middle)’ 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중간 부분은 사전 심사(appraisal)와

⁴ 역주. 2005 년 UN 은 2015 년까지 달성기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후 평가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원조 프로그램에는 개발과정 상에서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하는 임계치(critical mass)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다.

많은 나라에서 원조프로그램이 빈곤감소전략과 기타 유사한 접근법에서 설정된 국가별 혹은 분야별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만든다. 이 문제들은 하나의 공여국 수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기구 차원에서도 점차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첫째, (특정 문제에 대한 총 원조규모가 동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고, 개발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나 분야의 경우) 원조 프로그램 전체가 수원국 혹은 특정 분야의 발전에 대해 미치는 전반적 영향 - 특히 MDGs 를 이러한 발전을 측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받아들일 때 - 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공여국과 수혜자(정부 혹은 다른 행위주체들)가 효과적으로 협력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들은 모든 주요 개발 행위주체들 전반에 걸쳐 살펴보아야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 사항은 (공동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기초교육 원조에 대한 평가처럼, “DAC 개발 평가 네트워크(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에 의해 촉진된 다수의 공동 평가가 미래를 위해 유용한 지침이 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통합적이며 상호협조적인 원조효과 평가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평가과정은 원칙적으로는 공여국보다는 수원국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하는 바, 수원국이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공여국들의 더 많은 지원 제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신뢰성 있고 독립성을 갖춘 평가과정이 없다면, 공여국들은 MDGs 를 향한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여국들의 전반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갖는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며, 의회, 여론 및 향후 개발원조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보고 자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협력문제에 관해서는, 탄자니아에서 Independent Monitoring Group 에 의해 매우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진 바 있는데, 이 방식은 보다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DAC 는 광범위한 다자간 파트너들과 함께,

2003년 2월 로마에서 열린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에서 촉구된 것처럼 원조조화와 수원국 체제에 맞춘 원조정책 일치(alignment) 등이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선별된 국가에서 원조조화와 일치에 관한 국별 공동 교훈 평가(Joint Country Learning Assessments on Harmonization and Alignment)를 후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덧붙여 PRSP와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세계은행과 IMF의 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 평가노력은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 이러한 결과를 위해 개별 공여국이 이러한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서 각 공여 기관이 제도로서 갖는 효과성, 즉 개발효과성에 대응되는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동료심사(peer review)와 평가 방법 및 기준의 상호 교환을 통해 보다 나아질 수 있으나,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사전 계획과 같은 종류의 작업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현재 지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 평가의 방법에 보다 자연스럽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원조가 국별·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전하고 공동으로 수행되는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원조효과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원조효과지표가 있다.

- 이 보고서를 위해 수행된 연구(자세한 설명은 Box 1.1 참조)에 의하면 1996-2001년 동안 개발원조는 건전한 정책을 갖춘 수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의 CPIA 지표⁵를 기준으로 측정한 5분위수⁶ 중 상위 2분위수 국가들에게 지원된 원조(인도적 원조 제외)의 비율은 동 기간동안 63%에서 68%로 증가한 반면, 5분위수 중 하위 2분위수의

⁵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평가한 지표.

⁶ 역주. 5분위수(quintiles)란 100%를 20%씩 5개로 나눈 것을 말함. 따라서, 1분위수는 상위 1-20%, 2분위수는 21-40%, 3분위수는 41-60%, 4분위수는 61-80%, 5분위수는 81-100%임.

국가들에게 지원된 원조비율은 21%에서 16%로 감소하였다. (물론 개발원조사회가 원조성도가 낮은 국가(weak performers)를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Box 1.2.는 이와 같은 원조 배분에 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빈곤감소전략은, 아직 완벽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원조 지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원국 주도로 마련된 개발전략 지원을 위한 국별·분야별 차원의 공여국간 협력도 증가하고 있다.
- 언타이드 원조(untied aid)의 비율 - 주어진 원조로 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책정과 이를 통한 화폐가치제고와 연관되어 있음 - 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주춤하거나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 20년간 60%에서 80%(다자간 원조는 포함되나 기술협력은 제외)로 증가해 왔다.

그 외에, 총 ODA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해 왔는데, 양자간 ODA 총액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1981년에는 76%였던 것이 2000-2001년에는 86%로 증가하였다. 필자는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상원조의 비율이 높아지면 양자간 ODA가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으로 연계되는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달리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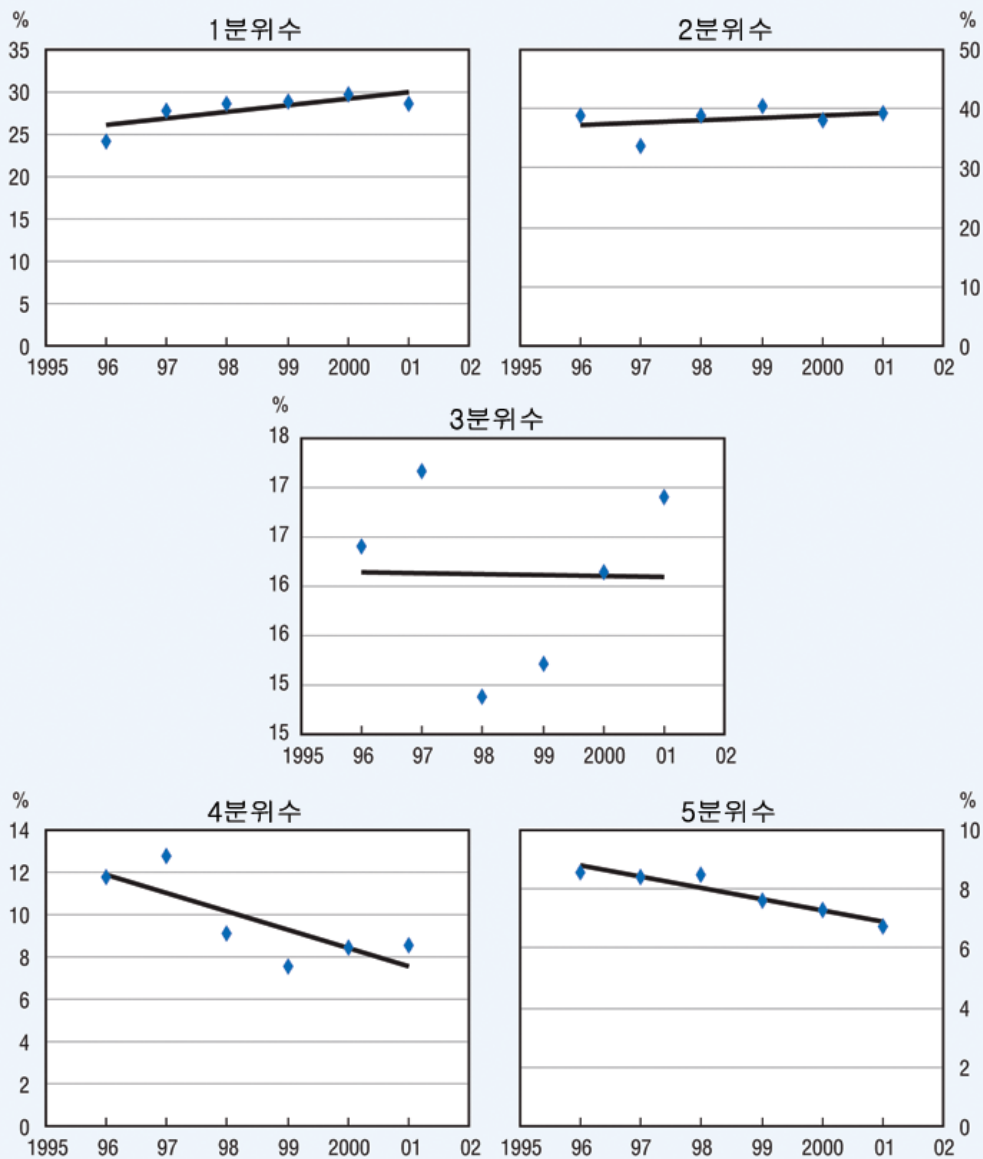
-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총 ODA의 규모 중 65%를 꾸준히 차지해온 저소득 국가나 최빈국에 대한 원조가 보다 더 집중되는 경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 긴급원조는 1989년 이래 전체 원조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이는 분쟁과 자연재해가 얼마나 높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기적인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원조의 규모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 ODA 분야 중 실질적으로는 자원이 국경을 넘지 않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2002 년도 ODA 에서 공여국내에서 발생한 첫 해 난민비용은 10 억불에 달하며, 순수부채탕감은 (그 상당 부분이 현금흐름을 창출해 내지 못함) 그보다 더 많은 60 억불 규모이다. 기술 협력비용 또한 증가했다. 물론 많은 기술협력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기술의 이전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또한 기술협력에 있어서 현지 혹은 개도국 기술의 사용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토록 다양한 지출이 가지는 전체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Box 1.1 모범 수원국(good performers)에 대한 양자간 원조의 점진적 증가 현황

다음은 OECD 사무국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DAC 회원국들의 성과중심 양자 개발원조 분배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동 연구는 DAC 회원국들이 실제로 수원국가의 성과에 따라 개발원조 배분을 재조정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DAC 자료를 사용하여 수원국들의 개발성과 대비 DAC 회원국들의 ODA 흐름을 분석했다. 수원국들의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국가정책과 제도평가(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지표가 사용되었다. CPIA 는 여러 가능한 지표군의 하나로써, CPIA 의 장점은 동 지표가 수원국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적인 틀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질적 수준”이란 앞서 언급한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적 틀이 빈곤감축,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뜻한다. 총 20 개의 항목이 평가대상이 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에 전체 평점에서 5%의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이 20 개 항목에 의거하여 수원국들은 순위가 매겨지고, 평가된 국가들의 순서에 따라 5 분위수로 분류하고 1 분위수에 대략 15 개 국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CPIA 순위별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배분 현황(1996-2001)



위의 도표는 DAC 회원국들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CPIA 5분위수 수원국들에 대해 매년 제공한 총 양자간 ODA 비율을 보여준다. 장기적인 추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도적 원조와 부채탕감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이 도표를 보면, 개발정책추진 성과가 더 나은 국가들(2002년도 CPIA 순위에서 1분위수와 2분위수에 포함되는 국가들)에게 제공되는 원조수준은 완만하지만 눈에 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과가 부실한 국가들(4분위수와 5분위수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조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온두라스, 탄자니아, 우간다와 베트남과 같이 규모가 큰 소수의 수원국들 때문이다. 다른 몇몇 모범 수원국들(1 분위수로 분류된 국가들)의 경우, DAC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ODA 는 최근 몇 년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부탄, 카보베르데, 모리타니아, 사모아 그리고 세인트루시아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도표들은 전반적으로 자국의 원조를 성과에 연결하려는 경향이 과거 1990 년대 중반의 경우보다 완만하지만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원조 프로그램은 매우 많은 소규모 사업과 상대적으로 소수의 대규모 사업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Creditor Reporting System⁷에 보고된 내용은 1999-2001 년의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단위: 미화 달러)

	1억 이상	천만 - 1억	백만 - 천만미만	백만 이하
비용의 비율 (%)	25	42	24	9
프로그램 수의 비율 (%)	0.2	2	12	85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원조규모와 원조효과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그 어떠한 선험적인 이유도 없다. 실제로,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실패로 돌아간 사례와 원조액수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매우 성공적이었던 원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단위 원조사업(동 기간동안 평균 150 만 달러의 비용으로 연 평균 35,225 개의 프로그램이 수행됨)은 원조 기관, 더욱 중요하게는 수원국 정부측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원조사업의 패턴은 원조사업의 수가 대단히 방대하며, 원조가 행해지는 채널이 다양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발원조사업의 패턴은, “도대체 원조가 무엇을 달성하고 있나?”

⁷ 역주. ODA/OA 및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으로의 자금대출 통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CRS 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ODA/OA 데이터와,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 비 ODA/OA 대출 및 공적수출신용 관련 데이터로 양분됨. 1967 년 OECD 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부채와 자본흐름에 대한 데이터의 정기적인 흐름을 참가국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라는 측면의 원조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많은 사절단 방문과 사무소 설치를 통해 수원국 관계자들에게 많은 업무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개발원조사회 전체가 원조공여라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이에 따라 얻게 된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996 년에 DAC 에서 발간한 “ Shaping the 21st century” 보고서는 공여국 주도의 접근방식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써 공여국-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
- 1999 년 세계은행 총재 제임스 올펜슨이 마련한 포괄적인 개발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에서, 개발문제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지지.
- 수원국 주도로 마련한 빈곤감소전략 및 이와 유사한 전략을 공여국이 동 수원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중심축으로 함.
- 분야별 접근방식, 바스켓 펀딩(basket funding) 및 예산지원과 같이, 공여국 상호간에 보다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원조방안 개발.
- 수원국 스스로 공여국이 원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존중하여야 할 원조 범위를 정하겠다는 환영할 만한 입장표명의 증가 (예컨대, 베트남의 법령 17, 우간다의 예산지원 극대화 요구, 그리고 2003 년 들어, 탄자니아의 공여국측 사절단 방문 횟수의 제한, 인도의 개별 공여자 수의 급격한 제한 조치).

Box 1.2. 원조효과성과 선택(selectivity): 다수의 목표를 원조 분배로 통합시키는 문제

지난 2003 년 3 월에 DAC 와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는 주요 학계 인사와 공여국측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개발원조 자원 배분의 효과 제고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후원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기존의 원조-정책-성장-빈곤의 연결고리를 넘어서는 세 가지의 새로운 요소를 포함시켰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보다 넓고 광범위한

빈곤관련 목표들,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기법을 원조자원 배분문제에 적용시키는 실용적인 경험(practical experience), 양자간 원조채널과 다자간 원조채널간, 그리고 국별 원조프로그램과 지구 공공재(global public goods)간에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방식 등이다.

동 세미나는 빈곤감소 효과 제고를 위한 원조 할당기준으로 빈곤층의 수와 빈곤의 심각성, 그리고 수원국의 개발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폭넓은 공감대를 재확인 했다. 여기서 개발성이라고 함은 수원국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제도의 건전한 작동을 의미한다. 이 공감대는 계량경제학적 분석, 개별국가에 대한 사례연구, 그리고 실무자들의 현장경험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과와 원조간의 상관관계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과가 미시적 또는 프로젝트 차원의 원조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동 세미나에서는 개발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는 다른 변수들에 관하여도 주목했는데, 이 변수들은 특히 체제가 취약한 국가들(vulnerable countries)이 대내외 충격, 그리고 분쟁 후 국가재건사업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원조자원의 배분에는, 성장 이외의 개발목표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되었다. 이러한 목표들에는 인도주의 원조 제공, 무력충돌 예방 및 대처, 그리고 빈곤감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나 역량이 취약한 “문제 국가(difficult partnership)”에 대한 대처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태만의 비용(cost of neglect)”이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태만의 비용이란, 문제 국가들을 보다 깊은 곤경 속으로 빠뜨리거나 실패한 국가로 전락시킴으로써 인접국가들이나 또는 그 외의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와 역량 강화 부문에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를 지원하고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 세미나는, 비록 세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비원조부문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위한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거기다, 다자간 원조 프로그램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증거 또한 발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원조배분 기준들을 실제 수행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국가간의 연구 분석이나 공여국의 실제경험의 공유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본 세미나에서 밝혀진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아마도 원조의 규모와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즉, 원조는 개발정책 성과가 웬만큼만 되어도 수원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성과가 나빠짐에 따라 효과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광범위한 개발 목표들을 고려하면, 원조에 대한 필요성은 현저히 높아진다.

· 세미나의 요약내용이나 주요 참고자료는 www.oecd.org/dac/wpeff/Mar2003ExpertsSemina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일련의 성과로 말미암아 많은 양자간 공여국 및 다자 공여기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구분되는 다음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 공여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 프로그램 및 제도와 일치
- 원조수행과 관리에 있어서 공여국 상호간의 지원 조건과 절차를 조화

서로 밀접한 이들 두 가지 접근방식은 수원국이 자체조달한 예산과 원조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지출에 대한 계획, 집행 및 회계처리를 위한 수원국의 자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기 두 가지 제안은 2003년 2월 로마에서 열린 원조조화에 관한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에서 합의된 제 원칙들에서 강조되었다. 다자간 원조그룹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DAC의 핵심과제는 각 회원국들이 이러한 제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공여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동시에, 저조한 성과, 분쟁 및 분쟁 후 상황 하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분석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최근 DAC가 다자간 개발은행들(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과 UNDP의 지원을 받아, 양자간·다자간 원조의 효율성에 대해 집단적 논의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장을 제공하고, 대표적인 개도국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원조효율성과 공여국 관행에 관한 작업반(WP-EFF: the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Donor Practices)"⁸ 을 설립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원조효율성은 무엇보다도 개별행동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

더 많은 원조제공

2002 년 3 월 멕시코 몬테레이(Monterrey)에서, 공여국들은 DAC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다년간 실질원조 증가에 대해 약속하였다. 공여국들이 약속을 실현에 옮긴다면 지난 몇 년간 550 억 달러 수준에 머물던 ODA 가 오는 2006 년에는 750 억 달러까지 증가(2002 년 물가수준과 환율 기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GNI 대비 ODA 비율로 보면 2001 년에 0.22%이던 것이 2006 년에 0.29%로 상승함을 의미하나, 이 수치는 1990 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많은 분석들은 HIV/AIDS 예방 및 대응, MDGs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원조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 원조재원 조달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몇몇 제안들은 실제로 현재 논의 중이다. 그러한 제안에 대한 충분한 지지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 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국들이 약속했던 원조증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MDGs 달성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DAC 회원국들 가운데, <표 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몬테레이 회의와 그 이후 공약을 토대로 2002-2006 년 동안 발생할 원조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5 개 핵심공여국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3 년말 현재 이러한 5 개 핵심공여국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2004 년 회계연도에 의회가 책정한 대외원조 (Congressional appropriations for foreign assistance, ODA 와

⁸ WP-EFF 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 3 장 참조 요망.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상당규모의 단기 원조를 제외하고도 전년도에 비해 적어도 24 억 달러가 증액되었다. 영국의 경우, 2004 년 중반 이전에는 신규 공공지출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프랑스는 2007 년도에 GNI 대비 0.5%, 2012 년도에 GNI 대비 0.7% 수준의 ODA 를 지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2004 년도에는 GNI 의 0.43%수준의 지원이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2002 년 EU Barcelona 정상회담에서 약속한대로 2006 년까지 ODA 를 GNI 의 0.33%에 도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ODA 는 2001 년도의 0.15%에서 2002 년 0.20%로 다시 회복되었으나, 2004 년 예산에서는 EU 정상회담에서 정한 목표를 향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표 1.1 예상되는 2006년도 ODA
10억 미화 달러 (2002년도 환율 적용)

	2002년 Net ODA	2006년 예상 ODA	증가액
미국	13.3	19.5	6.2
영국	4.9	6.9	2.0
프랑스	5.5	7.4	1.9
이탈리아	2.3	4.2	1.9
독일	5.3	7.1	1.8
소계	31.4	45.1	13.8
나머지 DAC 국가들	26.9	31.7	4.8
총계	58.3	76.8	18.6

독일 역시 2002 년 수상의 취임 정책성명에서 GNI 대비 0.33%의 ODA 지원목표를 확인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가 담당하는 2004 년도 개발원조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이 1.1%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0.4% 상승하였다.

위에 언급하지 않은 공여국들에 있어서도, <표 3.2>에 나타난 국가들의 ODA 순 증가치는 2006 년도에 예상되는 합리적인 추정치로 보인다. DAC 는 몬테레이 회의에서 합의된 공약에 대한 진전상황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할 것이다.

양자/다자간 공여국들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 원조의 총합이 두 가지 목표 - 한편으로 지원성치가 좋은 모범수원국을 보상한다는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가 좋지 못한 문제국가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개혁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 - 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문들은 다음과 같다. 몇몇 모범수원국들이 자의적인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인가(예컨대 교육에 있어서 Fast Track Initiative on Education 논쟁의 경우에서처럼)? 문제국가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더 소외되지는 않을 것인가? 아니면, 특히 모범 수원국의 경우에, 개발원조 지원확대가 수원국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예를 들어 실질 환율을 부적절하게 상승시킴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경제적 의존성을 야기하며 수원국의 생산부문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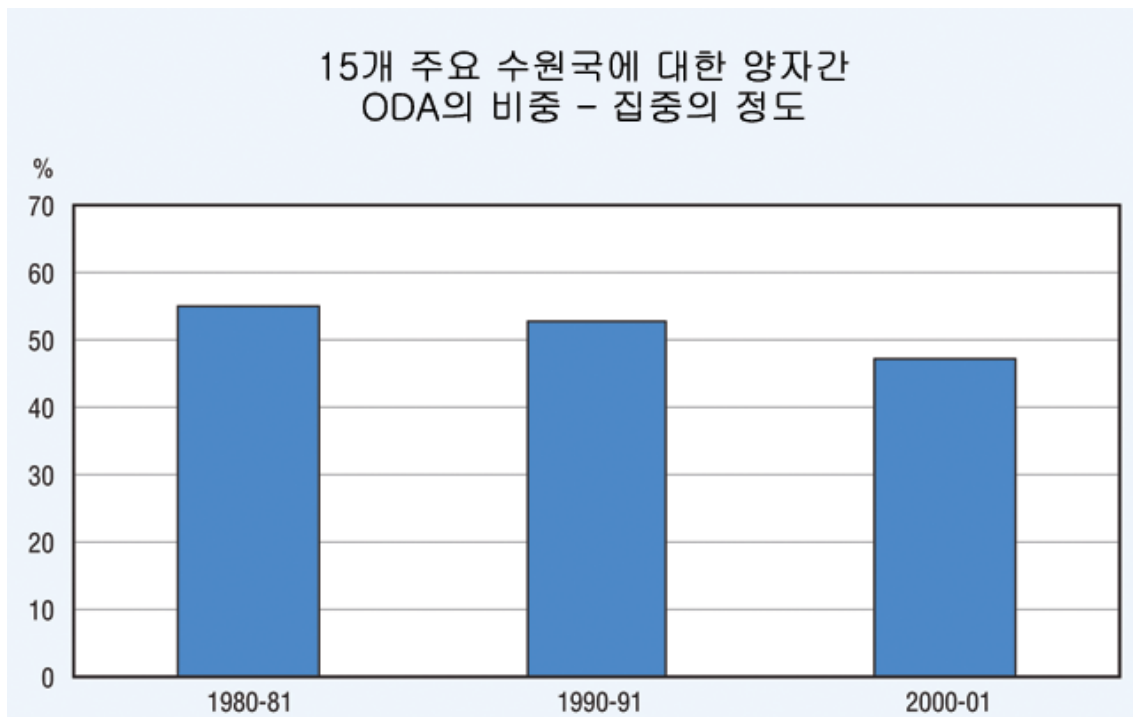
DAC 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감시해야만 한다(뿐만 아니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간의 균형문제, IDA 무상원조 및 신규 국제기금시대에서 다양한 국제기구의 역할 등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도 포함). 현재로서는, 이 문제들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 비록 몇몇 양자간 공여국들(예컨대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또는 Millenium Challenge Account 측면에서의 미국)이 대외 원조의 보다 많은 부분을 더 적은 수의 국가들에게 집중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많고 다양한 공여국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 (World Development Report 2004 는 수원국당 양자간 공여국의 평균을 14 국으로, 그리고 양자 및 다자간 공여국을 합한 경우의 평균은 26 국(개)으로 보고 있다.) 원조를 더욱 집중시키게 되면 수원국들과 공여국들에게 공히 원조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원조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원조 지원국가수가 많다. 그리고 DAC 회원국들의 양자간 원조비중이 지난 20 년 동안에 걸쳐 55%에서 48%로 하락함에 따라 상위 15 개 수원국들의 원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Box 1.3 참조)

● Box 1.1 은 원조성치가 좋은 모범 수원국들에 대한 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저조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노력도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ox 1.3 DAC 회원국 중 양자간 원조의 집중 추세는 없음

이 Box 는 DAC 회원국들이 양자간 원조를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지를 평가한 사무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다. DAC 회원국들의 원조집중 수준과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국들의 양자간 원조 최대 수혜국들이 받는 원조가 회원국들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다수의 공여국들은 보다 적은 수의 국가들에게 원조를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집중도를 높이고, 원조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감소하고 회원국간 원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DAC 의 자료는 DAC 회원국간에 그러한 집중 추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15 개의 원조 수혜국이 총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 년간 55%에서 48%로 감소하였으며, 탈 집중화추세가 개별 DAC 회원국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총량기준으로 볼 때 이들 상위 수원국들은 주요 공여국들로부터의 원조감소를 신규 또는 소규모 공여국들로부터의 원조증가로 보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들은 다음과 같다

-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벨기에와 콩고, 그리고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핀란드와 탄자니아, 캐나다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국과 이집트·파키스탄·필리핀·터키등과 같이 공여국 ODA 의 1-2 위 주요 수원국에 집중 지원되는 비중을 가져온 특별한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약화된 점.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대부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관련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 기반이 확대됨으로써 이들 수원국에 대한 각 공여국들의 원조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왔음.

- 새로운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미 설정된 원조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점.
- 긴급원조, 난민원조, 부채탕감 등 원조 배분계획과 관련이 없는 원조형태가 증가한 점.
- DAC 의 수원국 명단과 관련한 기술적인 요인이 작용한 점. 몇몇 주요 수원국(특히 이스라엘)이 동 명단에서 빠진 한편, 새로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구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된 국가, 구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트랜스코카서스 공화국들, 에리트리아, 동티모르)은 중소기업 수원국들에 포함되었는데, 이 두 가지 추세는 최대 수원국들에 대한 총 ODA 비중의 감소를 초래함.

- IMF 와 기타 연구기관은 원조 증가로 인해 수원국에 발생할 수 있는 “화란병(Dutch Disease)”⁹은 원조가 수원국 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되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세계은행은 2003 년 9 월 두바이에서 열린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거대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 수준의 두배의 원조를 흡수할 수 있으며 작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어도 60%의 증가를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상되는 원조규모의 증가는 이 범위 내에 있다.

앞으로 4 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오는 2006 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원조규모증가계획이 과연 실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현되었다면 원조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이다. 그리하여 2007/8 년도 DAC 개발협력보고서 (Development

⁹ 역주. 화란병(dutch disease)은 석유수출로 인해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산유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국통화가치의 실질적인 절상이 석유 이외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을 증대시켜 자국의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는 급속한 원조액의 유입은 수원국 통화가치를 절상을 가져옴으로써 화란병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됨.

Co-operation Report)에서 2006 년도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기를 희망한다.

- 공여국들은 최소한 750 억 달러(2002 년도의 물가와 환율 기준)의 순 대외원조를 제공했다.
- 이러한 원조금액 가운데 최빈국과 저소득 국가에 지원되는 비중이 2002 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다.
- 공여국들이 Box 1.2 에 요약된 보다 광의의 목표들을 고려하여 원조배분에 대해 발전된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원조효과가 높으면서 빈곤계층이 많은 국가들에게 2002 년보다 더 높은 비중의 원조가 이루어졌다.
- 수원국을 사려깊게 배려한 공여국들의 공동 원조계획은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발전을 증진하고 MDGs 달성을 진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계획을 토대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원조실적이 낮은 문제국가들에 대해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 긴급구호 및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적어도 총 원조 비중에 있어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 언타이드(untied)원조의 비중이 높아졌다.
- 개발원조가 가난한 수원국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수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의 자원동원 능력이 현재보다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씩 높아지게 됨으로써 보다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보다 많은 원조가 수원국 자신의 우선순위, 개발프로그램, 제도에 일치되어 제공되었고, 수원국의 예산에도 포함되었다.
- 원조조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2002/03 년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 증가된 원조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형태이던지,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예산지원 형태이던 지에 관계없이 경상수지 측면에서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의 실질적 재원 이전을 수반하게 되었고, 기술협력에 대한 지출은 수원국 당사자나 기타 개도국 기술의 보다 많은 활용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명백하다.
- 개도국의 자구노력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MDGs 중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상기와 같은 분야의 진전상황에 대한 조사는 공여국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간의 집단적인 논의의 토대로서 DAC가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이다.

건설적인 대화의 촉진

개발원조사회는 각종 경쟁적 아이디어들에 관해 열정적으로 논쟁을 벌이기로 유명하다. 개도국들의 다양성, 그리고 개발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이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여국과 원조기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선입관이 다양하므로, 각 공여국들은 자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가나 체제전환국가와의 긍정적인 협력을 위한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원조기관의 영역 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이디어의 흐름은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각종 개념에 관해 피할 수 있는 오해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각국의 입장들을 극단화하고 합리적 토론을 방해하는 용어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몇몇 사례를 아래에 소개하였다. 각 사례에는 개발정책에 대해 영향을 주는 서로 다르지만 유용한 접근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사례에서는 각 관련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많은 용어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통적인 기반도 존재한다.

성장인가 빈곤감축인가?

이는 개발 이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일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제시해 보면, 한편에서는 빈곤문제를 소득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있게 되면 그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trickle down)는 순진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장 옹호론자(growth merchants)"의 입장이 있는 반면, 비슷하거나 보다 더 순진하게 성장은 중요치 않으며 오직 분배만이 중요하다고 믿는 "복지주의자(welfarists)"의 입장이 있다. 사실 이러한 양극단의 견해를 가진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실제로, 적어도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그들 국가의 현재 성장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빈곤감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으며, 또한 그러한 성장의 혜택에 대한 분배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도 없다. 또한 빈곤은 다면적이며, MDGs 에 이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소득증대가 빈곤감소를 위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물론 정책결정은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나, 특히 발전의 '수준'과 '질' 사이에 실제적인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토론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원조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성장의 수준과 질이 모두 중요하며, 빈곤의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하게 공유된 인식을 망각하지 않는 진정한 정책 차별로 이어지게 하자.

공공인가 민간인가?

개발을 공공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양 접근방식에 대한 각각의 장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희소자원의 배분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여타 수단을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각각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여지가 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나친 국가주도 경제, 그리고 지나치게 빠르고 성급한 민영화라는 두 극단적인 경우의 문제점들을 보아 왔을 것이다. 효과적인 국가는 효율적인 시장을,

효율적인 시장은 효과적인 정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대화상대를 골수 국가주의자나 골수 자본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 분야인가 생산과 인프라인가?

이 논의는 원조분야에 대한 논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10 여년간 공여국들은 전체적으로 농업, 공업, 그리고 여러 형태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건분야에 대해 더 많이 지원했으나, 원조액의 20%를 기초교육, 기초보건 및 식수(물론 이 자체도 인프라의 요소이지만) 등에 제공하자는 1995 년에 UN 사회개발정상회의(Social Summit)에서 논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공여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들 분야에 대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투자 이루어 질 때, 민간부문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하는게 중요하다. MDGs 는 기초교육 부문(기초교육은 오랫동안 고등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여국들로부터 소외된 분야임)과 같은 심각한 투자부족영역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아마도 MDGs 의 과제 가운데 가장 명시적인 부분들이 보건이나 교육 관련 목표들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경제부문들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개발원조규모가 MDGs 달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수원국의 관점에서든 공여국의 관점에서든 간에 원조프로그램을 사회분야 개발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여타분야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MDGs 는 제한된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낮은 산모 사망률은 단지 산부인과 진료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그리고 여권신장 부문에서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수원국 당사자보다는 덜하지만 공여국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한쪽의 상황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광범위한 기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틀 안에서, 다양한 원조활동들이 PRSP 등과 같은 빈곤퇴치전략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이 공여국의 개발원조를 정당화한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공여국의 재정지원이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왜곡하지 않는 한, 수원국의 정책과 시스템이 훌륭하면 할수록 공여국이 어떤

분야에 재정지원을 하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로젝트인가 프로그램인가?

예산지원 형태의 원조 장단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비록 과거 수년간에 약간 반등하기는 했지만 예산지원 형태의 원조가 DAC 프로그램원조의 비중에서 감소세를 보여 왔다는 점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도표 2.14 참조). 그러나 이 점은 원조공여사회 내에서 건전하지 못한 정형화와 도식화로 가득 찬 또 다른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공여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

- 모든 공여국은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국별(예를 들어 PRSPs), 지역별 및 분야별 전략의 틀 내에 개발원조를 수행해야 한다.
- 중기예산계획과 연간예산을 작성할 때 개발도상국들은 경상지출과(current expenditure)과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개도국들은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외부 공여국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원받지 않는 한(물자지원, 국제수지 지원, 바스켓 자금지원(basket funding), 직접 예산 지원이던 간에), 개도국이 동원할 수 있는 국내재원만으로는 MDGs 달성에 접근하거나 자본스톡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그러한 지원은 수원국의 자체적인 재원동원을 가능케 하는 개혁조치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이면서 왜곡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동 지원은 편중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제도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자금이전이던 간에 가능한 수원국의 예산 수립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 엄격히 정의된 결과물, 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공자본투자에 대한 요구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일부 프로젝트는 잉여예산 또는 국내 자금차입(local borrowing)으로 적절하게 조달될 수 있는 반면, 더욱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들은 종종 원조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제공하는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 그러한 투자는 수원국의 자본 예산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반복지출의 경우에는 수원국 관련 제도(필요시 개선)의 자체 관리 하에 두는 것이 좋다. 수원국들의 반복지출은 적절하게 계획되어 지속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여국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책임감과 위험수준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완전히 합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의 다양성에 대해, 그리고 실질적인 위험 및 예감되는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회계감사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원국이 개발원조사업에서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공여국들이 공여국 중심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도 즉각적인 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 모두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논의가 필자의 전임 DAC 의장이 의장으로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적절하게 표현한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퇴색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공통의 기반이 실제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 공통의 기반을 더욱 확대시키도록 노력하자.

제 2 장 원조흐름의 동향

이 장에서는 개도국으로의 원조자금 흐름의 추이, 다시 말해 DAC 회원국의 원조 규모와 분배에 관한 최근 동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개발협력을 위한 DAC 회원국의 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형성하는데 있어 정책아이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지난 2 년간은 원조의 규모면에서 볼 때 전환점이었다. 이에 따라, 2002 년도의 원조규모는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술부문 협력과 사회부문에서의 원조는 증가한 반면, 차관원조 및 프로젝트 자금지원부문은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회원국들의 늘어나는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조규모 증대 및 원조효과 개선에 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서 문

지난 2 년간은 개도국으로의 원조자금 흐름의 발전과정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1980 년대에 걸쳐 완만한 수준을 유지해오던 원조규모는 냉전과 제 3 세계에서의 초강대국간 대결이 종식된 후 격감되었다. 1997 년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뒤이은 4 년간의 기간 중 1 년을 제외한 3 년간 공여국들의 원조규모는 총 국가 소득의 0.22%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1 년에서 2002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바뀌게 되었다(도표 2.1 참조). 2002 년도의 원조규모는 전년대비 실질 증가율이 7.2%를 기록하였고, 현재의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2006 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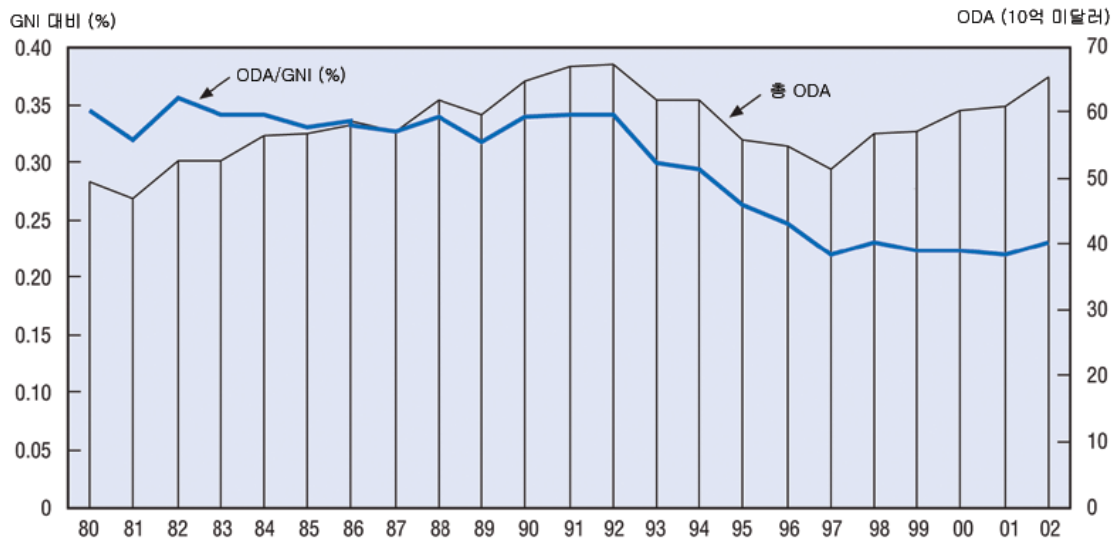
이러한 전환점이 있게 된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2001 년 9 월 11 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다. 이러한 만행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안보, 외교, 개발협력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정책의 모든 측면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한 가지 성과는 정부와 국회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원조규모와 효과적인 원조는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원조에 대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중요한 계기는 2002 년 3 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개발재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였다. 이 국제회의의 계획에 수 년이 소요되었고, 이 회의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많은 토론과 협상의 주제가 되어 왔었다. 회의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았으나 결과적으로는 DAC 회원국들이 원조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있어 새로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장에서는 집필의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DAC 회원국들의 원조 규모와 분배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개발협력을 위한 DAC 회원국의 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형성하는데 있어 정책 아이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시도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향후 원조규모와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제 4 장에서는 각 회원국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도표 2.1. 2001년 물가기준으로 산정한 GNI 대비 DAC 회원국들의 총 ODA, 1980-2002



원조흐름의 전반적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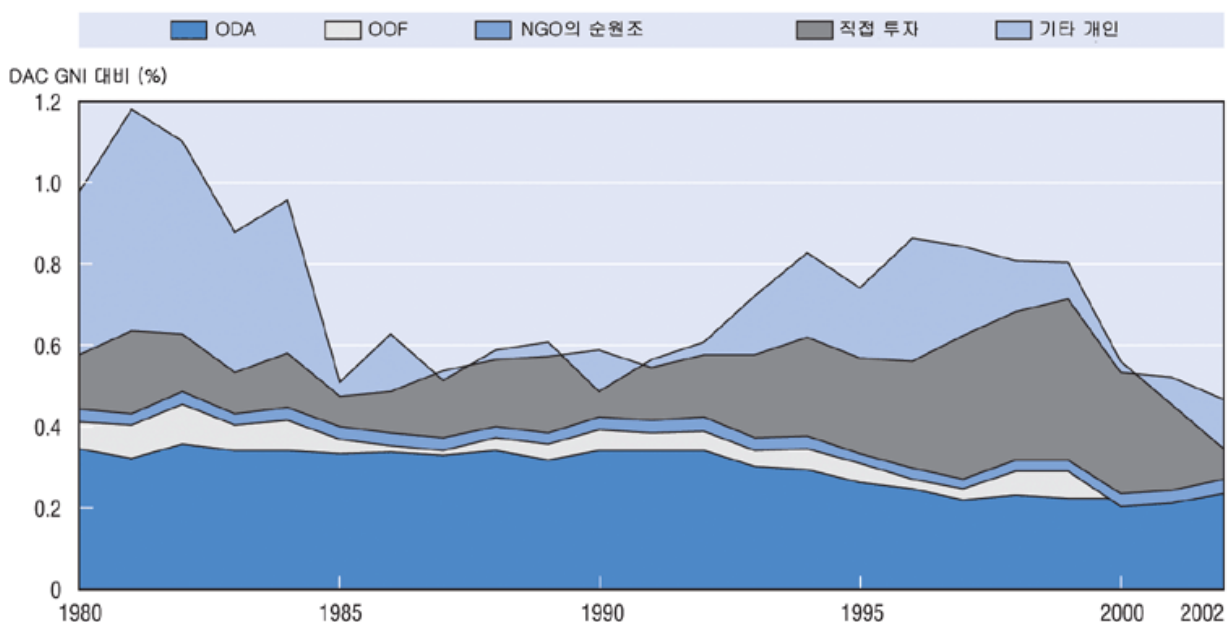
ODA 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공여국의 무상원조와 연성차관 (이자율이 낮은 차관)으로 구성된다. 해외근무 근로자들의 본국송금¹을 제외한다면, ODA 는 개도국에 유입되는 가장 변화가 작고 안정적인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ODA 가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결정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정부차원의 개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¹ 개인에 대한 공적자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외근로자들의 본국송금은 주로 개도국내의 소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DAC 통계에서 개발을 위한 자금의 흐름으로 계상되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D. Ratha, "Worker's remittances: An important and stable source of development finance" in Global Development Finance, World Bank, 2003, 00.157-175)는 개도국의 정책개선과 외환통제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 해외근로자들의 본국송금액이 점차 투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Ratha 는 개도국 해외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2001 년 720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하고 있으나 데이터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ibid.,pp.171-172).

도표 2.2 는 지난 20 년 동안의 ODA 와 ODA 이외의 개발자금흐름의 추이를 보여준다. 개발자금흐름의 각 종류별 구분은 DAC 통계작성 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들 자금은 무상원조, 상환기간 1 년 이상의 차관을 포함하며, 상환이자, 군사적 목적의 신용과 개인에 대한 자금의 이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0 년대 초반부터의 민간부문에서의 자금 흐름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멕시코가 1982 년 대외채무 상황이 불가능 하다고 발표한 후 국제은행에 의한 대출시스템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1990 년대에는 개도국에서 민간투자가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DAC 회원국 GNI 대비 비율 측면에서 볼 때 민간부문에 의한 총 자금 흐름의 규모는 1980 년대 초반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민간부문의 자금 흐름은 보다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투자는 1990 년대 후반에 기록한 정점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도국 성장 전망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민간부문에 의한 자금흐름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에, 채무의 부담을 안겨주는 은행 대출은 20 년 전보다 줄어들었고 은행이 지원하는 투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다 엄밀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2.2. DAC 회원국의 대개도국 자금의 흐름, 1980-2002



1990년대에는 민간부분에 의한 자금흐름의 증대와 ODA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이미 언급한대로, 초강대세력들간 경쟁상황이 종료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원조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에 따라 공여국 정부가 재정을 줄이거나 긴축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원조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원조수요가 줄어들었고 분쟁에 휩싸여 있는 중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의 경우 효과적인 원조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조가 급감되었다.

민간부분에 의한 자금의 흐름은 금리가 떨어져 투자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90년대 전 기간을 통하여 증가하였다. 과도한 대출로 말미암아 1998년부터 동아시아, 러시아, 그외 다른 신흥 국가들의 지속적인 부채상환가능성 문제가 초래되기도 하였으나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민간부문자금의 주요 투자대상국들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은 1982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DAC 와 비 DAC 공여국

20년 전, 비 DAC 회원 공여국들이 제공하는 원조는 DAC 회원국 원조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였다. 소련이 제공하는 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중점이 주어졌었고 이는 전 세계에 걸쳐있는 몇몇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었다. 소련진영이 제공하는 원조규모는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ODA의 1/10을 넘지 못했다. 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1974년과 1979년의 석유가 급등으로 획득한 오일 달러를 환류시키기 위한 아랍 국가들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아랍 산유국들의 노력은 은행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아랍의 원조 규모 또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DAC 회원국 ODA의 1/3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자금이 이슬람 국가에 집중되기는 하였으나 ODA 차관을 제공하는 유일한 주요 UN 기금이라 할 수 있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90년대 초반에는 소련진영의 붕괴와 그에 따른 소련의 원조노력의 붕괴와 함께 석유 값의 지속적 하락으로 아랍지역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었다. 90년대 후반까지 DAC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ODA의 95%정도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수치로 인해 원조 공여국의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 두 가지 요소는 원조공여국의 다양성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결론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우선, 80년대 초 DAC 회원국의 수가 18개국에서 현재 23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중소득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소규모 원조 프로그램이 증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에는 OECD 창립 회원국인 터키, 새로운 OECD 회원국인 체코, 헝가리,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몇몇 비 OECD 회원국인 중국, 대만, 인도, 이스라엘이 포함된다.² 고소득 OECD 회원국가인 아이슬란드 또한 소규모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³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한 몇몇 중·동유럽의 비 OECD 국가들도 다시 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에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DAC 회원국내 원조 노력의 크기 또한 많이 변화하였다. 1980년대 초 DAC 회원국 총 원조의 30%를 차지하던 미국의 원조가 서서히 감소하여 80년대 말에는 20%로 감소한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과 일본의 원조는 증가하였다. 1980년대 초, 일본은 DAC 회원국 중 원조 규모 면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다음인 네 번째에 불과하였다. 국민소득의 비율 면에서 일본의 원조는 1980년대에 그리 큰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엔화가치의 상승 등에 힘입어 일본의 ODA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까지 1위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국민소득 대비 가장 일관되고도 인상적인 원조를 수행한 국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다. 1980년까지 이들 국가들의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은 UN이 목표치로 설정한 0.7%를

² 부록 통계 Table 33 참조.

³ 비 DAC 회원국의 원조프로그램은 제 4장에 보다 상술되어 있음.

넘어섰으며 그 후로 한 번도 이 보다 낮은 비율로 떨어진 적이 없다. 최근에 룩셈부르크가 이 그룹에 동참하였고 아일랜드는 2007 년까지, 벨기에와 프랑스는 2010 년, 2012 까지 각각 이 그룹에 동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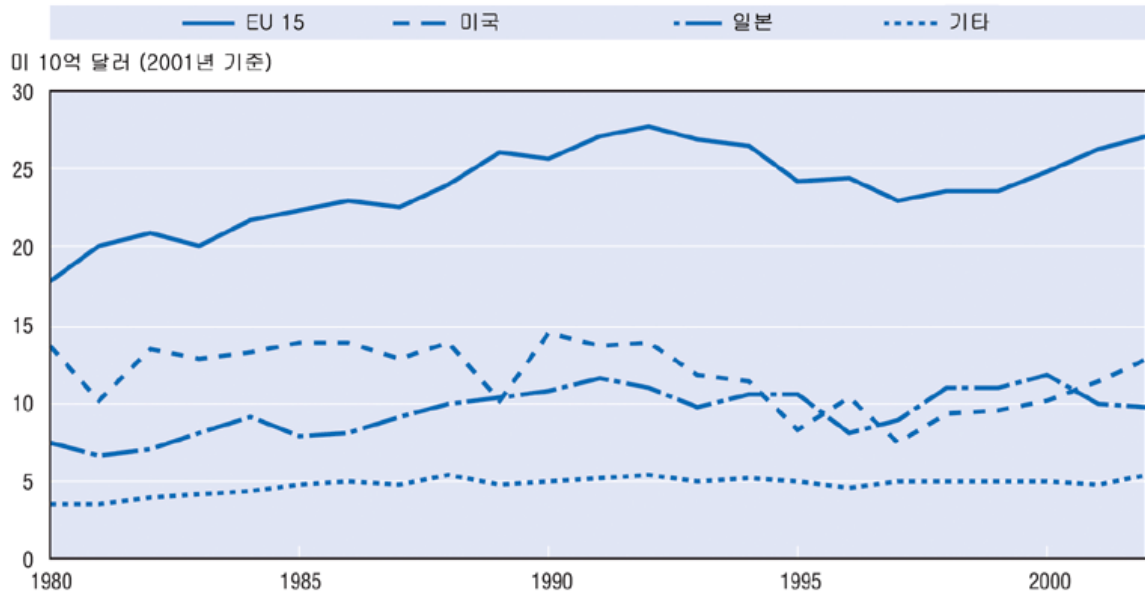
공여국들의 경제성과는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원조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80 년대 말,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붐을 경험한 핀란드와 이탈리아는 그들의 원조노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 1991 년까지 핀란드는 UN 의 ODA 목표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는 90 년대 초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원조 규모를 다시 급격히 감축시켰다. 1996 년도 DAC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원조는 특히 공여국의 재정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의적인 지출비용이라 할 수 있다.⁴

흑자재정을 이루거나 적자규모가 적을 때 원조 규모는 늘어나는 반면, 재정적자 규모가 큰 경우 대부분 원조 예산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른 DAC 회원국의 원조는 실질 규모 면에 있어서 최근 들어 침체상태에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민소득과의 비율 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소득과의 비율 면에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이다. 적어도 80 년대 초 이들 양국의 ODA/GNI 비율은 0.5%를 넘었지만 현재는 그 반 정도의 비율로 줄어들었다. 벨기에와 독일의 원조는 같은 기간동안 1/3 정도 감소하였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위스의 원조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영국의 원조는 그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예전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도표 2.3)

⁴ 1996 년 DAC 연보 Development Cooperation. pp.95-97.

도표 2.3. 실질가치 기준으로 본 DAC 국가의 ODA, 1980-2002



지역별 및 소득 그룹별 원조

총 ODA 가 2001 년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수원지역별 여건도 다양하게 변하였다. 1970 년대 이후부터 아시아는 원조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ODA 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 제공되는 ODA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원조도 비교적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90 년대 말 중소득 국가들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출이 증가된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지출은 줄어들게 되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의 축소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점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콩고 분지,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일부 등 분쟁에 휩싸여 있는 지역에 대한 원조의 전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짐바브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권문제로 인하여 원조감소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프랑스의 원조가 상당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 년도 CFA 및 Comorian Franc 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가절상된 프랑스의 원조액이 이들 CFA 및 Comorian Franc 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적자를 보충하는데 충분했다는 점이다.⁵

원조를 총량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개별 원조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공여국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유럽 국가들이다. 2000-01 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은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의 상위 10 대 수원국 중 8 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 7 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0-01 년간 호주와 뉴질랜드의 상위 10 대 수원국 모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며 일본의 경우 10 대 수원국 중 9 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었다. 스페인은 남미에 상위 수원국을 집중한(10 개 중 6 개) 유일한 공여국이었다. 다른 공여국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고르게 실시되고 있다. 제 1 장에서 국별 ODA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990 년대는 또한 과거 소련진영에 속하였던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최초의 원조프로그램이 제공된 시기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개발원조와 성격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들 원조는 ODA 에 포함되지 않는다.⁶ DAC 의 수원국 목록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는 “기술적인 용어 목록(Technical Notes)” 참조 요망.

이들 원조는 주로 외채 구제와 시장경제로 원활하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주요 공여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었으며, 오스트리아, 캐나다 및

⁵ CFA 및 Comorian Franc 화 사용 국가들에 대한 총 ODA 는 최고수준에 달한 1994 년보다 약 25 억 달러가 감소하여 현재 30 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들 화폐에 대한 간략한 역사는 A. Konate, "Challenges Facing the CFA Franc" in *Conjuncture*, BNP-Paribas, October 2001, p. 2f. 참조 요망.

⁶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바니아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형성했던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ODA 로 계상함. 이는 이들 국가들이 소련과 그 동맹국들과는 달리 중유럽 및 동유럽 공산 국가들의 몰락 이전 당시 수원국 목록이 ODA 를 기준으로만 작성되어 있던 시기에 수원국 목록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덴마크 또한 많은 기여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 첨부 통계자료의 제시된 마지막 3건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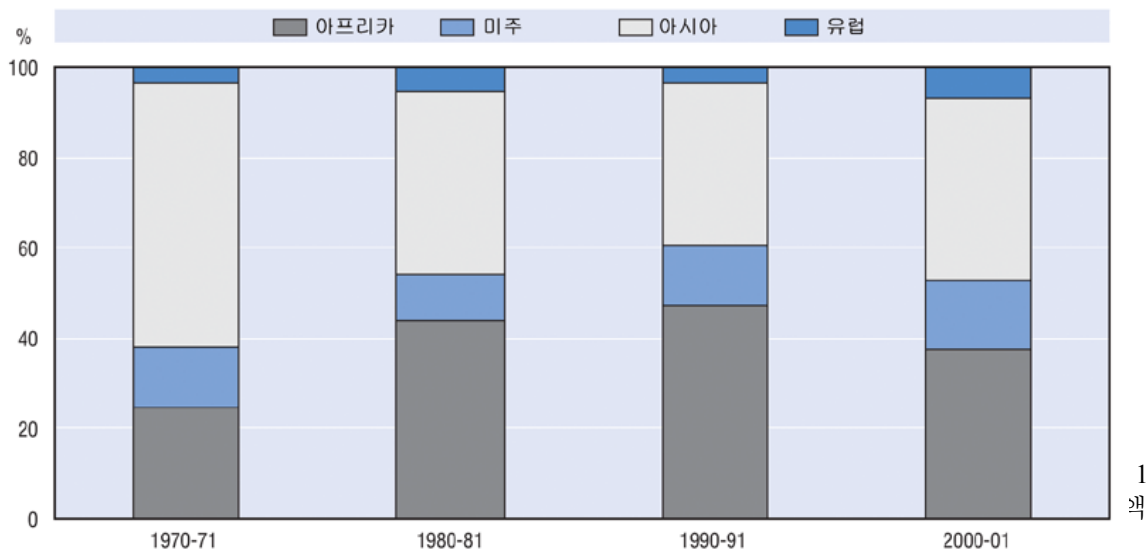
1990 년대를 통하여 소득그룹별 ODA 의 배분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3 개의 소득그룹 - 최빈개도국(총 인구: 660 백만), 기타 저소득국(중국 및 인도 포함, 총 인구 30 억), 저중소득국(총인구 650 백만) - 에 각기 약 30%씩 배분되었다.⁷ 이러한 상황은 원조를 수원국의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원조비율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면 달라지게 됨. 2001 년도에 ODA 는 LDCs 국민소득 중 8.3%를 차지했으나, LMICs 의 국민소득 중에서는 단지 1.2% 만을 차지하였음. 여기에는 최근 중국이 LMIC 가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고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에 대한 원조는 지난 20 년 동안 전체 ODA 의 10%를 넘지 않았다.

다자간 ODA 의 비율

도표 2.4 는 1992 년과 2002 년 사이 공여국들의 다자간 원조 점유율을 비교하고 있다(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1999 년에 DAC 에 합류한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DAC 회원국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변화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경우 그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도표 2.4. 수원 지역별 DAC 공여국들의 원조비율 (1970-71에서 2000-01까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자간 원조 비율의 변화는 각 공여국의 양자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따른 간접적 결과인 경우가 많다. 즉, 공여국들이 각 다자간 원조기구에 제공하는 기여분은 각 공여국의 소득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자간 원조규모 그 자체는 서서히 변화한다. 원조규모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에 대한 각 공여국의 결정은 양자간 원조규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다자간 원조규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공여국의 전체 원조규모 증감에 대한 결정의 결과는 양자간과 다자간 원조비율의 상대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동 기간 중 총 원조규모를 크게 증가시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다자간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대조적으로, 원조규모가 대폭 감축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자간 원조 비율이 상승하였다.

그 외의 몇 가지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특별한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면, 1992 년 포르투갈의 양자간 ODA 규모는 외채를 대거 탕감해주면서 이례적으로 증가한 반면, 총 ODA 중 다자간 ODA 의 비율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1992 년에는 스위스가 세계은행에 가입하면서 이에 따른 출자금으로 스위스의 다자간 ODA 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도표 2.5 부터 2.8 은 DAC 회원국 프로그램 중에서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항상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총 규모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EC 기구⁸와 UN 을 통한 원조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국제개발협회(IDA)와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금은 감소되어 왔는데 이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상환금을 가지고 자금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도표 2.6 은 DAC 회원국들의 EC 기구들에 대한 다자간 원조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율은 1980 년대 이후 증가하여 왔는데, 이러한 증가는 부분적으로 EU 에 새로운 국가들(1986 년 스페인, 포르투갈; 1995 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가입에 따른 것이다.

⁸ EC 원조는 DAC 통계에서 다자간 원조로 분류됨. EC 는 DAC 의 정회원임.

도표 2.7 은 DAC 회원국들이 UN 기구들에 제공한 다자간 ODA 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최근에 조금 증가하였다. 이 자료는 UN 기구들의 핵심적인 예산에 대한 기여금만을 포함하며, UN 과 다른 국제기구의 자금원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비 핵심 예산에 대한 기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도표 2.8 은 DAC 회원국의 다자간 ODA 중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IDA 는 최빈국에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세계은행 그룹의 자매기구이다.) DAC 회원국 다자간 ODA 중 IDA 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IDA 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쇄되어 왔으므로 IDA 가 새로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여력은 늘어난 상태이다 (도표 2.10 참조).

도표 2.9 는 DAC 회원국이 제공한 다자간 ODA 중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이 경우 변화 폭이 심한데 이는 1990 년대 중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거의 와해상태에 이른 후 90 년대 말 자금의 투입으로 갱생하였기 때문이다. IDA 와 마찬가지로 상환금(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의 상환금)의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지역개발은행의 전체적 자금 상황은 향상되었다.

도표 2.5. 다자간 국제기구에 대한 DAC 회원국들의 ODA 비율, 1992-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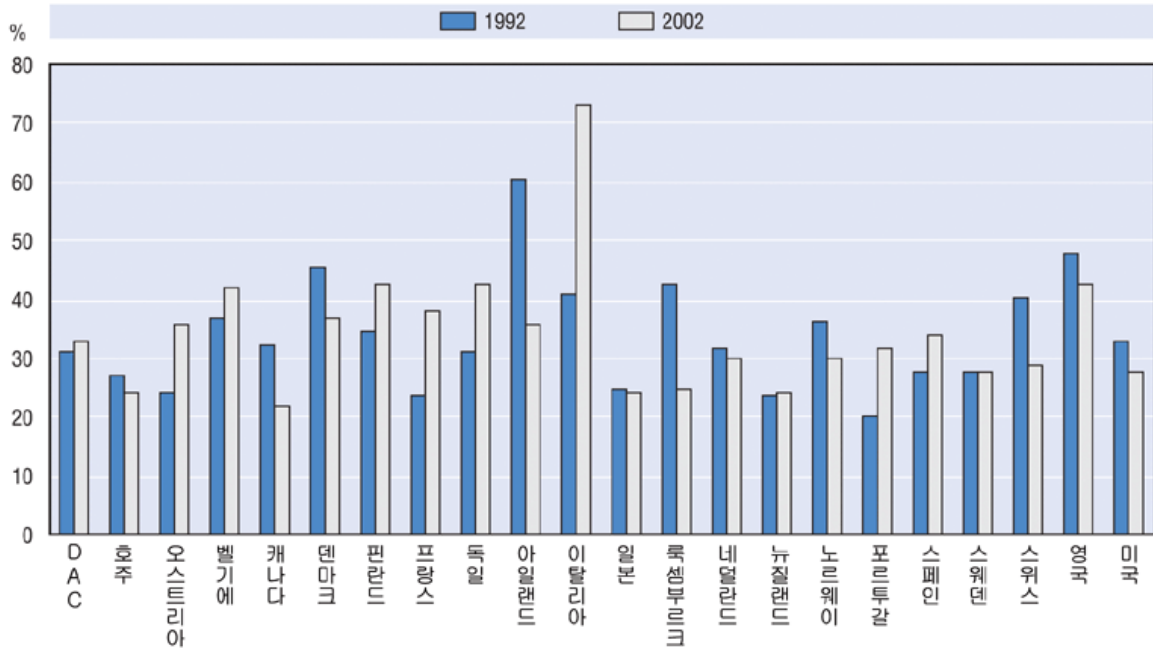


도표 2.6. 유럽 공동체 (EC)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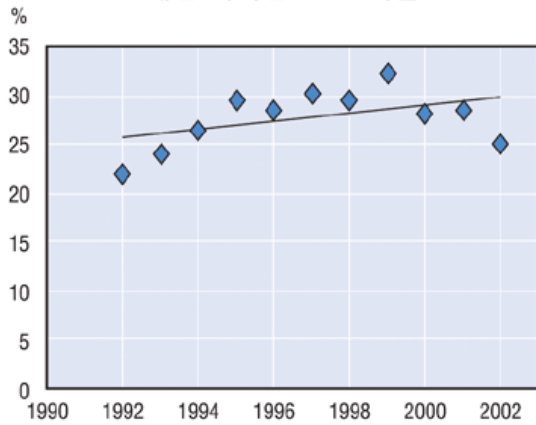


도표 2.7. UN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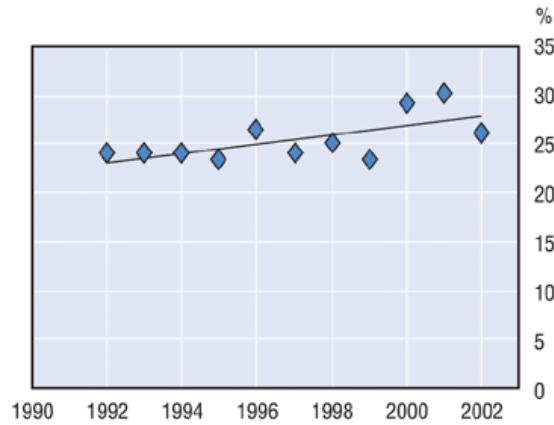


도표 2.8. 국제개발협회 (IDA)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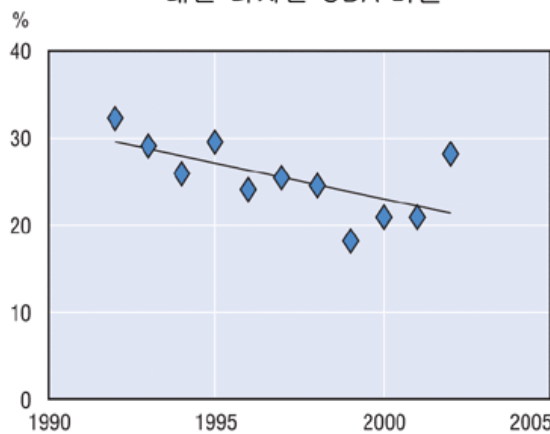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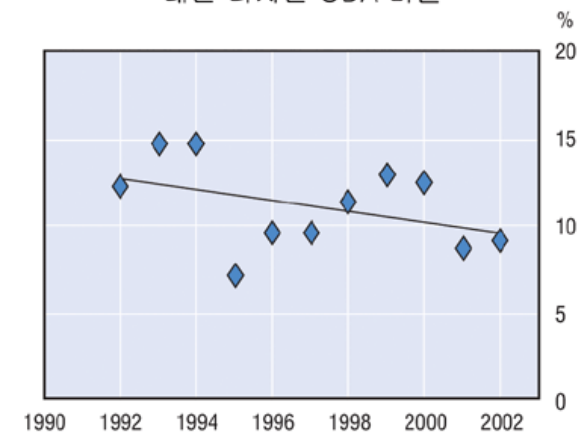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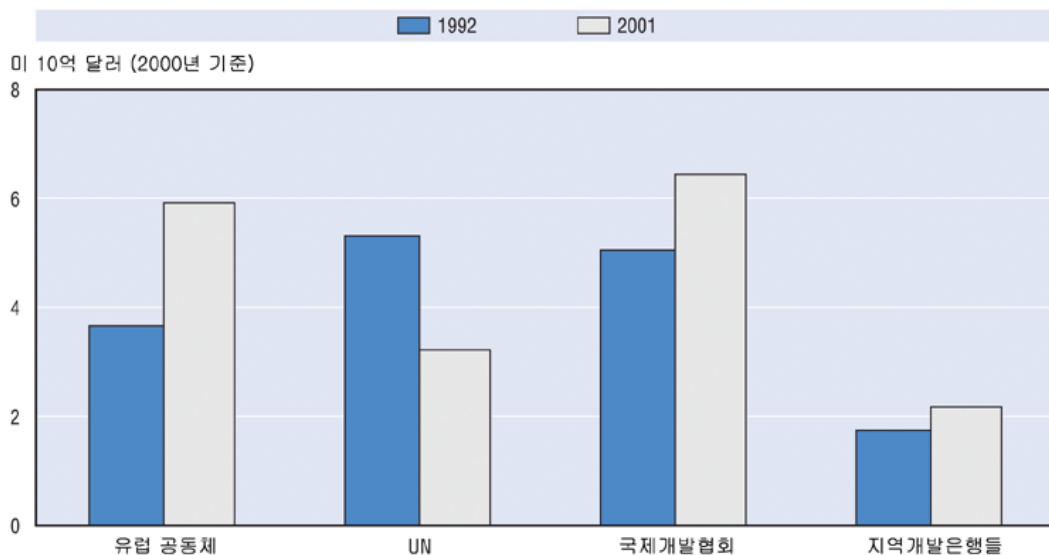
도표 2.9. 지역개발은행(RDB)들에 대한 다자간 ODA 비율



다자간 협력기구에 의한 자금흐름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다른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도표 2.10 은 1992 년과 2001 년 사이의 EC, UN, IDA, 지역개발은행의 핵심 예산에서 지출된 양허성 자금 총액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EC 의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UN 에 의한 지출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집행된 보조적 성격의 자금으로 일부가 상쇄되어 왔다.⁹

또한 도표 2.10 은 공여국들이 IDA 에 제공하는 신규 출자금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IDA 의 지출규모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의 회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개발은행의 양허성 자금 대출은 약간 증가하였다.

도표 2.10. 다자간 기구에 의한 양허성 자금 지출 총액
(1992년,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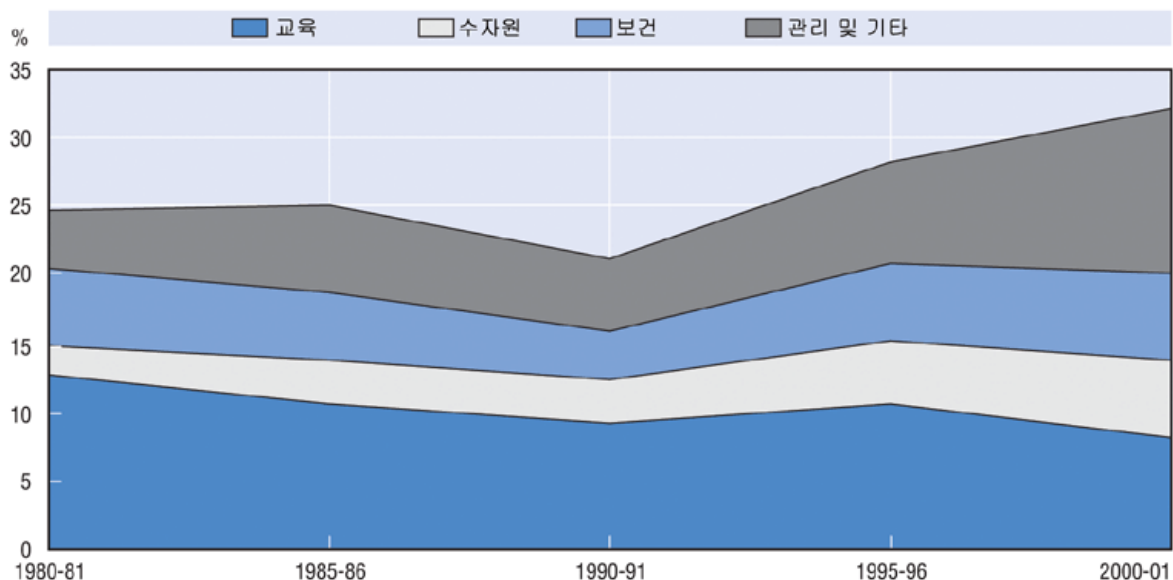


⁹ EC 와 UN 모두 공여국들의 다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0%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C 에 의한 자금지출은 늘어난 반면 UN 의 자금지출이 줄어든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EC 재원의 집행율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1990 년대 초반 EC 의 재원 집행율은 회원국이 제공하는 기여금에 비해 한참 뒤졌으나, 현재는 집행율이 기여금 제공현황을 앞서 가고 있음. 이 점에 있어서 EC 는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 집행하는 양허성 차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이 양허성 차관에 대한 상환액은 IDA 와 지역개발은행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규 대출에 활용되고 있음. 다른 요인으로 통계적인 이유를 들 수 있음. 도표 2.10 의 자금흐름은 2000 년 달러 환율로 고정되어 표시된 것임. 반면 도표 2.6 부터 2.9 는 당해연도의 실제 비중을 보여주기 위해 명목환율로 표시된 것임. 1992 년 당시의 유럽화폐단위(ECU: European Currency Unit)의 평균 환율은 USD1.29 였으나, 2001 년 ECU 를 대체한 유로화의 환율은 USD0.92 였음. 따라서 1992 년 유럽화폐의 상대적 환율상승은 EC 가 당시 총 다자간 원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됨. 만약 도표 2.6 이 고정환율로 표현된다면, 총 다자간 기부액에서 EC 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며, 후속년도에 발생한 EC 의 비중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임.

분야별 원조경향

도표 2.11 부터 2.14 는 과거 20 여년 동안의 분야별 원조규모 추이를 보여준다. 사회분야(도표 2.11)에 대한 원조 비중의 증가는 1970 년대 후반부터 동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78 년 알마아타(Alma-Ata)에서 개최된 '국제기초보건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에서는 2000 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 증진을 개발 목표로 선언하였으며 1981 년에 시작된 '세계식수공급 및 위생 10 년(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은 1990 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위생상태의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1980 년대 및 1990 년대 초까지 어린이 예방접종, 농촌 물 공급에 관한 주요한 캠페인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유아 사망률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달성된 목표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물 공급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데, 물 공급의 경우 과거 몇 년 동안 뚜렷한 원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에는 미치고 못하고 있다.

도표 2.11.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중 사회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1980-2001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는 주로 기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교육 분야 전체에 대한 원조는 조금 감소했으나, 기초 교육에 대한 규모는 1996 년 교육 전체 규모의 약 15%에서 2001 년 약 25%로 증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기초 보건서비스에 대한 원조 규모 역시 보건 분야 전체 원조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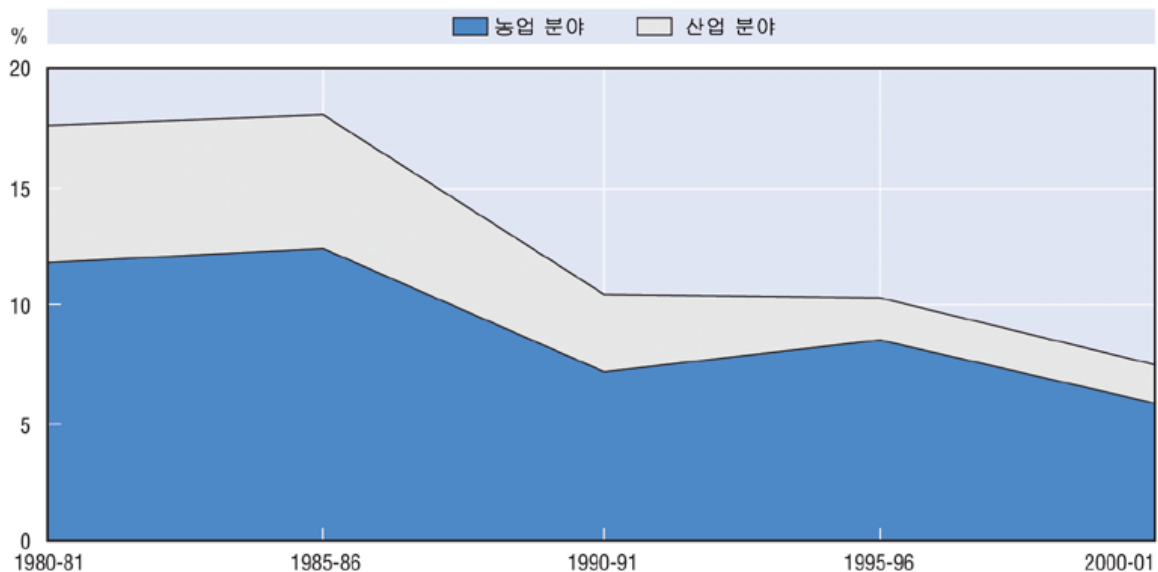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90 년대 들어 거버넌스(governance)와 다른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의 확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권 신장, 선거 모니터링, 지역 개발, 과세(taxation)와 같은 정부 기능부터, 개발 측면에서의 마약통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원조 경향은 그동안의 역사적 및 지적인 발전을 반영한다. 경기침체와 동유럽의 사회주의 쇠락은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제도구축과 시장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2-1995 년 기간 동안 르완다,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인도적 긴급상황은 종족간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으며 개발을 수년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학자들과 OECD 의 연구 역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Robert Putnam 의 이론은 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관심의 초점을 둔 반면 Dollar 와 Burnside 에 의한 세계은행의 연구조사는 원조 효과측면에 있어 정책과 제도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생산 분야에 있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원조 감소가 점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림 2.12 및 본 장 부록). 농업 분야는 ‘국제농업연구 협의체(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의 확대 및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의 설립과 함께 1970 년대 주요한 원조 분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 초까지, 몇몇 큰 규모의 통합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실패는 농업분야에 대한 개발 열의를 식게 하였다. 세계 곡물생산의 점진적 증가 및

점차적으로 낮아진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세계인구의 15%가 아직도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사회 분야에 대한 강조 역시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 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준비 과정에서 식량 생산이 기초 사회 서비스의 정의에서 제외된바 있었다.

도표 2.12.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중 생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198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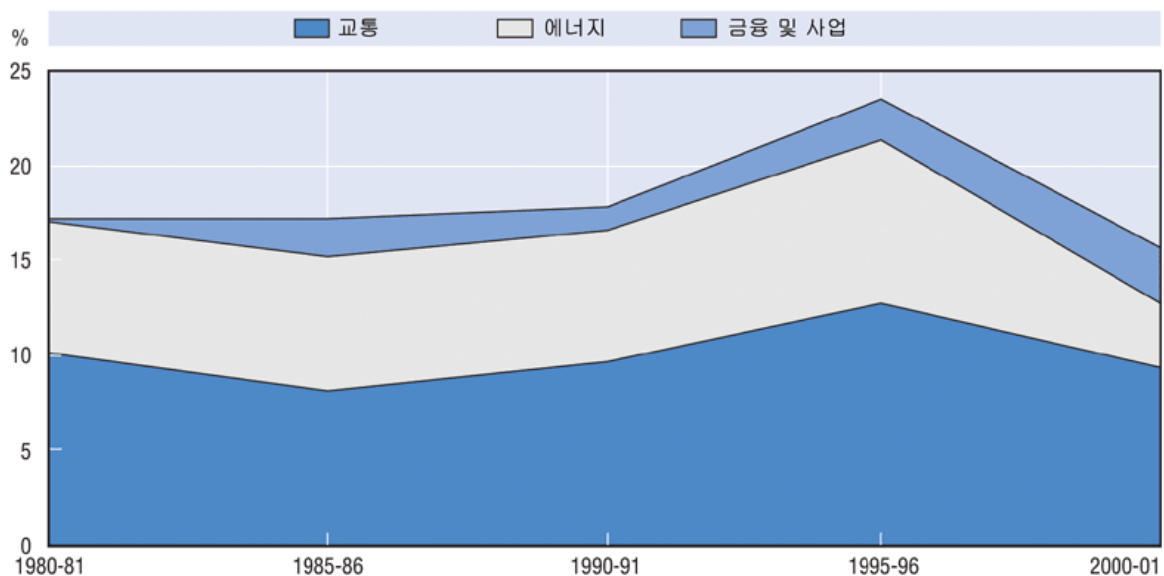


산업분야에 대한 원조는 1987년 ‘혼합금융에 관한 DAC 기본 원칙(DAC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¹⁰과 소위 말하는 1991년 헬싱키 패키지(Helsinki Package)의 영향으로 구축성 원조 신용 제공을 억제한 이후부터 감소하였다. 이 패키지는 상업적인 재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고 있다. 적어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1990년대 기간 동안 민간의 해외직접투자(FDI) 증대는 산업개발 용도의 원조자금 제공을 규제하자는 합의에 따라 감소된 원조 금액의 몇 배 이상 보전하고도 남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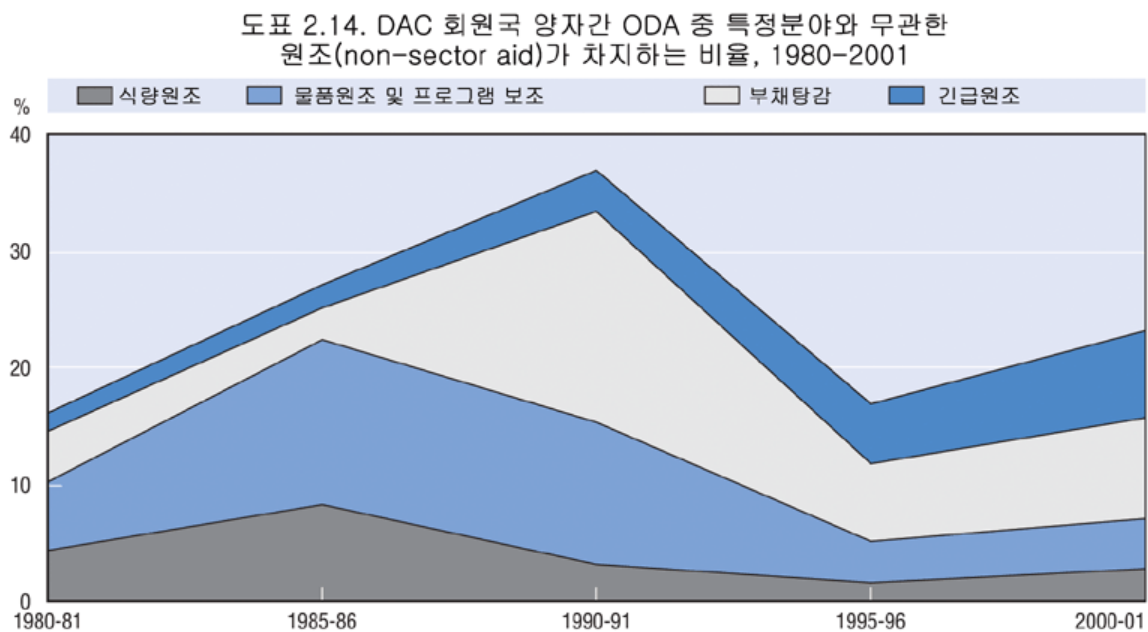
¹⁰ 정식 명칭은 ‘혼합금융과 조건부 및 부분 조건부 ODA에 관한 DAC 기본 원칙(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임. 동 원칙들은 1987년 DAC 연보 pp.177-181에 제시되어 있음. 헬싱키 패키지(Helsinki Package)는 동 원칙들을 강화하였음. 1992년 DAC 연보 pp.10-11 참조 요망.

에너지 분야(도표 2.13)에 대한 원조의 감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산업분야에 대한 원조와 같이, 헬싱키 패키지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 대한 원조 제공 제한은 당장 급작스런 원조의 감소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조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 보다 세부적인 자료들은 이 분야에 대한 주요 재원 지원국이었던 프랑스, 독일, 일본의 최근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급격한 원조 감소를 보여 준다. 상기 공여국들의 전반적인 원조 감소는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다소 낮아진 원유가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기대수익을 삭감시켰으며 중소득 국가의 에너지 공급 사유화도 원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교토의정서(Tokyo Protocol)가 발효될 경우 ‘청정개발메커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CDM 지출을 ODA 로 간주할지 여부는 현재 DAC 에서 논의되고 있다.

도표 2.13.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중 인프라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1980-2001



특정 분야와 무관한 원조(non-sector aid, 도표 2.14)로 관심을 돌려 보면, 1985-86 년 물품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¹¹의 증가는 특히 미국에 의한 물품 원조의 확대와 구조조정 지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식량원조 역시 1980 년 중반이 최고점으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국가의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과 함께 이들 국가의 기근 해소를 위해 지원되었다.



1990 년대 긴급원조의 증가는 특히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인도적 위기상황의 증가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인도적 측면의 긴급상황은 1998 년 중미 지역을 황폐화시킨 허리케인 Mitch 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대한 자연 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원조자금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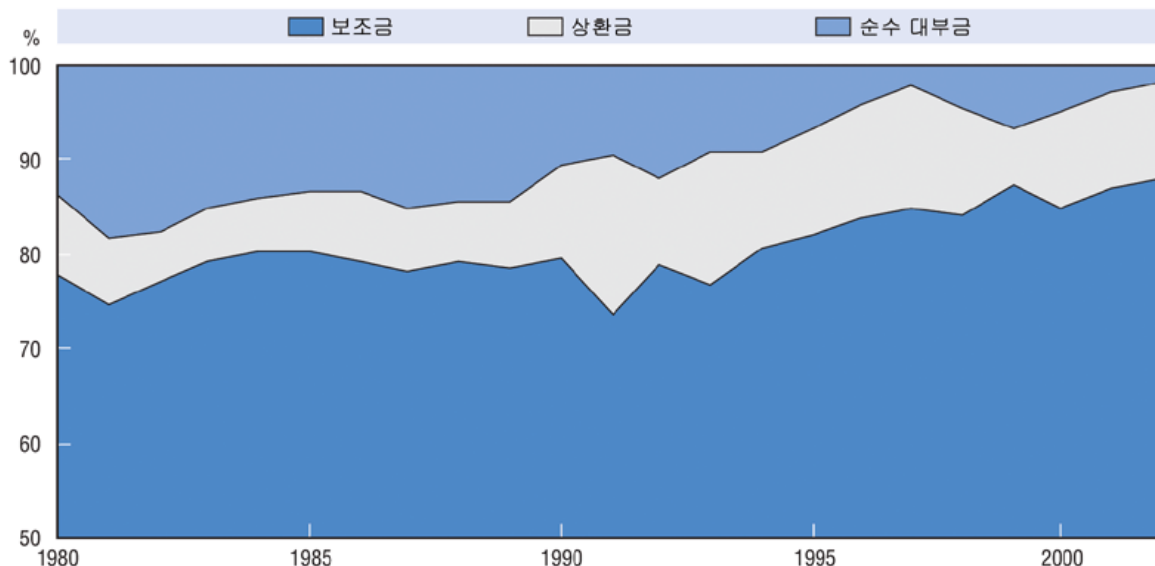
부채탕감은 미국이 걸프 전쟁시 이집트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채무를 탕감했을 때인 1990-91 년에 이례적으로 높았다.

¹¹ ‘일반 프로그램 원조(general programme aid)’ 는 주로 예산 및 국제수지 보전 지원으로 구성됨. 일반 프로그램 원조는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sector programme aid)’을 포함하지 않음.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은 해당 분야의 ODA 로 계상됨.

형태별 원조집행 동향

원조 형태에 있어 몇 가지 뚜렷한 장기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무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다(도표 2.15). 무상원조는 도입 이래 DAC 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1960 년대 및 1970 년대 동안 원조조건에 관한 일련의 권고들은 전체 ODA 중에서 증여율(grant element) 목표를 성공적으로 증가시켰다. 증여율은 무상원조의 비율 및 차관의 양허성(concessionality)과 관련해 볼 때 원조의 전반적인 유연성(softness)을 측정하는 한 지표이다.

도표 2.15. 총 ODA 구성비, 1980-2002



원조 조건에 관한 1978 년 승인된 ‘ 원조조건에 관한 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id)¹² 의 최종적이고 가장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ODA 의 평균 증여율 최소 86% 달성
- 최빈국(LDCs)의 경우, LDCs 국가 전체로 볼 때 매년 90%이상의 증여율을 달성하거나 개별 LDC 국가 차원으로 볼 때 3 개년 간 86% 증여율 달성

¹² DAC 연보 1978 년판 pp.171-173 참조 요망.

최근 몇 년간 모든 DAC 회원국들은 상기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다. 비록 이탈리아와 미국의 ODA가 상기 조건과 관련한 DAC의 평균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2002년 시행된 통합 ODA 규모심사(associated ODA volume test)를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몇몇 DAC 국가들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수출상품의 가격하락 및 다른 외부적인 충격을 접하고 있는 수원국의 채무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차관지원 프로그램(ODA lending programmes)을 삭감하거나 중단했다. 따라서 차관지원은 몇몇 공여국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2002년 일본 혼자서만 DAC 회원국이 지원하는 총 70억불의 신규 ODA 개발차관 중 50억불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중에서는 독일이 6억불, 프랑스 6억불 등을 제공하였다. 다른 DAC 회원국들 중에서는, 오직 스페인만 총 ODA 금액 중 5% 이상을 신규 개발차관 형태로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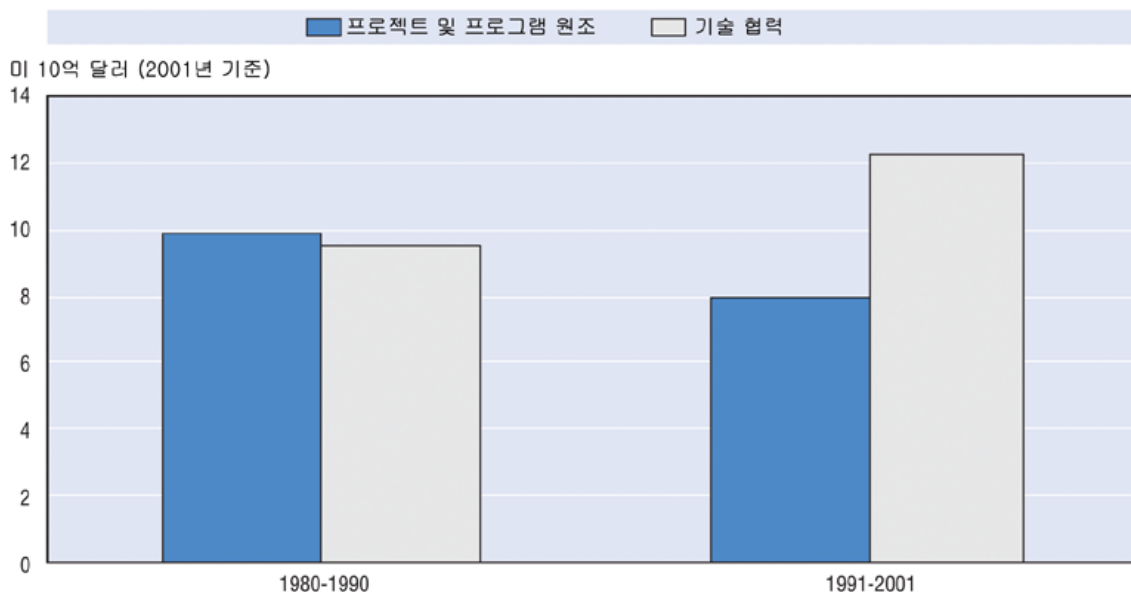
원조형태의 두 번째 경향은 공여국의 상품 및 서비스 매입을 요구하는 구속성 원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로 구속성 원조 사용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DAC 회원국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기술협력을 제외하면¹³, 비구속성 원조는 1980년대 초반 DAC 공여국의 양자간 원조 중 약 60%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평균 80%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의 비교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구속성 원조의 감소라는 전체적인 경향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DAC 회원국들이 2002년부터는 최빈국(LDCs)에 대한 그들의 모든 재정적 원조를 비구속성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¹³ 현행 양자간 ODA의 약 1/3을 차지하는 기술협력에 대한 소요자금은 대부분 공여국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더 이상 구속성 통계로 포함되지 않음. 1980년대 초 구속성 원조에 관한 기준에는 기술협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시 자료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50%라고 제시하고 있음. 여기서 제시하는 비구속성 원조를 60%라고 추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기술협력은 구속성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임. 구속성 원조에 관한 최근 자료에 대하여는 통계 부록의 표 23과 24를 참조바람. 최대 공여국을 포함한 4개 공여국이 현재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구속성 현황을 보고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오랫동안 인정된 평가기준에 근거해 볼 때 이 두 원조경향은 원조의 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원조배분 방식이 냉전시대 정치적 연고주의에서 개발성과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원조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 번째 경향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에서 기술협력으로의 전환이다(도표 2.16). 이러한 현상은 총 ODA 규모에서 사회분야에 대한 비중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분야(예를 들면, 교육, 건강, 거버넌스)에 대한 원조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 관련 장비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도표 2.16.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원조와 기술협력에 대한 DAC 회원국의 연평균 공여액



자본 프로젝트(capital projects)에서 기술협력으로의 전환은 개발원조 체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중소득 국가들은 공공시설의 사유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점차 민간부문에서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빈국에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여전히 양자간 원조가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이러한 임무는 점차 다자간 개발은행으로 넘어가고 있다.

기술협력 비중의 증가를 전체 원조 질적 개선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는 기술협력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결론내리기 어렵다. 분명히,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역량개발에 있어 근본적 사항이며 기술협력의 개별적 사례들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비판자들은 기술협력 비용이 고비용의 외국 컨설턴트들에게 지출되어지며 수원국의 전반적인 역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원조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현지 전문화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DAC 의 거버넌스네트워크(DAC Network on Governance)'는 기술협력이 성공적인 역량개발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원조 증가

최근 2 년간 원조는 완만하지만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빈곤감소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고 개발목표가 분명해졌으며,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과 개발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전망에 대해 1980 년대와 1990 년대를 주름지었던 회의주의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개발의 성과가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소득의 증가 측면에서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나 지나간 각각의 십년 단위 기간은 빈곤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 원조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가 만을 따로 추출하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가난한 국가일 경우 건전한 정책과 효과적인 외부지원이 서로 잘 병합되어야 만이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은행과 DAC 회원국들에 의한 연구들은 원조의 질과 효과는 개선되고 있으며 감소 추세에 있던

원조규모 역시 회복세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 3 장은 ODA 의 중기적인 전망을 검토할 것이다. MDGs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추가적인 증가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 왔다. 재정적 위기가 현존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MDGs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부 록

농업분야 원조 감소

DAC 통계는 도표 2.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원조의 감소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연도별 DAC 통계는 공여국이 제공하는 농업분야 원조총액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CRS Aid Activity" 데이터베이스는 수원국 및 세부분야 별로 농업에 대한 원조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관련 정보는 국제 개발통계사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www.oecd.org/dac/idsonline).

공여국별 농업 원조

지난 15 년간에 걸쳐 전체 원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표 A.1)은 실제로 모든 공여국에서 감소되어 왔다. 이는 양자 및 다자간 원조 모두 마찬가지이다. 절대적 규모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감소는 미국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감소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컸다. 농업에 대한 다자간 원조는 양자간 원조보다 더 크게 감소해 왔다.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및 IFAD 가 제공하는 농업분야 비양허성차관도 같은 기간 실제적으로 2/3 나 줄어들었다. 최근 몇 년간,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총액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41 억 달러였으며, 비양허성차관은 연간 약 18 억 달러였다.¹⁴

¹⁴ 농업원조에 대한 DAC 의 정의는 다부문원조로 분류되는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을 제외함. 농촌개발을 위한 양자원조는 농업원조에 비해 안정적이었으며, 최근 몇 년간 평균 5 억 달러에 달함. 반대로, 다자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에 의한 농촌개발을 위한 차관은 하향추세였음. 자료는 1980 년부터 1995 년 사이 실질금액 기준으로 75%의 감소를 보여줌. 2000-01 에는 이 비율은 연간 평균 5 억 달러로 다소 상향되었음.

표 A.1 공여국의 농업원조액 및 총액대비 비율; 1980-2001

	1980-81	1985-86	1990-91	1995-96	2000-01	2000-01
	% (원조액 / 공여국 총계 x 100)					US\$100만
호주	7	10	13	4	8	60
오스트리아	1	4	3	2	1	7
벨기에	4	12	10	13	9	44
캐나다	22	19	9	4	4	50
덴마크	10	15	9	7	10	90
핀란드	14	15	12	8	6	16
프랑스	7	10	7	6	6	210
독일	8	10	7	7	4	141
그리스	..	..	..	2	1	1
아일랜드	0	18	14	5	8	13
이탈리아	10	14	11	5	4	25
일본	11	14	11	12	9	1 140
룩셈부르크	..	..	..	5	4	4
네덜란드	21	19	12	9	3	91
뉴질랜드	25	20	4	13	3	3
노르웨이	25	14	7	5	5	46
포르투갈	..	..	..	2	1	4
스페인	..	..	1	7	3	36
스웨덴	11	6	11	9	3	35
스위스	20	24	15	9	4	26
영국	6	10	10	10	5	148
미국	18	11	3	6	4	379
소계 (DAC)	12	12	7	8	6	2 569
AfDf	31	31	24	29	14	143
AsDf	35	26	43	21	9	108
EC	..	24	..	7	7	426
IDA	34	34	22	14	10	660
IDB Sp Fund	29	11	16	9	8	32
IFAC	59	83	54	76	50	172
소계 (다부문)	35	30	25	16	10	1 541
총계	16	16	10	10	7	4 110

1. 공여국별 원조총액 대비 농업원조 비율

정의: 농업에 대한 원조는 농업분야정책, 기획 및 프로그램, 농업용지 및 농업용수자원, 농업개발 및 이와 관련된 투입요소 공급, 작물 및 가축생산, 농업서비스, 농업교육, 제도능력배양 및 자문, 훈련 및 연구를 포함함. 또한, 산림 및 어업부문을 포함함(1996 년 이후 별도분야로 구분). 농촌개발(다부문원조로 구분) 및 식량원조(일반프로그램원조의 하부 카테고리)는 제외됨.

주 : 대부분의 공여국 내부 보고체계는 물론, DAC 보고에 있어서 각각의 원조활동은 “ 분야별 단일부호(one sector code)” 만이 부여될 수 있음.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원조활동의 경우에는 다부문부호(multi-sector code) 또는 해당 원조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함. DAC 통계에 있어 농업원조는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만이 포함되고, 다부문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농업원조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NGOs 를 통한 농업원조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의 경우처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원조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현재 단일분야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공여국별로 어디에 얼마만큼을 제공하는지 비교 가능하도록 보고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방식이 지원규모의 추세 및 순서에 대한 편향된 분석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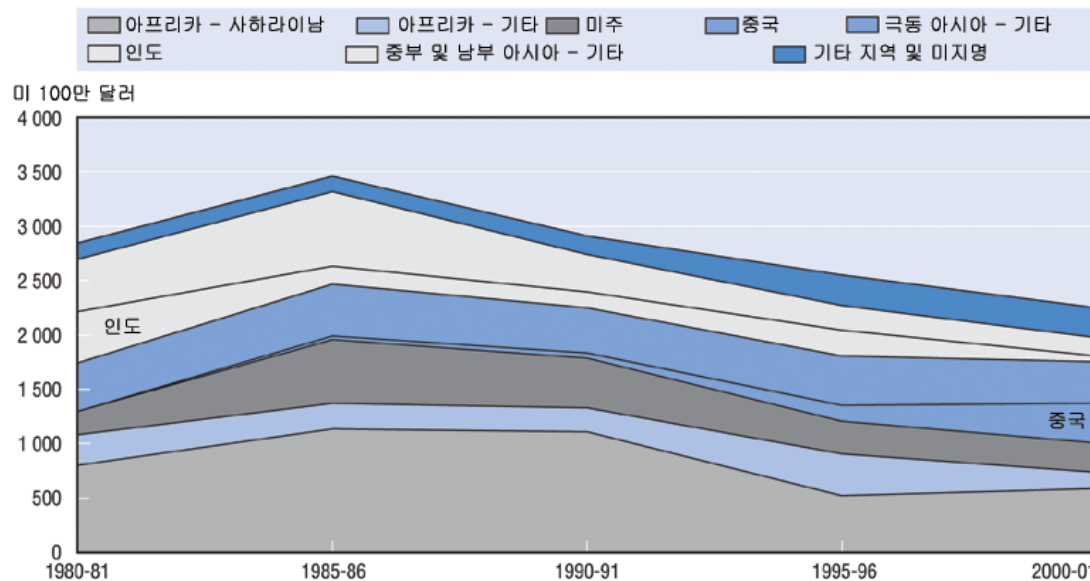
출처: DAC statistics for DAC members, CRS aid activity database for multilaterals

수원국별 농업원조

세계 최빈국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부 및 중앙아시아 - 이 농업에 대한 원조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도표 A.1). 소말리아와 수단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내부 분쟁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추진이 방해를 받았으며, 거버넌스의 문제는 방글라데시, 케냐, 미얀마, 탄자니아 등에서 원조감소를 불러왔다. 그러나 농업원조가 가장 크게 감소된 나라는 인도이다. 1980년대 초반 인도의 농업개발을 지원했던 몇몇 공여국들은 더 이상 농업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인도에 대한 원조총액 또한 감소했지만, 이것은 녹색혁명과 이에 따른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가 증가된 유일한 지역은 극동아시아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원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DAC 회원국이 중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그 중점분야가 변화된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중국에 대한 원조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해안지역의 산업개발은 주로 민간부문이 대체하여 왔으며, 공여국들은 그들의 재원을 내륙지역의 농촌지역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여 왔는데, 일본 ODA 차관이 이러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표 A.1. DAC 회원국의 지역별 농업분야 양자간 원조, 1980-2001
(2001년 물자기준)



하부분야(sub-sector)별 농업원조

많은 공여국들이 프로젝트원조에서 프로그램 원조로 전환해 왔고 분야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표 A.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의 몇몇 하부분야에 대한 원조는 줄어든 반면 1995 년 이래 “ 농업정책 및 개발” 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농산물 증대를 위한 투입물 공급, 농업 서비스, 농업교육 및 연구부문에 대한 원조는 지난 20 년간 반감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농업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재평가한 결과이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공여국들은 농업 투입물(비료, 종자,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농업 서비스분야(보관 및 운송, 마케팅, 금융 중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업 교육, 훈련 및 연구활동(공여국들의 기술협력활동에 대한 보고체계의 개선 등의 이유로)의 경우 건수는 늘어났으나 지원규모는 감소되었다. 농업연구의 경우 공여국들은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을 통하여 다자간 형식의 지원을 늘려오고 있다 (도표 A.3). CGIAR 를 통한 연구는 작물(쌀, 밀, 옥수수, 카사바, 감자) 및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공여국들은 이러한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A.2. DAC 회원국의 농업부문 세부분야별 양자간 원조, 1980-2001
(2001년 물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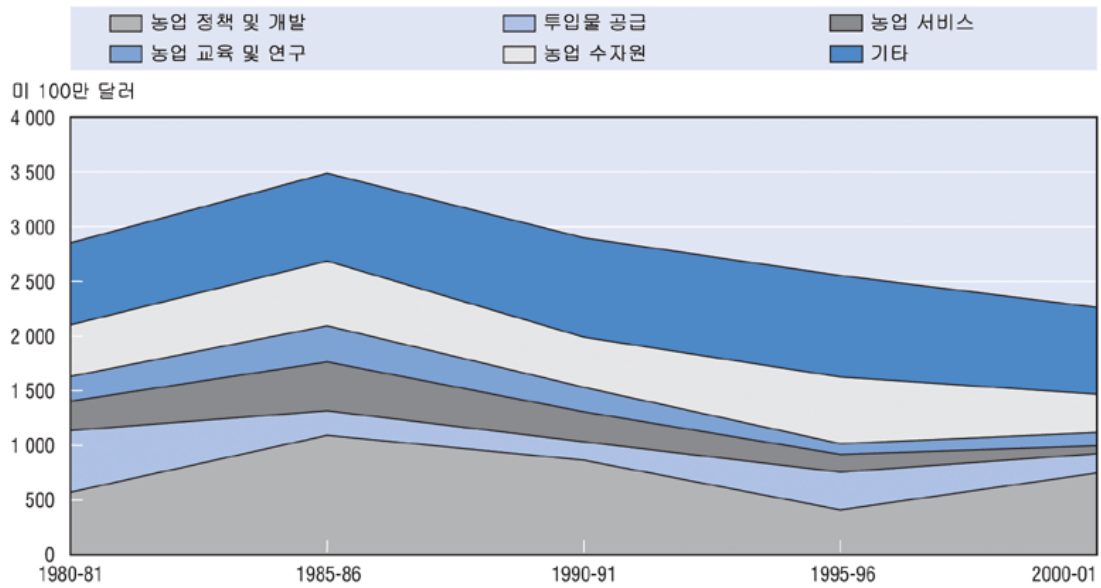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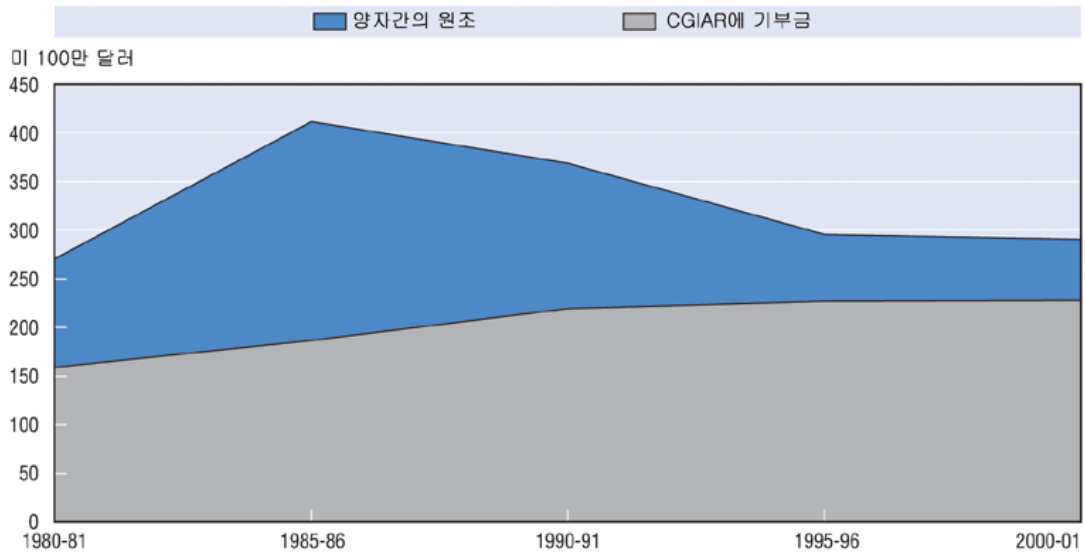


도표 A.3. 농업연구를 위한 DAC 회원국의 원조, 1980-2001
(2001년 물가기준)



농업용수에 대한 원조규모는 다른 공여국의 원조 감소분을 일본이 상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다자간 지원분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관개부문에 대한 원조는 1980년대 중반 이래 반감되었는데 이는 주로 이 부문에 대한 IDA 차관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2 년도 자료와 최근 추이

2002 년도의 원조흐름을 보면 농업에 대한 원조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3 억 달러에 이르는 농업부문에 대한 양자간 원조의 비율은 전체 원조의 5%에 불과하다. 다자간 원조의 경우 합계가 10 억 달러이나 이는 전체 원조의 6%수준이다. 표 A.1 의 2000-01 년과 비교해 보면 2002 년도에는 대다수의 공여국들이 농업원조를 감소시켰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아프리카 개발기금, 아시아 개발기금은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다소 늘렸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개발기금과 아시아 개발기금을 제외하곤 증가량이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제 3 장 MDGs 달성 진전현황¹

UN의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은 DAC가 1996년에 발간한 “21 세기를 만들며: 개발협력의 역할(Shaping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제시한 7 가지 국제개발목표(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재확인하고 있다. 본 장은 동 선언상의 양적인 개발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특히 MDGs의 성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에서는 DAC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관해 소개한다.

¹ 이 장의 처음 두 섹션(sections)의 대부분은 UN 사무총장이 UN 총회에 제출한 “UN 새천년 선언의 이행현황(Implementation of the UN Millennium Declaration)” 2003년도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음. http://millenniumindicators.un.org/unsd/mi/pdf/a_58_323e.pdf 참조 요망.

서 문

UN 새천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3 년이 지난 2003 년 현재, 동 정상회의가 천명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UN 에서 제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을 받치는 전례 없는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최근에 MDGs 는 UN 이외에 아프리카연합(AU), G8 등 다른 기구, 연합체에서도 수용됨으로써,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가 지향하는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접근법과 MDGs 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MDGs 의 등장으로 모든 개발협력 당사자들이 협력사업을 공통의 틀 속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 UN 은 다음의 세 가지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MDGs 캠페인으로서, MDGs 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전 지구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목표이다. 두 번째로는 MDGs 달성을 위한 개별국가의 발전상을 보고하는 절차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천년 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로서 이것은 다수의 정책입안자, 실무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서, MDGs 를 향한 발전을 어떻게 더욱 가속화 시키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할 것인가를 그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

몇몇 나라들이 MDGs 의 실천과 관련하여 빠른 발전상을 보임으로써, MDGs 가 대단히 야심찬 계획임에도 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3 년간 MDGs 의 핵심적인 주제들, 특히 HIV/AIDS 퇴치사업에 대하여 정치적 지원 및 예산상의 지원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전 세계의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특정한 범지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역의 국가들이 2015 년까지 MDGs 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Box 3.1 에 있는 8 개 목표와 18 개 세부목표 참조). 이 문제에 대하여, UN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현재 세계경제가 비교적 약화된 상황에서, 이들 개도국들에게 지원되는 정치, 경제적 지원규모는 MDGs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한 주요 약속들,

특히 개도국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등과 같은 부분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다가오는 목표시한까지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목표달성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발전 속도를 더욱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 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 MDGs 의 각 목표들마다 그 목표의 특정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분야는 지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UN 보고서의 부록은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그동안 거둔 성과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ox 3.2 참조).

Box. 3.1 새천년개발목표(MDGs)

새천년선언에 제시된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

- ☐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세부목표 1: 1990~2015 년간 1 일 소득 1 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세부목표 2: 1990~2015 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 ☐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부목표 3: 2015 년까지 전 세계의 남녀 어린이들이 똑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
- ☐ 목표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세부목표 4: 교육에서의 성별간 차이를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는 2005 년까지, 모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2015 년까지 제거.
- ☐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5: 1990~2015 년간 5 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감소.
- ☐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세부목표 6: 1990~2015 년간 출산시 산모사망률을 3/4 감소.
- ☐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세부목표 7: 2015 년까지 HIV/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세부목표 8: 2015 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저지 및 감소.

□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세부목표 9: 지속가능개발 원칙을 각 개별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 손실 보전.

세부목표 10: 2015 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세부목표 11: 2020 년까지 최소 1 억 명의 슬럼거주자들 생활여건의 상당한 개선.

□ 목표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세부목표 12: 이전보다 더욱 개방적이며,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시스템 발전. good governance, 개발 및 빈곤감소에 대한 국가적 및 국제적 공약 포함.

세부목표 13: 최빈국들의 특별한 수요 수용.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수량제한조치 면제, 중채무국가들(HIPC)에 대한 부채경감 및 양자간 국가채무 면제, 그리고 빈곤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개도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ODA 지원 등 포함.

세부목표 14: 내륙국과 군소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수요 수용. ‘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과 제 22 차 UN 특별총회의 결의사항을 통하여 추진.

세부목표 15: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세부목표 16: 개도국들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적정하고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발 및 시행.

세부목표 17: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 국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필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세부목표 18: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MDGs 와 세부목표는 2000 년 9 월 147 개국 정상을 포함한 189 개국이 서명한 새천년 선언에 수록되어 있음(www.un.org 참조). MDGs 와 세부목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MDGs 와 세부목표는 새천년 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 개별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파트너십을 나타냄.

MDGs 를 향한 진전 현황

목표 1 -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대부분의 MDGs 목표 달성을 향한 발전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빈곤층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1 일 1 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의 비율을 2015 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1 을 달성하려면 1 인당 연간소득이 최소한 3% 만큼은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성장률은 3%를 밑돌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새천년선언 채택 이후 이와 같은 경기침체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개도국들의 1 인당 경제성장률은 1990 년대에 평균 2.8%였던 것이, 2001 년-2003 년 기간에 들어서는 1.6%로 하락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겨우 0.7%,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거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고무적인 일은, 체제전환국가들이 1990 년대의 침체를 극복하고 9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안정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 차원에서 2015 년까지 현재의 극빈층의 규모를 반감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바로 중국과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빈곤퇴치 성과 때문이다. 중국은 1990 년대에 극빈층을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였고, 인도는 2015 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별국가차원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관련 자료 입수가 가능한 67 개국 가운데 37 개국에서 1990 년대에 빈곤계층의 비율이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이 예정된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직 아니다. 예를 들면, 카보베르데, 모리셔스, 모잠비크, 우간다 등 몇몇 사하라이남 지역 국가들은 1 인당 성장률 기준치인 3%를 훨씬 웃도는 경제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간, 그리고 국가간에 빈곤계층 감소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른 목표달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기아퇴치 목표를 살펴보면, 1990 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남부/중부 아시아 지역과 사하라이남 지역에서는 저체중(underweight) 아동이 전체 아동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식량과다생산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목표 2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초등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2015 년 달성목표에 비해 아직 7 년 정도 뒤쳐져 있다. 1990 년 이래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비율에 있어서 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지역에서는 교육이수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교육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건전한 정책과 국가의 자원을 함께 동원해 뒷받침할 경우 상당히 빨리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베냉의 경우 초등교육 등록률이, 그리고 말리의 경우 수료율이 각각 20% 이상 상승하였다. 말라위와 우간다는 1990 년대에, 케냐는 2003 년 들어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하라 남부 지역 국가들의 발전은 MDGs 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표 3.1.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진전 현황

2015년 목표들과 세부목표들	개발 대상 지역		목표달성과 현황의 차이 (연수)	가장 많은 진전이 필요한 지역		지표
	1990	2000		2000	2015 목표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두 개발도상국가임						
T1. 빈곤 반감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	29.6	23.2 ¹	+2	SSA	49.0 ¹	23.7
T2. 기아 반감	33	28	-2	SCA	47	26
T3. 보편적인 초등교육 제공	79.8	82.1 ²	-7	SSA	57.7 ²	100
T4. 양성평등 진작 (2005년 목표)	0.83	0.87 ²	-6	SCA	0.79 ²	1
T5. 아동 사망률 감소	102	90	-6	SSA	172	59
T6. 산모건강 향상	42	52	연관없음	SSA	920	230
T7. HIV/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n.a.	1.4 ³		SSA	8.5 ³	
T8. 말라리아 확산 저지 및 감소	n.a.	166		SSA	791	
T8. 결핵 확산 저지 및 감소	n.a.	31 ⁴		SEA	47	
T9. 삼림 보존	28.1	26.8		SEA	-11.3 ⁵	
T9. 에너지 효율 증진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	325	249		SSA	341	
T10. 안전한 식수에 지속적인 접근이	(도시)	92	-10	오세아니아	76	94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시골)	60	-4	오세아니아	40	66
T10.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도시)	70	-4	동부 아시아	70	78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시골)	21	-5	SCA	25	56
G8. 더 후한 원조 공급	(DAC)	0.33	0.23 ³			
G8.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집중	(DAC)	9 ⁶	15 ²			
G8. 더 많은 수입품의 면세 인정	(DAC)	54.8 ⁷	65.7 ⁴			
G8. 농업보조금 삭감	(DAC)	1.9	1.2 ³			
T15. 지속가능한 외채 해결 마련	(HIPC)	41 ⁸				
T16.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전략 개발	(전세계)	10.0 ⁹	10.4 ¹	MENA	26.2 ¹	
T17. 알맞은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 제공		53 ¹⁰	65 ¹	SCA	44 ¹	
T18. 신기술의 혜택 공유	2.4	20.8 ³		SSA	5.5 ³	

참고: UN의 지역그룹들: SSA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SCA - 중남 아시아; SEA - 동남 아시아; MENA -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1. 1999.

2. 2000-2001.

3. 2002.

4. 2001.

5. 1990-2000년사이 변화 (%)

6. 1996-97.

7. 1996.

8. 2003.

9. 1995.

10. 1987.

Box 3.2 PARIS21 - 모델링에서 성과측정에 이르기 까지

범지구적 그리고 지역 차원의 추정치로 MDGs 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게 되면 국별로 추정한 데이터의 빈약함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MDGs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상당수가 질적인 측면에서 신뢰하기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충분한 데이터는 국제기구들이 부적절한 모델을 사용해 추정하는 데이터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MDGs 달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통계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올바른 MDGs 진전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추정을 위한 모델링에서 실질적인 성과측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목표는 2010 년에 작성할 MDGs 달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보고서가 국별 진전현황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별로 작성된 실제 데이터에 의거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국가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PRSP 와 같은 국가개발전략계획을 통합한 국별 통계개발계획을 2006 년까지 모든 개도국에서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DAC 회원국과 다른 공여기관들과 함께 개도국의 불충분한 통계자료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PARIS21 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 PARIS21: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www.paris21.org 참조)

목표 3 -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 숫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1 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비율의 세계전체 평균치는 2005 년까지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세로부터 6 년 정도가 뒤쳐져 있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90 년대 동안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취업률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0% 상승했으나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의회에서 여성들의 의석점유율은 1990 년대에 11.9% 수준에서 거의 개선이 없다가 2003 년에 이르러서는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하면 13.5%로 소폭 증가하였다. MDGs 에 대한 양성평등 측면에서의 접근에 관해서는 Box 3.3 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Box 3.3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MDGs

“우리가 2015 년으로 잡은 목표시한까지 MDGs 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전 세계 여성에 대한 투자 없이 MDGs 달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UN 사무총장 코피아난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능력을 고양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도 학교에 갈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 여성의 문자해독률을 높이는 것.
- 공공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성대표의 참여를 높이는 것.
- 여성의 취업 전망을 향상하는 것.

진전사항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MDGs 목표 3 은 측정지표로 다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다. 1) 여성의 문자해독률, 2) 비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 3)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이 그것이다. 2)와 3)을 지표로 포함한 것은 여성이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이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목표 3 의 달성은 다른 MDGs 세부목표 달성에 좌우된다. 다른 목표 및 측정지표 중에서 성별 불평등 부분을 파악해서 시정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국별 MDG 보고서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일련의 MDG 보고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검토한 최근의 UNDP 보고서는 MDGs 중 양성평등을 일관성 있게 다루는 유일한 목표는 목표 3 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것도 대부분 교육지표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두 가지 측면의 지표에서는 양성평등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성보건 증진 측면의 목표 5 와 HIV/AIDS 측면의 목표 6 도 양성평등 측면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측면의 목표 7 과 개발협력 측면의 목표 8 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 상기 목표에서 양성평등이 충분하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며, 여성은 개발의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전통적 역할 또는 희생자로서의 전통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조치사항

개별 국가가 양성평등 측면에서 목표 3 의 측정지표와 다른 MDGs 세부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개도국들이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에 대한 대화의 여지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 옹호론자와 여성 단체들은 이러한 발표를 양성간 불평등문제를 부각시키고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확고한 정책공약을 요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UNDP 검토 보고서는 MDGs 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성별로 분리된 데이터와 정성적 정보를 MDGs 달성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시 중심과제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타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성평등 문제가 MDGs 보고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여성 단체 및 양성평등 전문가를 MDGs 달성 평가 논의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할 것.
- 신속한 참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빈곤 및 보건과 같은 주요 문제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할 것.
- 특정 국가에 익숙한 독립적인 양성평등 전문가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할 것.
- MDGs 보고서와 관련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가공하는데 참여하는 통계작성자가 양성평등 문제를 고려하도록 할 것.
- 공동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동 데이터를 국별 보고서 작성시 활용할 것.
- 보고서 작성시 개별 MDGs 목표의 양성평등 측면을 부각시킬 것.
- MDGs 보고에 참여하는 국별 자료작성 팀을 훈련함에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분석기법을 제공할 것.

· 이 Box 는 세계은행이 2003 년에 발간한 정보자료로 발간한 ‘ 양성평등 및 MDGs(Gender Equality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발췌한 것임. 동 자료는 UNDP, UNIFEM, UNFPA, 세계은행, OECD/DAC GENDERNET 의 공동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임. 또한 이 Box 는 UNDP 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National Reports: A look through a gender lens'에서도 발췌되었음.

목표 4 - 아동 사망률 감소

개도국에서 아동의 건강상태는 1990년대 이래로 광범위하게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에 11백만 명의 아동들이 5세가 채 되기도 전에 사망하고 있는데, 그 사망의 원인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부지역에서는 2015년까지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1/3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세아니아 지역과 중남부 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에서도 사망률 감소가 대단히 더딘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위 목표달성을 위한 추세로부터 6년 정도 뒤쳐져 있다. 선진국에서는 1세 유아들의 91%가 유아 사망의 주원인이 되는 홍역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시아지역에서는 예방접종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사실상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목표 5 - 모성 보건 증진

아직 개도국에서는 출산시 산모 사망률의 추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단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2015년까지 사망률을 1/4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지역별로 사망률의 격차가 크다.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할 확률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선진국의 175배, 아시아(동아시아는 제외)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20~60배 정도나 더 높다. 출산시 숙련된 조산원의 도움을 받는 산모의 비율은 중앙-남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체 산모 가운데 1/3,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5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목표 6 -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의 확산율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AIDS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며, 그보다는 덜하지만 카리브해 지역도 AIDS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 말라리아도 1970년대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해 왔는데, 이는 병원균이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커지고, 말라리아 모기도 살충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어 이들 두 요인으로 인해 말라리아 치료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 퇴치에 대한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태국에서는 1990년 이래 강력한 AIDS 예방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AIDS의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우간다 역시 1990년대에 8년 연속으로 AIDS 감염률이 하락했다. 아프리카에서 감염률이 하락한 것은 우간다가 처음이다. 잠비아 또한 우간다에 뒤이어 곧 AIDS 감염률이 위기수준으로부터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과 캄보디아 역시 AIDS 확산을 차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저렴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결핵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결핵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질병퇴치 노력은 범세계적 차원의 자원동원 노력을 통해 뒷받침 되고 있다. 이 활동은 HIV/AIDS 등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질병퇴치를 위한 노력 홍보(advocacy)와 정치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공약함과 아울러서 동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을 국제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Global Fund to Fight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이전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많은 재정지원 약속이 필요하다. 관련 민간재단에서도 이들 전염병에 대한 연구, 치료,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일부 제약업체들은 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국민들에게 새로 개발된 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가속화시킴으로써 2015년까지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AIDS의 확산율과 말라리아, 결핵의 발병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7 -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환경보전 과제는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 가스는 1995 년 이래 전세계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감소분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이루어 졌는데 개도국에서도 또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사용량이 줄었다. 반면에, 다른 영역에서의 성과는 그다지 고무적이지 못하다. 예컨대, 인구증가, 도시화, 개간사업, 마호가니 등의 경목(hardwood)에 대한 높은 수요 때문에 초래된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삼림지역의 감소이다. 개도국에서는 육지면적 대비 삼림지역의 비율이 1990 년의 28.1%에서 2000 년에 26.8%로 줄어들었다. 2002 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보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전세계의 관심을 새롭게 모으는 한편 지속적인 환경보전 문제를 빈곤감소 주제와 보다 분명하게 연계시켰다.

안전한 생활용수와 위생

앞서 언급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서는 상기 주제 이외에, 위생과 관련하여 달성할 목표를 한 가지 설정하였다. 즉, 2015 년까지 기본적인 위생 수준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자는 것인데, 이 목표는 현재는 MDGs 의 세부목표 10 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90 년대에 이 세부목표 달성과정에서 개선된 수준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속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도국 농촌지역 주민들의 35%만이, 그리고 중남부 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1/4 만이 기본적인 위생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용수의 사용과 관련한 개선 성과 또한 느리다. 2000 년 현재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안전한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의 1/3 수준이며, 도시 거주자에게 보급되는 안전한 생활용수는 92% 수준에서 몇 년째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수준으로 달성하려면 2015 년까지 매일 254,000 명 규모의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목표 8 -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MDGs 목표 8 은 개발원조, 무역, 부채탕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일관성의 문제와 개별국가 및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의 good governance, 개발, 그리고 빈곤감소와 관련한 상호책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UN 사무총장의 관련 보고서는, “ MDGs 달성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바로 이 목표 8 과 관련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행한 공약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UN 사무총장 보고서는 더 나아가 OECD 가 이 목표 8 의 달성과 관련하여, MDGs 의 나머지 7 개 목표 달성 시한으로 2015 년을 설정한 것처럼 OECD 차원의 목표시한 설정에 대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여성문제는 목표 8 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 목표에 성평등 문제(gender equity)를 도입할 여지는 많다. 그 중 하나는 각 국가의 빈곤감소정책이 여성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ODA 증가, 부채탕감, 공정성이 향상된 국제무역질서로부터 유입되는 민간재원 흐름 등 여러 가지 개발재원 증대로부터 여성이 남성들만큼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시장개방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양성평등 관련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평등 문제와 무역 관련 주제들을 계속 다루기 위하여, UNCTAD 산하에 ‘ 성평등과 무역에 관한 제 기관간 태스크포스(an Inter-Agency Task Force on Gender and Trade)’ 가 최근 발족되었다. 동 태스크포스는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역량배양, 관련문제 지지 등의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 창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인데, 섹터별로 노동력의 남녀 비율이 얼마인지, 각 섹터 내에서 남녀간 책임분담의 양태는 어떤지, 그리고 국제무역제도의 개편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각기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한 실증 및 분석 자료가 극히 부족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 소망스러운 일은, WTO 의 무역정책검토 메커니즘(Trade Policies and Review Mechanism)이 국별 무역정책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함께 검토해주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무역규모 확대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 간 균형상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하여 추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 연구이다.

도하개발회의(Doha Development Round)는 개도국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WTO 무역협상의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목표 8 의 실현을 위한 고무적인 첫 단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²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개도국들이 이런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로부터 동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또한 고무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개도국들이 동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표 3.1 에서 보듯이, 저렴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은 1987 년 53%에서 199 년 65%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남부와 중부 아시아 지역 거주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구가 의약품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무산되면서 목표 8 의 달성을 향한 지금까지의 진전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각료회의를 조속히 다시 개최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세계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다함께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게 되면, 개도국에 3500 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³ 도하개발회의의 성패에 거액의 돈이 걸린 셈이다. UN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다수의 개도국측 수출품에 대해 유지하는 높은 수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아예 철폐함과 아울러, 연간 3000 억 달러에 이르는 농업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여 개도국 농민들이 국내시장이건 세계시장에서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개도국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현저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² 역주.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제품과 제법 혹은 제형을 달리한 제품을 말함.

³ 세계은행 직원의 자체 추정. Global Economic Prospect 2004 참조 요망.

부채탕감 분야에서는 지난 몇 년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26 개 국가들이 보다 개선된 중채무빈국(enhanced HIPC) 이니셔티브 하에서 설정된 정책결정시점(decision point)에 도달하였으며, 부채탕감 이슈를 빈곤감소 정책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 8 개국만이 2003 년 중반까지 완료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했는데, 이는 목표치인 19 개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우간다의 경우, 부채탕감으로 발생한 재원이 초등교육 기회 확대에 이어져 MDGs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부채탕감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더욱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들어 1 차 상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특정한 경우에는 부채의 완전탕감을 통해 수출대비 채무비율을 150%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2002 년 3 월 UN 개발재원회의에서 채택된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UN 새천년선언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컨센서스는 상호책임성이라는 새로운 개발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개도국은 자신의 개발문제에 대해 스스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선진국들의 개도국 개발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Box 3.4 에 나와 있는 UNDP 가 제안한 새천년개발협약을 참조할 것.)

**Box 3.4 새천년개발협약(MDC: Millennium Development Compact) -
최빈국들을 위한 행동계획**

아래 내용은 2003 년도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 개관(overview)에서 발췌한 것임.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범세계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즉시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들 개도국들이 MDGs 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떤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보건, 교육,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시장접근 등과 같은 중요 영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 빈곤함정(poverty trap)’ 에 빠질 수 있다.

2003 년 HDR 보고서는 MDGs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국가 59 개국을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 최우선 관심대상국(top priority and high priority countries)” 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의 대다수는 위의 기본적 수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으로는 국제시장 진입의 어려움, 높은 채무, 국가 규모나 지리적 위치 측면에서의 불리함, 척박한 토양, 기후상의 충격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 위치로 인한 불리함은 극복될 수 있다. 즉, 도로와 통신 인프라의 개선 및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시장접근 방법은 확대될 수 있다. 질병 예방과 치료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도 있다.

특정 국가를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애요인들은 국가 내부의 특정한 대규모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내륙지방은 연안지역에 비해 항구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사회간접자본과 생활환경 또한 훨씬 열악하다. 국내의 빈곤도가 높은 지역의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국가가 자원을 이들 지역으로 재배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보다는 분배상 형평성 제고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빈곤퇴치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허물어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해 동시에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한층 강력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6 개 정책은 빈곤국들이 빈곤함정을 탈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양성평등을 고려한 기초교육과 보건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실시.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임. 성장은 다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빈곤으로 고통 받는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영세농가의 농업생산성 증대.
- 항만, 도로, 전력, 통신 등 기초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리적 위치로 인한 장벽 극복.
- 적절한 산업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기초 필수품 수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다변화.
-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통해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
- 환경을 보전하고 적절한 도시계획을 통해 개발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

이상 6 개 정책이 제시된 배경으로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먼저 또는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기술과 숙련도의 미숙으로 인해 노동력을 보다 고차원의 산업부문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 1 차 상품 위주의 수출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우선 관심대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이들 국가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들이다. 최빈국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들 국가들은 높은 구조적 장벽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최빈국들이 적정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외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빈곤국의 개발을 위해 외부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국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빈곤국 스스로도 국내재원의 동원,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부패 척결,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등과 같은 필수 조치들을 취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야심찬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MDGs 를 달성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새천년개발협약(MDC)은 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정부가 현재의 한정된 자원으로 개발속도를 결정하기보다는 M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개발원칙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 특히 최우선관심대상국들은, MDGs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 대상으로는 국내 재정재원 동원 능력,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 재분배 가능성, 민간부문 재원 및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 조치 도입 가능성 등과 같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도 현재 필요한 자원과 가용자원의 규모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게 될 것인 바, 이러한 차이 또한 빈국 정부가 찾아내야 한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부국들의 추가적인 재정적,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보다 광범위한 부채 탕감, 보다 용이한 시장접근 지원, 그리고 기술이전의 확대 등이 해당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에 관하여 수많은 공약을 해 왔으나, 그 대부분은 언제까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수치상의 목표설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도국들이 MDGs 과제 1 부터 과제 7 까지를 2015 년까지 달성해야 한다면, 선진국들은 2015 년 이전에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진전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발전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2003 년 HDR 보고서는 부국들이 취해야 할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ODA 를 개도국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개발재원 만큼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대시킴. (최소한 약 500 억 달러 정도로 추정됨)
-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마련함.
- 개도국이 수출하는 농산물, 섬유류, 그리고 의류에 대한 관세와 수량할당 조치를 철폐함
- 선진국이 자국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함.
- 중채무국 지원을 위해, 1 차 상품 가격하락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융기관 설립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함.
- 중채무국(HIPC)에 대한 추가적 부채탕감을 통해 채무국이 지속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WTO 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약(TRIPs)상에 규정된 전통지식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상을 제공함.
-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이 TRIPs 협약하에서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국민들이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 정부가 내건 공약과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공약 이행 진척 사항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범지구적인 빈곤 감소전략에 기여하며, 자신들이 취할 조치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공약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최우선적인 원동력은 여전히 개도국 국내의 자원이다.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정부는 자국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그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개도국들이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과 관련된 자신들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전 멕시코 대통령이 주도한 개발재원조달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이 결론내린 바와 같이, 개도국이 건전한 정책을 채택하고 자국내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지라도, 이들이 MDGs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 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 여 년간 감소일로에 있던 ODA 규모는 UN 개발재원회의 이후 2002 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3.2 는 DAC 회원국들의 최근 공약이 이행될 경우 ODA 는 오는 2006 년까지 190 억 달러가 추가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 준다. 이는 2002 년도 ODA 보다 32%가 증가한 것이지만 공여국들의 ODA/GNI 비율은 여전히 0.29%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공약을 실천하는 일은 최근 많은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공약들이 실천된다 하더라도, ODA 는 여전히 현재 필요한 500 억 달러에는 250 억 달러나 부족하다. 이 500 억 달러라는 액수는 MDGs 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자국내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라면 어떤 국가라도 그 개발노력이 국제공동체에서의 원조자금 부족이라는 사유로 실패하지 않을 만큼의 액수이다.

표 3.2. DAC회원국가들의 2006년도 ODA 전망: 최신 예측

	2002년도 순 ODA (백만 USD)	2002년도 ODA/GNI (%)	약속 / 발표 / 추정	목표연도	2006년도 순 ODA (2002년도 백만 USD)	2006년도 ODA/GNI (%)	2002년도 대비 2006년 실제 ODA 변화 (2002년도 가격 및 환율) ¹⁾	
							(백만 USD)	퍼센트
오스트리아	520	0.26	0.33	2006	728	0.33	208	40
벨기에	1 072	0.43	0.7% (2006년도까지 0.46%)	2010	1 234	0.46	162	15
덴마크	1 643	0.96	> 0.7%	n.a.	1 531	0.83	-112	-7
핀란드	462	0.35	0.44%	2007	598	0.42	136	29
프랑스 ²	5 486	0.38	0.5% (2012년도까지 0.7%)	2007	7 378	0.47	1 892	34
독일	5 324	0.27	0.33%	2006	7 099	0.33	1 775	33
그리스	276	0.21	0.33%	2006	515	0.33	239	86
아일랜드 ²	398	0.40	0.7%	2007	671	0.63	273	69
이탈리	2 332	0.20	0.33%	2006	4 195	0.33	1 863	80
룩셈버그	147	0.77	1%	2005	206	1.00	60	41
네덜란드	3 338	0.81	0.8%	달성	3 566	0.80	228	7
포르투갈	323	0.27	0.33%	2006	424	0.33	102	31
스페인	1 712	0.26	0.33%	2006	2 328	0.33	616	36
스웨덴	1 991	0.83	장기 목표 1% (2006년도까지 최소한 0.87%)	2 247	0.87	256	13	
영국	4 924	0.31	0.4%	2005-06	6 906	0.40	1 982	40
유럽연합, 합계	29 949	0.35	0.39%	2006	39 627	0.42	9 679	32
호주 ³	989	0.26	0.26%	2003-4년에	1 089	0.26	100	10
캐나다	2 006	0.28	연간 8% 인상	2010년까지	2 730	0.34	723	36
일본	9 283	0.23	1998-2002년 평균치 (105억 US\$)	2006년에	10 500	0.26	1 217	13
뉴질랜드	122	0.22	미래 목표 검토중		154	0.26	32	27
노르웨이	1 696	0.89	1%	2005	2 067	1.00	370	22
스위스 ²	939	0.32	0.4%	2010	1 143	0.36	204	22
미국 ⁴	13 290	0.13	각주 4 참조		19 539	0.17	6 249	47
DAC 멤버, 합계	58 274	0.23			76 849	0.29	18 575	32

1. 2002-2006간 실질성장을 연간2%로 가정 (캐나다 3%, 그리스 4%, 일본 0%)

2. 2006년 ODA/GNI 비율은 2002년과 목표연도 사이에 삽입된 것임

3. 2003/04년 ODA/GNI 추정치는 0.26%. 원조규모는 연도별 예산 수립시 결정되므로, 앞으로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가정

4. 2006년에는 MCA 계정으로부터의 추가 50억불, 'AIDS 구호 긴급계획' 으로부터 20억불, 아프간-이라크 재건 지원액의 단계적 집행. 2006년도 원조액을 2002년 가격으로 디플레이트 하기 위해 연간 2%의 인플레이션을 적용

목표 8 은 또한 청년 고용문제와 신기술 확산 문제도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5 년부터 1999 년 사이에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동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2 년도 개도국지역 전화기 보급률은 100 명당 20.8 대인데, 이는 1990 년 2.4 대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부 및 중부 아시아 지역의 보급률은 각각 100 명당 5.5 대와 5.8 대로 전체개도국 보급률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접근비율은 매우 낮는데, 개도국의 경우 컴퓨터 보급비율이 100 명당 3.2 대인데 비해, 선진국 지역의 경우 36.4 대에 이른다. 이와 같은 “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현상은 2003 년 12 월 세계정상회의 주제 중에 하나였으며, DAC 는 2003 년 3 월 관련회의를 통해 세계정상회의의 정보화 격차 문제 논의에 기여한 바 있다.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빈곤을 퇴치할 자원,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빈곤퇴치를 새천년선언이 채택된 2000 년을 기점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고 생을 마감할 정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낼 수 있다. MDGs 를 달성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MDGs 는 전 세계 빈곤층들의 최선의 희망이다. MDGs 달성은 2015 년까지 남은 12 년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21 세기 초의 3 년간(2000-2003) 생성되었던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가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원조효과성 제고

2002.3 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 개발재원회의에서 채택된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 회의에서는

개도국은 투명성 제고, good governance, 인권존중, 법치증진 등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공여국들은 정책일관성, 원조규모 증대, 성과가 좋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개도국의 개발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공여국은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한편, 다음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MDGs 달성을 위한 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 공여국은 개도국 원조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1) 빈곤감소전략, 그리고 (2)개도국들이 주도하는 개발 프레임웍(framework)과 시스템에 보조를 맞춤.
- 공여국들의 원조실행절차를 상호 조화시켜서 수원국이 치러야 하는 거래비용을 줄임.
- 수원국들의 물자조달과 관련한 주인의식을 높임.
- 언타이드 원조에 관한 OECD/DAC 권고안 실행을 지원.
- 빈곤층에 보다 초점을 둔 ODA, 원조조정 및 원조성과 측정 향상.

위의 5 개 조치를 지지하면서, DAC 는 2003 년 ‘ 원조효과성 및 공여국 관행 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Donor Practices, WP-EFF)’ 을 설립하였다. 원조효과성과 공여국 관행이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WP-EFF 는 기 합의된 원조정책 및 모범관행 실행을 촉진시키는 일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발전상을 평가하는 일 등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WP-EFF 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원국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DAC 상주 옵저버(세계은행, IMF, UNDP) 이외에 지역 개발은행들 및 SPA(Strategic Partnership with Africa) 등과 협력하고 있다.

Box 3.5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ODA 관련 2001 년 DAC 권고안에 대한 진전사항

상기 DAC 권고안은 2002.1.1 일에 발효하였다. 권고안의 실행은 다음의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몇 가지 영역에서 추가적인 노력과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적용범위 관련 조항들의 이행(Implementation of coverage provisions): 대체로 모든 DAC 회원국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ODA 항목에 대하여 언타이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몇몇 국가들의 원조집행기관간에는 더 많은 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하다.
- 언타이드원조 제공의 사전 통지(Ex ante notification of untied aid offers)⁴: 이 부문은 시작은 느렸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완전히 준수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다수 공여국들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 노력분담(effort-sharing): 준거지표매트릭스(Reference Indicators Matrix, RIM) 작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와 보고 등에 관한 이슈들이 해결되었으며, RIM 에서 회원국들의 “ 초기 출발점(initial starting positions)” 이 확립되었다. 다음 단계는 RIM 을 이용하여 권고안의 노력분담 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 투자관련 기술원조(Investment-related technical assistance, IRTA)와 식량원조: 권고안의 모니터링과 평가 관련 조항이 요구하는 바대로, IRTA 와 식량원조 두 영역 모두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관련 정책이 확립되었다. IRTA 에 관해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협약 당사국들에 의한 후속 자본투자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관한 합의는 DAC 회원국들에게 운영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식량원조에 관해서는, 원조효과성과 공여국 원조관행 작업반(WP-EFF)이 식량원조 관련 개발사업의 질적수준과 식량원조의 조건이 갖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 조달(procurement): 지난 2003.1 월 DAC/세계은행 조달 원탁회의(DAC/World Bank Procurement Roundtable)를 통해 조달과 관련한 수원국의 책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동 회의는 조달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핵심주제들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조달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4 년에 열릴 동 원탁회의를 위해 마련 중에 있다.

⁴ 역주. DAC 권고는 회원국들에게 untied 원조와 관련하여 입찰개시 30 일 전에 원조국, 수혜국, 사업, 입찰방식 등 원조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지토록 하고 있음.

DAC 은 2001 년 DAC 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권고안 적용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원조조화와 일치

2003.2.24-25 일간 개최된 ‘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 고위급포럼(Rome 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 에서 양자 및 다자 원조기관들은 자신들의 원조정책 및 관행을 단순화하는 한편, 수원국의 개발 체제와 조화되도록 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Box 3.6 참조)’ 에 반영된 원조기관들의 공약은 OECD 에서 발간한 ‘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공여국 관행의 조화(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⁵ 라는 보고서에 실린 ‘ DAC 모범관행 보고서(Good Practice Papers)’ 의 실행을 보다 의미있게 해 주고 있다. 2003 년 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서 승인된 모범관행들은 DAC 원조관행 특별작업반(Task Force on Donor Practices)에서 2 년 넘게 함께 일한 양자간 원조공여국, 다자기구, 그리고 수원국들 간에 이루어진 컨센서스, 광범위한 논의, 그리고 상호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 로마 고위급포럼’ 을 계기로 DAC 회원국들은 원조조화에 관한 원칙적인 논의에서 원조조화의 실천 및 이와 관련한 제도의 변화로 관심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DAC 회원국들이 원조조화의 실제 실천과 제도 변화에 중점을 두는 일은 DAC 의 ‘ 원조효과성 및 공여국 관행 작업반(WP-EFF)’ 의 핵심 임무이다. 동 작업반은 작업반 산하기구인 ‘ 원조관행 조화 특별작업팀(Task Team on Harmonisation and Alignment of Donor Practices)’ 을 통하여, 공여국들의 로마선언 이행노력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특별작업팀의 참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개발원조의 준비, 집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반되는 요구조건 및 절차들이 너무 많고

⁵ Development Cooperation 2002 년 연보 제 3 장 참조 요망.

다양하여, 그 과정에서 수원국에게 비생산적인 거래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가뜩이나 부족한 수원국의 역량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 특별작업팀의 참여자들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로마선언의 이행을 촉진한다. 둘째, 보다 효과적인 원조집행과 관련하여 얼마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셋째, 동료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더욱 발전시킨다.

로마선언 이행의 촉진(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Rome Declaration):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조조화 및 일치와 관련하여 확실한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보격차를 제거하고, 각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서로 시간적으로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줄이는 한편,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기술지원 및 사후점검 조치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원조관행 조화 특별작업팀’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는 범세계적인 인터넷망에 기초한 정보공유 시설을 통해 정보와 경험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개별국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동 특별작업팀은 또한 원조조화를 논의하는 주요 기관들이 새로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원국 및 공여기관의 본부 및 현지사무소 등 개발원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 개발은행들은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원조조화 관련 워크숍을 후원함으로써, 이상의 정보와 경험의 확산 및 역량배양 전략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원조집행과 관련한 진전사항 추적(Track progress on more effective aid delivery): Monterrey 컨센서스와 관련하여 원조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전사항을 보여주는 것은 개발원조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원조관행 조화 특별작업팀’은 광범위한 원조효과 달성 실적평가를 통해 로마선언과 DAC의 모범원조관행 보고서 적용실태에 관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결론과 권고안은 2004. 12월에 열릴 DAC 중견관리자회의(Senior Level Meeting, SLM) 및 2005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원조조화에 관한 고위급포럼(The Second High

Level Forum)에 제출될 것이다. 이와 관련, 각 공여국들은 원조조화와 일치에 대한 진전 상황을 계측하기 위한 일련의 간략한 계량적 지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동 지표를 위한 자료는 ‘원조관행 조화 특별작업팀’에 참여하고 있는 수원국들에서 먼저 수집될 것이다.

동료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존의 메커니즘 발전(*Enhance existing mechanisms for maintaining peer pressure*): 몇몇 수원국에서 ‘공동 국가 및 학습평가(Joint Country and Learning Assessment)’라는 특별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 평가는 어떤 특정 수원국의 원조에 관여하는 모든 공여주체들의 원조조화 및 일치와 관련한 동태적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공동평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수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조조화 프로세스를 보다 더 촉진시킨다. 둘째,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가 함께 원조조화 관련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원조조화 작업의 목표를 확대시킨다. 셋째, 원조조화의 진전 상황에 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와 아울러, 2004 년에 있을 DAC 동료평가는 원조조화 문제에 보다 더 중점을 둘 예정이다.

Box. 3.6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 (2003.2.25)

28 개 수원국과 40 개가 넘는 다자·양자 개발기구를 대표하는 각료, 원조기관장 및 고위인사들인 우리는 본 선언문을 승인하였다.

2003.2.24-25 일간 이탈리아 로마에 모인 우리들 다자·양자간 국제개발기구의 수장, 그리고 IMF 와 기타 다자간 국제금융기구, 수원국 대표들은 우리 모두가 포괄적이고도 공정한 세계경제체제로 나아감에 있어서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며, 지속가능개발을 장려한다는 우리들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번 포럼에서 다루어진 논의들은 우리 각 기구들이 개발원조정책, 원조지원 절차, 그리고 원조관행 등을 수원국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개발원조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동 논의는 몬테레이 컨센서스(2002.3 월 UN 국제개발재원회의 보고서 43 번째 문단)에 반영되어 있는 원조조화라는 이슈에 대한 국제원조사회의 합의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2003.1 월 킹스턴, 하노이, 그리고 아디스아바바 등지에서 금번 로마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지역 워크숍을 후원하고 지원해 준 자메이카, 베트남, 이디오피아 정부, 그리고 양자간 개발원조 공여국들과 다자간 국제기구에 감사를 표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마련된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핵심원칙과 교훈, 그리고 메시지는 로마 포럼에 대단히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개발원조의 효과성 향상(Improvement in development effectiveness)

우리 국제원조사회의 일원들은 개발원조를 마련하고 실행하며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공여국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절차가 국가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대단히 다양하며, 그러한 다양한 제반사항들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수원국들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 가뜩이나 제한적인 이들 수원국들의 발전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해 왔다. 우리들은 또한 공여국들의 원조관행이, 수원국의 국가개발상 우선순위, 예산, 개발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주기, 그리고 재정지출과 금융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과 항상 잘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수원국들의 염려 또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공여국 원조관행의 다양성으로 인해 수원국의 부담이

늘고, 원조관행이 수원국의 필요에 적절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이고 조화로우면서도 지속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수원국들이 개발원조의 조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수원국들이 그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 수원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채택하고 모범적인 관행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원국의 개혁에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 정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프로젝트, 분야별 원조, 예산 또는 국제수지 균형 지원과 같은 다양한 원조의 유형(modalities)을 인식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원국 중심의 접근법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모범관행 표준 또는 원칙 (Good practice standards or principles)

우리는 역사적 기원, 임무,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서로 다른 과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원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화하고 조화함으로써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원국에게 초래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관리감독 및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구체적인 개발결과를 달성하는데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OECD/DAC 특별작업반 및 다자개발은행(MDBs)의 실무그룹이 마련한 모범관행문서를 승인하는 한편, UNDG 총괄하에 진행 중인 UN 원조관행 조화 작업이 내년(2004 년)중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기존의 모범원조관행을 기꺼이 따르겠지만, 새로운 모범관행을 찾아내고 확산시키는 노력 또한 지속할 것이다.

조치사항 (Going forward)

우리는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에게 있어서,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달성하는 발전이 우리들의 노력이 성공했는지를 가늠하는 확고하고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우리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원조조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러한 발전이 더욱 용이해 지고 촉진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OECD/DAC 특별작업반 및 MDBs 실무그룹의 연구 성과와 최근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조조화 관련 이니셔티브 등 개별국가들이 쌓아온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의 행동강령을 따름으로써 원조조화를 증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 개발원조는 빈곤감소전략 등과 같은 수원국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며, 원조조화 노력은 개별국가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원조조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별 국제기구와 원조국가들의 개발원조 정책, 절차, 관행 등을 재검토. 아울러, 공여국 조사단의 수원국 방문, 검토 및 보고 횟수를 줄이는 한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합리화하고 문서작성 방식의 단순화 및 조화 추진.
-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역차원에서 열렸던 워크숍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특정국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모범관행 기준 및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 아울러, 모범관행을 원조기관 본부 및 해외사무소, 그리고 원조국내 여타 개발원조 파트너들에게 전파.
- 개별 수원국에서의 공여국간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 노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별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여기관 해외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재량권 확대.
- 원조효과 제고 측면에서 원조조화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원조기관 간부들과 실무진들이 더 깊이 인식하도록 해 주는 유인(incentives) 개발.
- 국별분석 작업을 지원하되, 수원국 정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결과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갖도록 함. 특히, 수원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별분석 작업의 정책 적합성, 질적 수준, 집행, 효율성 등을 제고.
-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이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이던 간에 수원국 주도로 공여국 원조 절차와 관행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것이 원조 관행의 주류가 되도록 함. 여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협력이 포함됨.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로는 이디오피아, 자메이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캄보디아, 온두라스, 케냐, 키르키즈, 모로코, 니제르, 니카라과, 퍼시픽 아일랜드, 필리핀, 세네갈, 그리고 잠비아 등을 들 수 있음.
- 공여국 원조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한 정책 및 관리감독 기능이 마련되어 있을 시에는, 예산지원, 분야별 지원, 그리고 국제수지보전 지원 등을 제공. 모범원조 관행 및 기준이 이상의 각종 원조 제공에 적용되어야 함.
- 범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에 원조조화 접근방법 활용.

우리는 원조조화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산물을 얻을 수 있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원조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증대되었다는 것이며, 각자의 개발원조 정책, 절차 및

관행을 마련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개발원조 정책이 수원국과 원조기관들의 기존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탐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여국들의 지원이 MDGs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OECD/DAC 모범관행 보고서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원조조화의 진전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이 원조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원조조화와 관련한 실무진들의 시청각회의, Development Gateway, Country Analytic Work Website, 그리고 전자정부, 전자정부조달, 그리고 전자재정관리와 같은 작업 등을 통해 이미 접한 바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높일 것을 공약한다.

그 다음 단계 (Next Steps)

우리는 수원국들이 원조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동 행동계획을 공여국과 합의할 것을 장려한다. 동 행동계획은 OECD/DAC 특별작업반과 MDBs 실무진이 내놓은 제안을 참고로 하여 개발원조를 조화시키는 명료하고도 모니터링 가능한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양자 및 다자 원조기관들은 개별국가의 원조조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조기관과 수원국들은 자체 평가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모범관행 적용과 관련한 진전 상황과 그러한 모범관행이 개발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가능할 때마다 우리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앞서 언급된 원조조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 행동계획을 일반대중들이 모두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원조조화에 관한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동료압력(peer pressure)이라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수원국의 참여도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의 측면에서, 우리는 원조조화 문제를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제시한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의 틀을 통한 연례 공동 원조효과 검토 실시와

같은 원조효과에 대한 지역 수준의 제안을 환영한다.

지난 이틀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체험을 반영하여, 우리는 2004 년으로 예정된 OECD/DAC 검토회의에 이어, 2005 년초 원조효과에 대한 실적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후속조치는 원조집행을 개선시킬 근본적인 변화의 발전상을 평가하는 한편, Monterrey 컨센서스의 실천 상황 검토에도 기여할 것이다. 동 컨센서스 실천 상황 검토 시점 및 실행방식은 오는 2005 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정 관리

공여국의 원조관행이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와 경제체제에 항상 잘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수원국의 예산, 수원국의 개발프로그램/프로젝트 계획 주기, 공공지출, 금융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상호공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 DAC 산하 작업반인 WP-EFF 는 최근 공공재정관리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on Public Financial Mangement)를 설립하고, 세계은행이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동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동 조직의 목적은 외부지원자금에 대한 회계관리 등 공공재정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수원국측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조인트벤처 참여자들은 다음 5 개 사항 즉, i) 공공재정관리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형성, ii) 원조흐름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 iii)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조흐름을 수원국 예산에 통합시키는 작업의 개선, iv) 공공재정 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지원과 빈곤감소 전략의 일치, v)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과 협력하여 대외원조와 관련한 회계표준안 마련 등과 같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인트벤처를 통해 얻어진 성과들은 2004 년 DAC 중견관리자회의(SLM)와 2005 년 제 2 차 원조조화에 관한 고위급포럼(HLF)에 보고될 것이다.

개도국의 조달능력 강화

원조 관련 조달에 대한 수원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원국 현지 및 역내 지역에서의 조달을 증진시키는 것은 ‘언타이드 원조에 관한 2001 년 DAC 권고안’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와 관련, 다자개발은행들(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은 자신들의 조달 가이드라인과 표준 조달문서를 조화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세계은행은 국별 정부조달 평가 검토(Country Procurement Assessment Reviews)를 통해 수원국의 정부조달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원국 정부조달 능력 강화노력에 호응하여, DAC 와 세계은행은 공여국들이 자신들의 조달 절차를 수원국의 절차와 조화시킬 수 있도록 개도국의 정부조달 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작업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조달 절차는 공여국이 제시하는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투명성 및 원조효과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동 프로그램은 수원국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진정한 파트너십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탁회의 방식을 채택했다.

주류화(Mainstreaming): 조달 시스템이 양호하게 작용하면 무역자유화, 기업 및 시장의 성장, 부패해소와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적인 원조 및 빈곤감소와 같은 핵심적인 개발목표 달성에 현저히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달 문제가 정부의 재정관리 및 거버넌스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류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조달 문제는 기타 예산편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의 모든 측면, 즉 기획 및 프로그램 수립, 통제, 모니터링, 보고, 그리고 감사 등의 측면과 연계되어야 한다. 모범조달관행을 통해 얻어진 개발관련 이익과 비용절감치를 더욱 엄밀하게 추산함으로써, 동 원탁회의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의 개혁이 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하고도 남는다는 점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조달 문제를 단순히 사무적인

거래기능이 아니라 전략적 원조관리 기능으로 자리매김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되며 공여자 주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도 안 된다. 국별조달평가검토(Country Procurement Assessment Reviews)를 바탕으로, 원탁회의는 중점들 이니셔티브를 식별하는 한편 역량배양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상기 이니셔티브에는 위험이 큰 분야, 지출규모가 큰 정부부처, 단기 이익이 있는 영역 등을 들 수 있다.

벤치마크와 표준(Benchmarks and standards): 모범 정부조달 시스템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공통적인 기반이 존재한다. 그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책임성, 투명성, 투자가치, 효율성 등이 있다. 원탁회의에서는 일련의 기준과 표준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수원국 정부조달 시스템의 기준 준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관한 제안도 함께 제공할 것인데, 여기에는 필요한 관련제도 및 인센티브를 확립하는데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모니터링과 평가체제(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매일 매일 조달 현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정부조달 시스템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신생개도국이나 개혁을 추진 중인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수원국 정부가 조달성과에 대한 평가역량을 갖추게 되면 개혁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며, 부수적으로는 공여국들이 수원국 정부의 조달 시스템 활용을 증대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수원국의 조달 관련 역량구비 사실을 증빙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DAC 와 세계은행의 공동 작업프로그램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필요한 평가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우간다와 가나 두 나라가 동 평가시스템의 시범 실시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개발 결과의 관리

개발결과의 관리는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MDGs 는 개도국들이 빈곤감소 전략 이행에 있어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이 MDGs 를 개발목표로 채택하면 정책우선순위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과제 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산출물, 결과 및 파급효과에 초점을 둔 관리전략 차원의 개발결과의 관리를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발결과 측정에 있어서 공여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여국들은 이 시점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나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OECD 회원국 정부가 개발결과 관리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개도국, 공여기관, 다자개발은행(MDBs) 및 UN 기관 등이 개발결과 관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발결과 관리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제도가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은 개발결과 관리 문제를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인 동시에 제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DAC 의 WP-EFF 는 개발결과 관리를 위한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를 설립함으로써 원조효과 증대 및 개발결과 관리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원조기관들이 새로이 부각되는 원조관행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동 조인트벤처는 2002.6 월 열린 개발결과의 측정, 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워싱턴 원탁회의(Washington Roundtable on Measuring, Managing and Monitoring for Results), 2002 년 개최된 DAC 개발 파트너십 포럼(DAC Development Partnership Forum), DAC 개발성과평가 네트워크(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에서 마련한 최신의 조사 자료, DAC 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동 조인트벤처는 가장 먼저, 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일련의 핵심 원칙들, 그리고 새로이 떠오르는 모범관행 및 비판대상인 관행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개발결과 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험사례로서의 교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 4 장 양자간 공여국들의 정책 및 노력

2002년, DAC 회원국들의 총 원조규모는 583억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이는 1992년 이래 원조규모 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DAC 회원국들의 ODA/GNI 비율은 2001년 0.22%에서 2002년에 0.23%로 0.01%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이 값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0.1%가 낮은 수치이다.

본 4장에서는 DAC의 모든 회원국, 그리고 DAC 비회원국들 가운데서 양자간 원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원조 공여국의 원조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을 살펴본다.

DAC 회원국의 원조 규모와 원조 프로그램

이 장에서는 DAC 모든 회원국, 그리고 DAC 비회원국 가운데서 양자간 원조내역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원조 공여국의 원조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을 살펴본다.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했듯이, 공여국의 국민소득 규모에 비하면 항상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원조규모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오는 2006년까지는 원조규모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표 3.2 참조). 2002년도 DAC 회원국들의 총 원조규모는 1992년 이래 최고치인 583억 달러였다. 그러나 DAC 회원국들의 ODA/GNI 비율은 2001년 0.22%에서 2002년 0.23%로 0.01% 포인트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여전히 0.1% 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다.

표 4.1과 도표 4.1은 22개 DAC 회원국 중 13개국이 2002년도에 ODA 규모를 늘렸으며, 이 중 10개 회원국은 전년대비 실질원조 증가율¹이 10%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만이 여전히 UN 기준인 ODA/GNI 비율 0.7%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2007년), 벨기에(2010년), 프랑스(2012년, 중간목표인 0.5% 달성 기한 2007년) 등 3개국은 괄호에 표시한 바와 같이 UN 기준치 달성을 위한 최종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규모면에서는 가장 큰 원조 공여국이며, 2002년 원조액은 133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실질원조규모는 15%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원조규모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01년 9·11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로서 추가 긴급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부문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¹ 여기서 '실질'(real)이란 각국의 물가상승률 및 환율을 감안한 수치를 말함.

일본의 ODA는 1.2% 소폭 하락했는데,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달러화로 평가한 ODA 규모는 98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엔화로 평가했을 때보다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EU 회원국 전체국가는 DAC 회원국 전체 ODA의 51%를 제공했다. 프랑스가 ODA를 2001년 보다 13억 달러 더 늘리면서 EU 전체 ODA 규모는 전년대비 5.8% 상승했다. 프랑스(55억 달러)는 독일(53억 달러)과 함께 EU 회원국 중 대외원조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기타 DAC 회원국들 가운데 이전보다 원조 수준을 크게 높인 나라는 이탈리아와 캐나다로서 각각 전년대비 33%, 31%가 증가하였다. 이들 2개국들은 2010년까지 ODA를 2001년 수준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1. 2002년 DAC 회원국의 ODA

	2002		2001		2001-2002년 실질가치 변화 (%) ¹
	ODA 현재 미 100만불	ODA/GNI	ODA 현재 미 100만불	ODA/GNI	
호주	989	0.26	873	0.25	4.9
오스트리아	520	0.26	533	0.29	-8.4
벨기에	1 072	0.43	867	0.37	14.8
캐나다	2 006	0.28	1 533	0.22	31.2
덴마크	1 643	0.96	1 634	1.03	-5.8
핀란드	462	0.35	389	0.32	11.5
프랑스	5 486	0.38	4 198	0.32	22.1
독일	5 324	0.27	4 990	0.27	-0.2
그리스	276	0.21	202	0.17	25.5
아일랜드	398	0.40	287	0.33	25.7
이탈리아	2 332	0.20	1 627	0.15	32.6
일본	9 283	0.23	9 847	0.23	-1.2
룩셈부르크	147	0.77	139	0.76	0.2
네덜란드	3 338	0.81	3 172	0.82	-3.3
뉴질랜드	122	0.22	112	0.25	-1.1
노르웨이	1 696	0.89	1 346	0.80	12.7
포르투갈	323	0.27	268	0.25	9.2
스페인	1 712	0.26	1 737	0.30	-10.3
스웨덴	1 991	0.83	1 666	0.77	10.9
스위스	939	0.32	908	0.34	-5.0
영국	4 924	0.31	4 579	0.32	0.0
미국	13 290	0.13	11 429	0.11	15.0
DAC 멤버 합계	58 274	0.23	52 335	0.22	7.2
평균 국가별 원조		0.41		0.39	
참조 정보					
1. 유럽 공동체	6 561		5 961		2.1
2. 유럽연합 총계	29 949	0.35	26 288	0.33	5.8
3. G7 국가들	42 646	0.20	38 202	0.18	9.2
4. G7 외 국가들	15 627	0.47	14 133	0.47	1.8
5. 대한민국	279	0.06	265	0.0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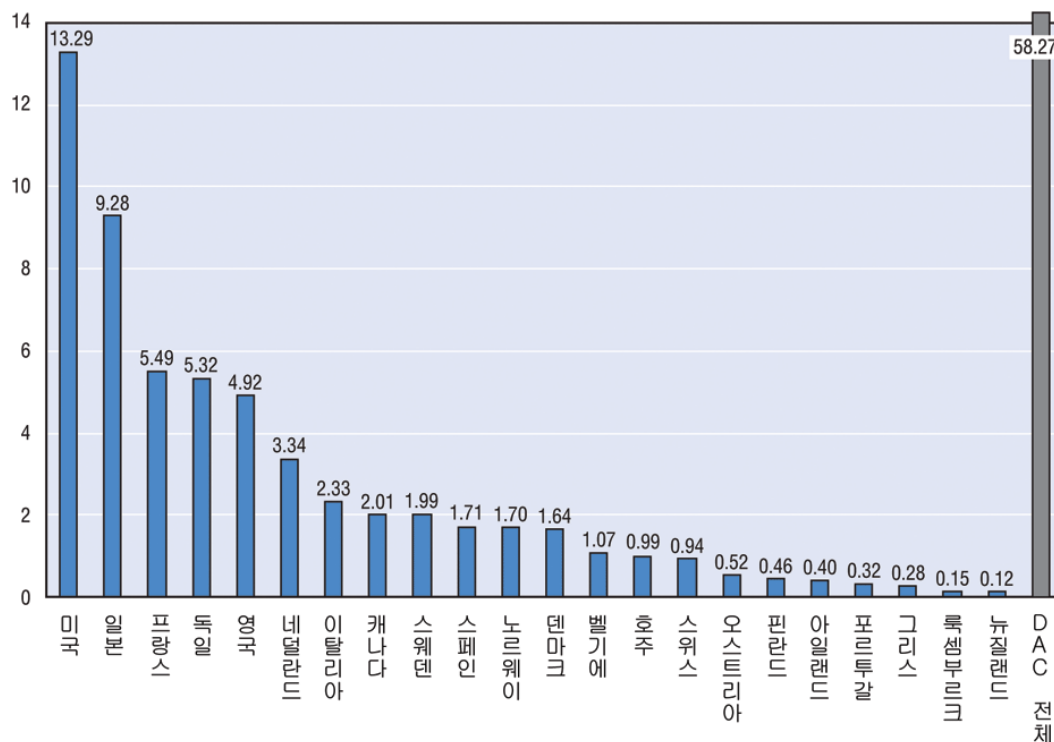
1.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을 고려한 것임

DAC 회원국들의 개발원조 내역

다음에 소개될 DAC 회원국들의 원조내역은 회원국 명칭의 알파벳순서에 따라 배치되었고, 2003년에 동료평가(Peer Review)가 이루어졌던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및 룩셈부르크)은 그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인 ODA에 관한 자료는 2002년도 자료를, 그리고 실제 세부 원조내역에 대해서는 2001-2002년간 총 ODA의 평균치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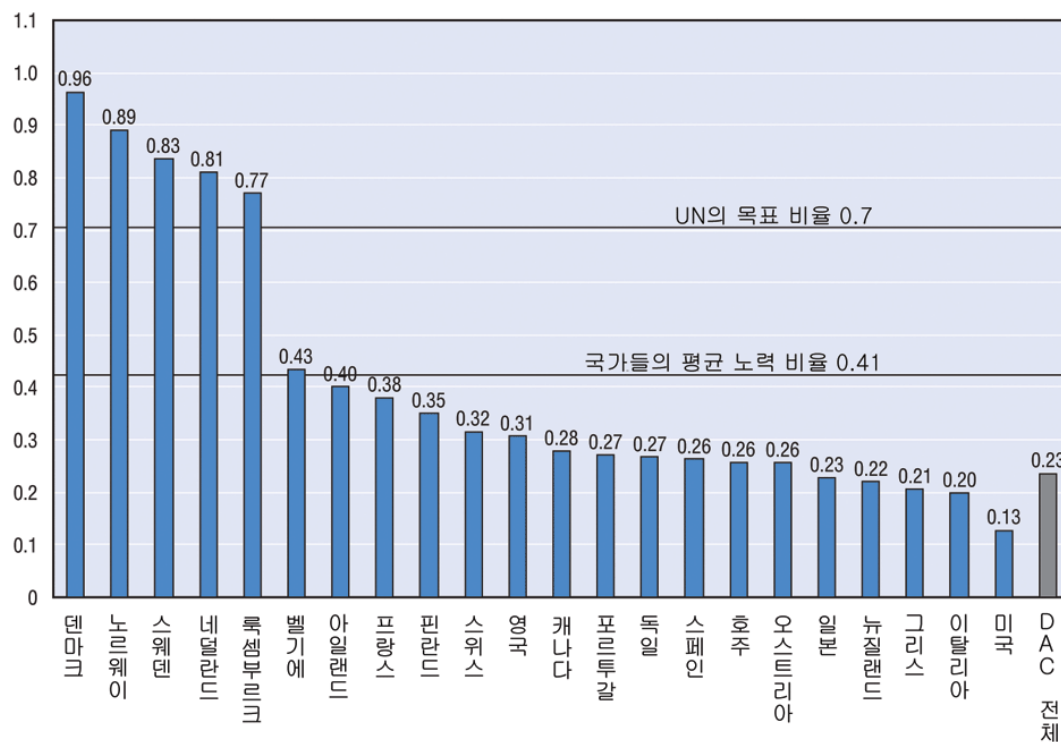
10억 US\$

2002년도 순 ODA



GNI 대비 ODA 비율 (%)

2002년도 GNI 대비 순 ODA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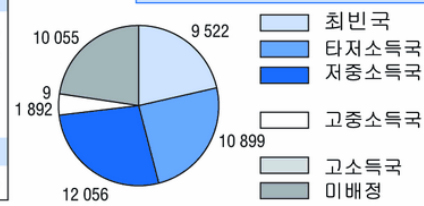
DAC 전체 국가들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수치는 양자간 총 ODA의 2001~2002년간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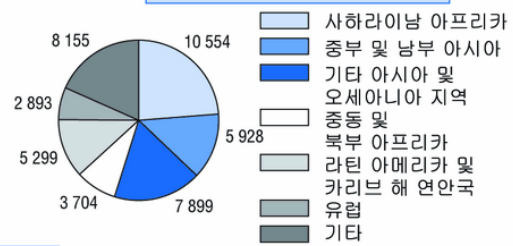
순 공적개발원조 (Net ODA)	2001	2002	변화 2001/2002
경상가격 ODA (백만 US\$)	52 335	58 274	11.3%
불변가격 ODA (2001년 백만 US\$)	52 335	56 109	7.2%
ODA/GNI	0.22%	0.23%	
양자간 ODA / 총 ODA	67%	70%	
순 공적원조 (Net OA)			
경상가격 OA (백만 US\$)	5 597	6 317	12.9%

최상위 10대 ODA/OA 수원국 (백만 US\$)	
1 중국	1 847
2 인도	1 642
3 인도네시아	1 443
4 이집트	1 397
5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1 277
6 모잠비크	1 244
7 러시아 (공적원조)	1 062
8 파키스탄	960
9 탄자니아	939
10 필리핀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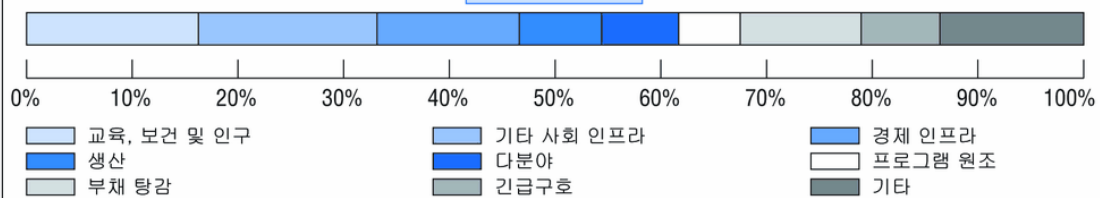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ODA 내역 (백만 US\$)



지역별 ODA 내역 (백만 US\$)



분야별 구성비율



호 주

호주의 2002년도 ODA 총액은 989백만 달러이며, ODA/GNI 비율은 2001년에 0.25%에서 2002년도 0.26%로 상승하였다. 호주정부는 2002년도에 발표한 “호주의 원조: 성장, 안정성, 그리고 번영에 대한 투자”² 라는 제목의 정책선언을 바탕으로 2003년에 “국가이익의 증진”³ 이라는 제목의 신 외교통상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들 정책은 good governance, 인권, 그리고 개발을 장려함에 있어서 ODA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의 유일한 목표는 개도국이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호주의 양자간 원조는 호주와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하는 개발전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개발전략은 수원국이 스스로 마련한 국가개발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호주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역적 환경에 더욱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관련 업무와 계약관리 업무를 수원국 현지사무소에 이관해 왔다. 또한 호주는 공여국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도 협력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호주의 원조담당기구인 AusAID는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전략의 핵심요소로서 빈곤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호주의 양자간 원조프로그램 결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는 특히 good governance를, 성공적인 빈곤감소와 개발을 위한 기초로 간주하여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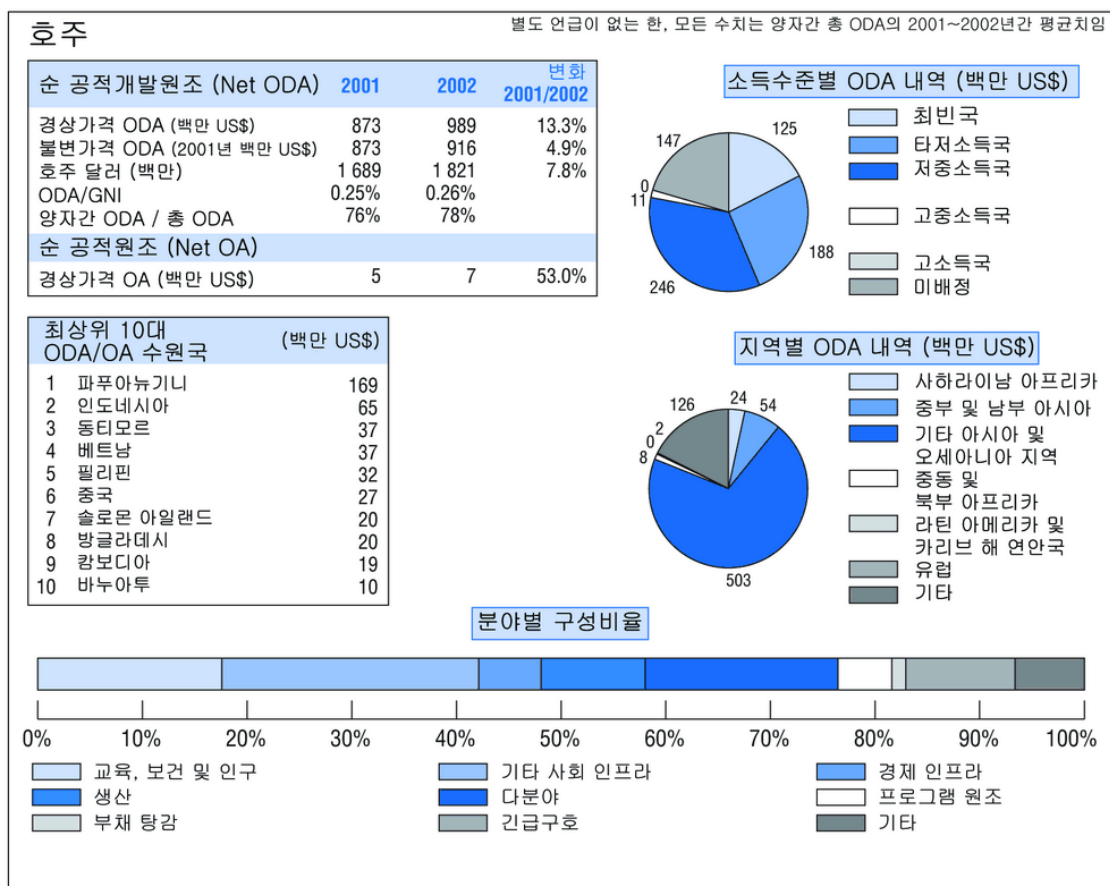
정책일관성. 호주 정부는, 현재 당면한 역내 안보문제와 초국경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원조 정책이 외교정책, 그리고 통상무역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호주는

² 원제는 Australian Aid: Investing in Growth, Stability and Prosperity 임.

³ 원제는 Advancing the National Interest 임.

농업분야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 측정. 호주는 상당한 규모의 자원을 동원하여, 원조 성과의 측정 방식과 수준을 향상 하고 개발원조 과정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교훈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실무 차원의 개발원조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 강화와 함께, AusAID는 지속적으로 원조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평가 역량 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새로이 등장한 “ 지식의 보고(Knowledge Warehouse)” 라는 데이터베이스는 AusAID 직원이 중요한 과거 경험과 정책관련 문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수원국도 인터넷을 통해 이곳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http://akwa.aisaid.gov.au>).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실질 ODA는 2001년 533백만 달러에서 2002년 520백만 달러로 8.4% 하락했다. ODA/GNI 비율도 동 기간동안 0.29%에서 0.26%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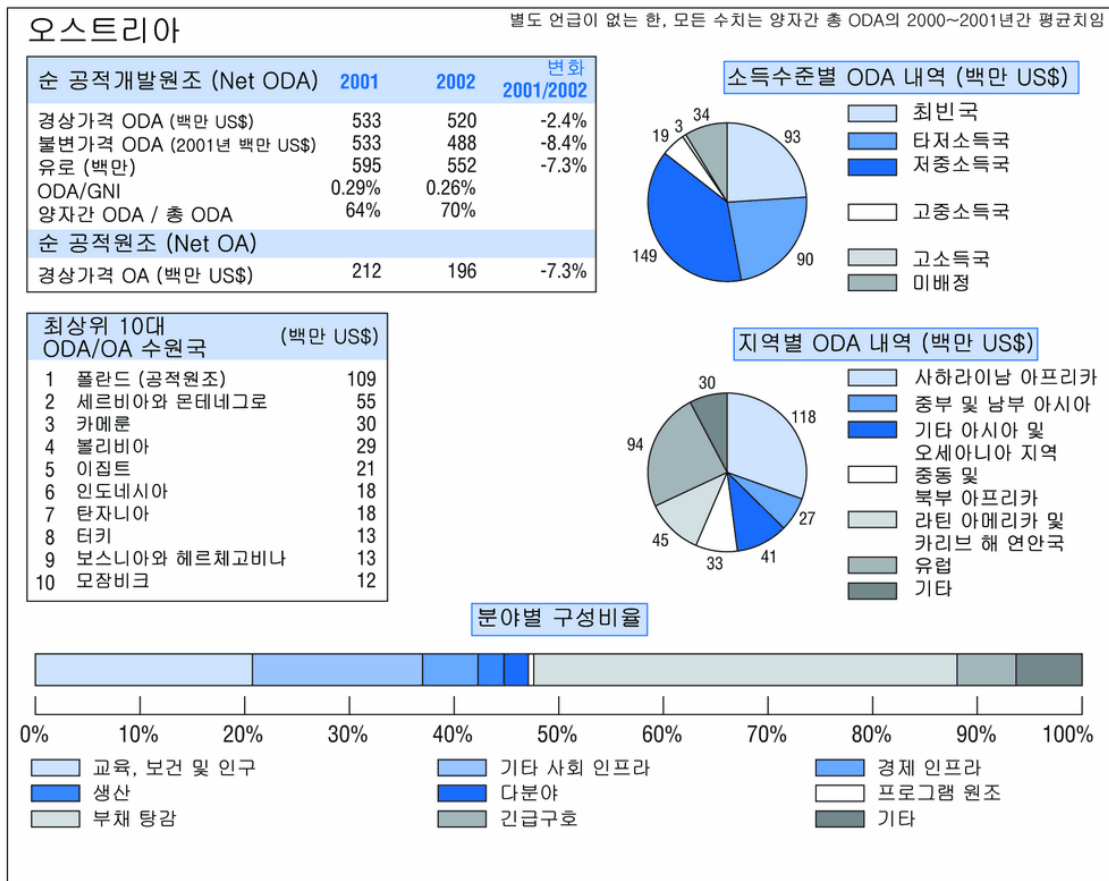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오스트리아는 분권화 과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섹터별 원조정책과 우선순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NGO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다. 지난 2002년에는 연방개발원조법이 통과되었고 2003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동 법에 기초하여 Austrian Development Agency(ADA)라는 새로운 오스트리아 개발원조 집행 전담기관이 설립되었고, ADA는 2004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빈곤감소 정책. 오스트리아는 원조대상 최빈국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정책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빈곤 지역들과 빈곤퇴치에 불리한 상황에 있는 원조대상 국가그룹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공평한 소득분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빈곤층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목표지향적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일관성. 오스트리아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되 원조와는 관련이 없는 정책과 직접적인 개발원조 정책 사이에 일관성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2002년 통과된 연방개발원조법안은, 개발원조업무의 조정 책임을 지는 오스트리아 외교부가 포괄적이고도 동시에 일관성 있는 개발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동 법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개발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보다 잘 통합시키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측정. 오스트리아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 MDGs를 오스트리아 원조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다른 양자원조, 다자원조 공여국과 공조하여 MDGs를 구현하는 일은 여전히 오스트리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과제가 해결된다면 오스트리아의 성과 평가 시스템은 재원 조달, 인적 자원,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현저히 보장될 수 있다.



벨기에

2002년 벨기에의 실질 ODA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1억 달러이다. ODA/GNI 비율은 2001년 0.37%에서 2002년에는 0.43%로 늘어났다. 개발원조예산의 대부분(73%)이 최빈국과 저소득국가에 지원되었는데, 이 가운데 2/3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벨기에는 최빈국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이 국가의사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치와 원조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는 또한 수원국 개발정책과 공여국 협력정책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각 공여국들만의 독특한 색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벨기에는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벨기에 정부에게 있어서 빈곤이란 자본과 권력, 그리고 권리가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로 여겨지고 있다.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힘의 재분배가 있어야 한다. 벨기에는 분쟁지역에서의 빈곤감소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책일관성. 벨기에는 개발도상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연방정부 부처들 간에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간 작업반을 다시 발족하였다. 현재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임무가 위축,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ODA 정책관련 공조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 열릴 예정인 벨기에 의회는 적절한 타협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과 측정. 내부 평가절차를 벨기에 정부의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도입토록 하는 체제가 현재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외부 평가자가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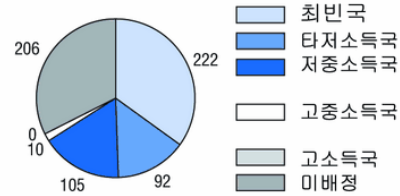
벨기에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수치는 양자간 총 ODA의 2001~2002년간 평균치임

순 공적개발원조 (Net ODA)	2001	2002	변화 2001/2002
경상가격 ODA (백만 US\$)	867	1 072	23.6%
불변가격 ODA (2001년 백만 US\$)	867	996	14.8%
유로 (백만)	968	1 137	17.4%
ODA/GNI	0.37%	0.43%	
양자간 ODA / 총 ODA	58%	66%	
순 공적원조 (Net OA)			
경상가격 OA (백만 US\$)	88	97	10.0%

최상위 10대 ODA/OA 수원국 (백만 US\$)	
1 탄자니아	45
2 콩고민주공화국	42
3 카메룬	29
4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28
5 코트디부와르	24
6 르완다	17
7 볼리비아	14
8 부르키나파소	13
9 부룬디	13
10 베트남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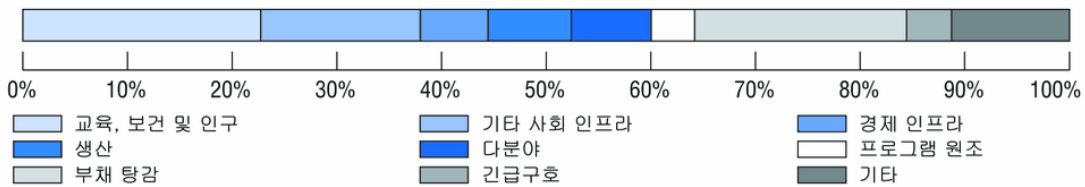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ODA 내역 (백만 US\$)



지역별 ODA 내역 (백만 US\$)



분야별 구성비율



캐나다

캐나다의 2002년도 실질 ODA는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20억 달러였다. ODA/GNI 비율은 2001년 0.22%에서 2002년 0.28%로 증가했다. 캐나다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렸던 UN 개발재원회의 그리고 카나나스키스(Kananaskis)에서 개최된 G8 회의에서 행했던 공약 가운데 하나로서, 2010년까지 ODA 수준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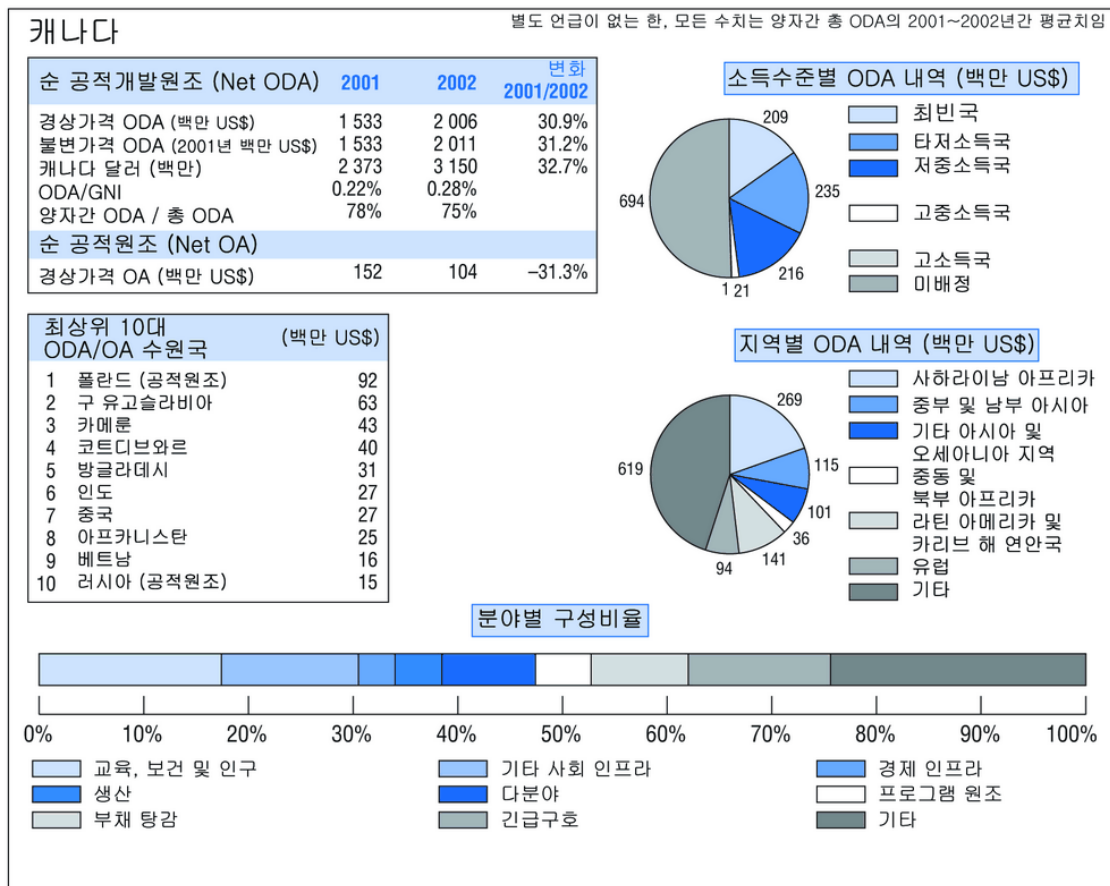
파트너쉽 접근방법. 캐나다는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을 통해, 개도국들이 스스로 수립하는 빈곤감소전략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개발원조 과정에 참여시키는 일은 캐나다의 개발원조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며, CIDA 내의 “파트너쉽 부문”은 캐나다와 개발도상국 개발관련 기관들을 연결해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빈곤감소 정책. CIDA는 캐나다가 실시하는 양자간 원조프로그램을 주요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s)에 과거보다 더 많이 일치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는 동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캐나다는 ODA의 대부분을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교육, 에이즈 예방과 치료, 보건 및 영양, 아동 보호에 할당한다. 또한, 여러 방면에 걸치는 성평등과 환경 문제 역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다.

정책일관성. CIDA는 캐나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무역과 환경 관련 정책 수립 시 그 정책과 개발원조 정책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신의 역량강화에 주력해 왔다. 2002년 캐나다는 최빈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수량 할당 면제 조치를 확대시켰다 (유제품, 가금류, 계란은 제외).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캐나다는 ‘2001년도 최빈국에 대한 ODA 언타이드에 관한 권고사항(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동 DAC 권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조관련 계약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2002년도의 캐나다 원조 정책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성과 측정. CIDA는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민간, 국가, 정부, 기관 간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요기관 결과체계(Key Agency Results Framework)’를 개발하였다. 이 체계의 주요 핵심부문은 단기와 장기 결과 지표와 함께 구축된 성과 측정 및 평가이다.



덴마크

2002년 덴마크의 ODA/GNI 비율은 0.96%로서 DAC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ODA 규모는 16억 달러이다. 2001년도의 비율은 1.03%였다. 현 덴마크 정부는 ODA/GNI 비율을 최소 0.7%를 유지하되, 종전 목표치인 1% 수준 유지 정책은 포기하였다. 덴마크가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는 개발원조의 최우선 대상국은 최빈국(49%)과 기타 저소득국가(29%)들인데, 이들 국가들은 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51%)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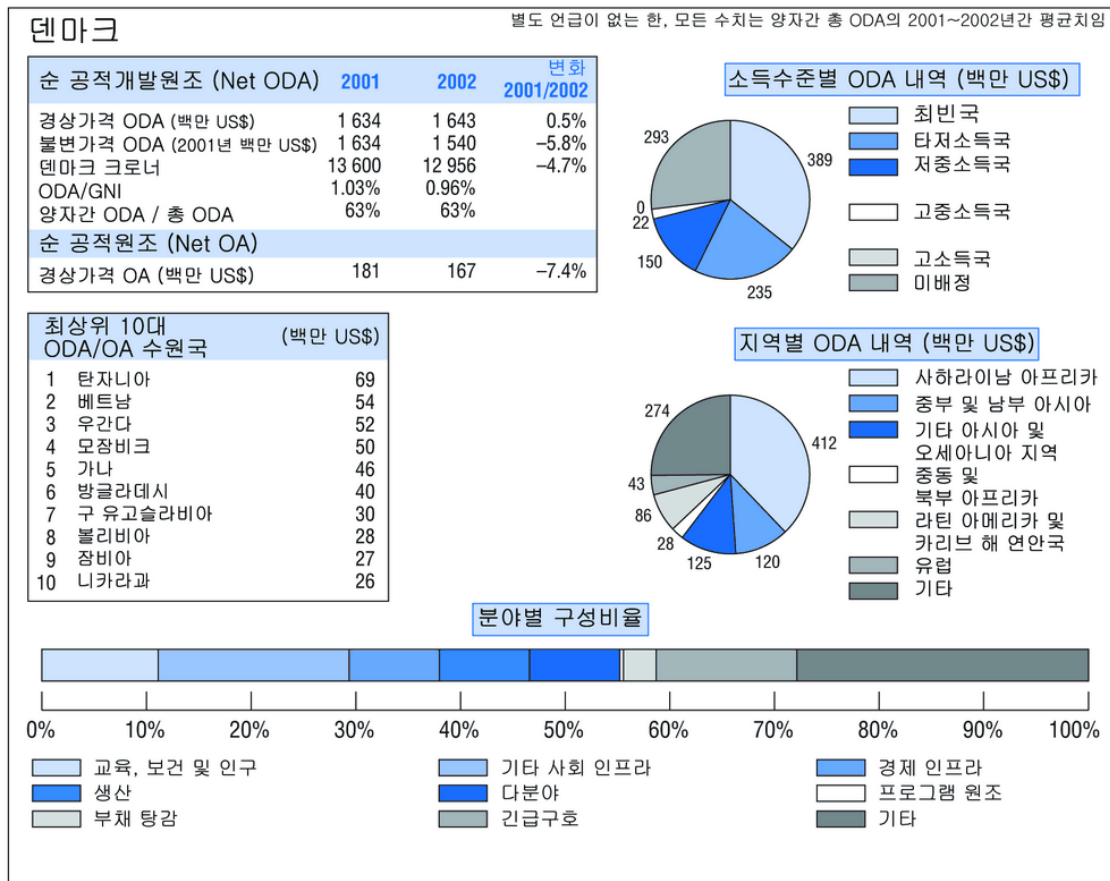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덴마크 개발원조정책 ‘파트너십 2000(Partnership 2000)’은 개발원조전략 수립과정에 수원국들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덴마크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개발원조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프로그램을 도입·반영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감소는 덴마크 원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덴마크의 원조프로그램은 성평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빈곤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덴마크는 다른 공여국과 공조하여 수원국 주도의 빈곤퇴치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일관성. 1991년 이래로 덴마크는 외교통상부 내 해당지역 담당 부서에서 동 지역과 관련한 개발협력, 외교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모두 다 다루어 왔다. 또한, 효율적인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공여국간의 공조를 중시한다. 덴마크는 최빈국가에 대해 언타이드 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모든 공여국이 ‘노력 분담(effort sharing)’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과 측정. 최근 Danida는 원조성과측정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원조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책임감과 성과측정 방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성과에 보다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MDGs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는 현재 중요시되는 빈곤감소전략과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성과지향적 원조 등을 위해서는 공여국들간의 공동 평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Box. 4.1 덴마크에 대한 DAC 동료심사 (2003.3.22)

평가자: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

2003년 덴마크에 대한 동료심사(peer review)는 관료조직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 차원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덴마크 정부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다. 덴마크 정부가 준비 중인 “신 5개년 전략과 예산 계획안(2004-2008)”은 향후 원조규모와 원조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할 예정이다. 동료심사에서 채택된 중요한 평가 결과와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덴마크가 과거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발문제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로 취급하는 한편, 대중의 관여와 지지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덴마크가 다자기구의 성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타 공여국들과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코자하는 점에 대해 DAC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2002년 덴마크는 몇 가지 개발재원 조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 가운데는 ODA 예산규모를 고정비율로 설정하던 관행을 포기하고 2002년도 ODA 예산을 10% 감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한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덴마크의 ODA/GNI 비율은 향후 몇 년간 0.8~0.9%에 이를 전망이다. DAC는 덴마크가 현행 ODA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ODA를 덴마크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공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DAC는 덴마크가 수원국의 건실한 발전이라는 근본 취지 위에서 지역별, 그리고 분야별로 원조자금을 할당해 왔던 전략을 계속 유지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OECD와 그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덴마크 개발협력의 대표기관인 덴마크국제개발청(Danida)은 개발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석함에 있어 덴마크 각 정부 부처 내에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2003년 덴마크는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조달과 관련하여 원조를 언타이드화 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 선언을 통해 덴마크는 더욱더 언타이드 원조를 수행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덴마크는 언타이드 원조에 관한 OECD 권고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국의 접근방식을 재검토하고 동 권고안을 충실히 따라줄 것을 권고 받았다.
- DAC는 Danida가 덴마크의 개발원조 관련 경험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관련 이슈와 최선의 원조방법 등에 대한 공여국들 공동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조 양식, 주요 개발 분야 등에서 덴마크가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들을 재평가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덴마크는 분권화와 관련한 새로운 원칙들의 시행이 2003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권화의 영향을 받은 수원국들은 덴마크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기고 있으나 일련의 잠재적 문제점들 가운데 이미 덴마크가 치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덴마크는 새로운 분권화된 협력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분권화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덴마크는 원조성과 관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원조의 질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책임감과 성과측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덴마크의 경험은 모든 공여국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 ‘학습 실험실(learning laboratory)’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DAC 회원국들 가운데는 원조성과에 기초한 원조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덴마크는 이들 국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EC)

2002년에 EC의 ODA는 2001년에 비해 2.1% 증가한 66억 달러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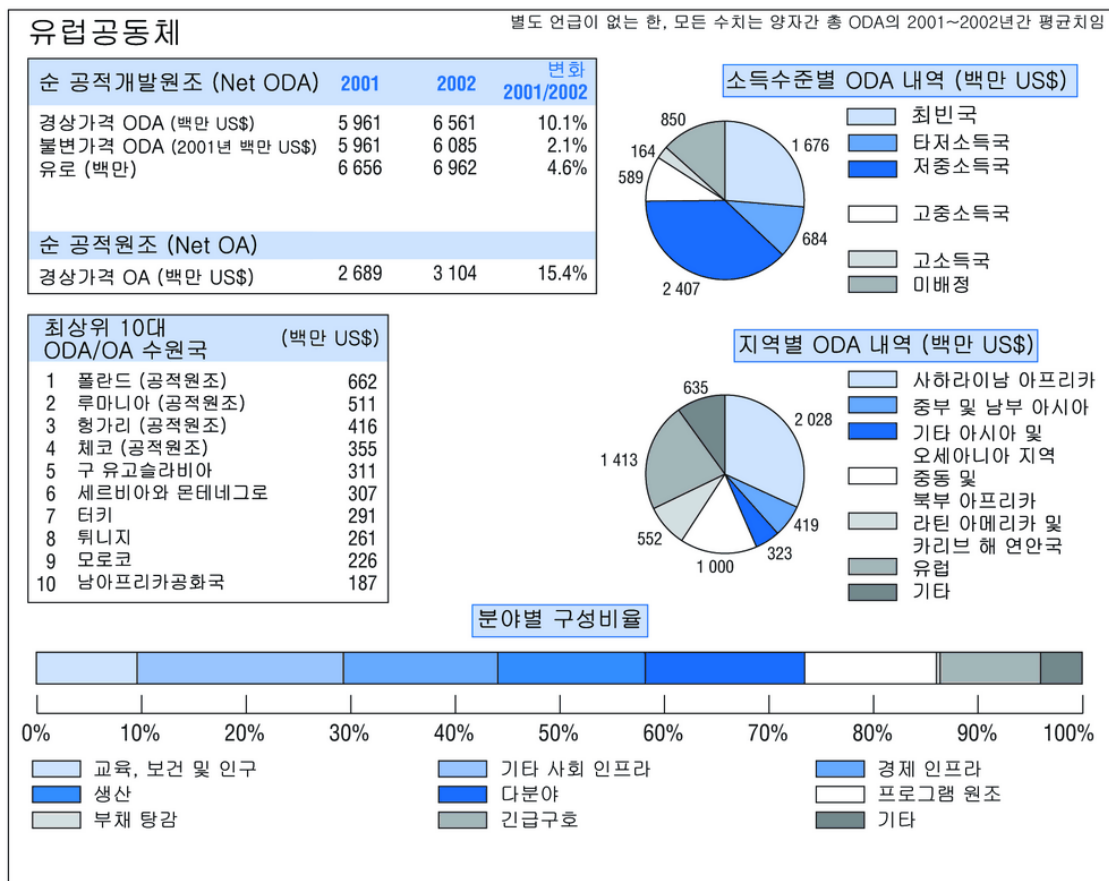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 2002년 6월 EC는 회원국들과 함께 한 가지 실험적인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동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EC 차원에서 정책운용상의 공조 및 조화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다. 4개의 실험적인 원조 프로그램이 모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베트남 등에서 추진되었다.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EU는 식수/위생, 그리고 에너지 등에 관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EU는 수혜국과 다른 공여국 그리고 민간분야와 시민사회 모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EC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실용적인 정책대화의 강화 등을 통해 UN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빈곤감소. 2002년 EC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에 소재한 국가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전보다 더욱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s)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빈곤감소가 보다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U의 신 설립협정에서는 빈곤퇴치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EU의 개발정책을 중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정책일관성.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는 정책은 정책일관성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현행 협정상에서 기술된 정책일관성 관련 조항들은 새로운 설립협정상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EC는 모든 개발 도상국가에게 언타이드 원조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고 식량운송 또한 완전히 언타이드화 시키는 절차도 개시하였다. EC는 이민문제를 EC의 대외정책에 통합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2002년 5월에 EC는 모든 주요 원조정책 제안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의 의도는 대외원조가 EU 내외에 미칠 경제, 사회, 환경 차원의 잠재적 영향력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정책일관성을

입증할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 확장된 영향력 평가는 2003년에 설탕과 관련한 공동시장, 공동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그리고 EC의 어업 파트너십 협정의 개혁 등과 같은 주요 정책 개혁안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 측정. MDGs와 기타 정책 목표에 EC가 기여한 바를 측정하기 위해 EC는 EC회원국과 함께 개별 국가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EC가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지불한 돈은 지난 13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EC는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일련의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이 지표는 예산집행 개선, 오래되어 사문화된 공약 폐기, 예산규모의 합리화, 그리고 EC 위원회에서 각국 대표에 대한 권한분산 등 제반 영역에서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21개 EC 대표단에, 2002년에는 26개 대표단에 위원회의 권한을 분산시켰으며, 나머지 30개 대표단에 대해서는 동 작업을 2003년까지 추진할 것이다. 유럽 원조협력 사무소의 원조관리 실태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다.



핀란드

핀란드의 ODA의 2002년도 실질증가율은 12%로서, 규모는 미화 462백만 달러이다. ODA/GNI 비율은 2001년의 0.32%에서 2002년 0.3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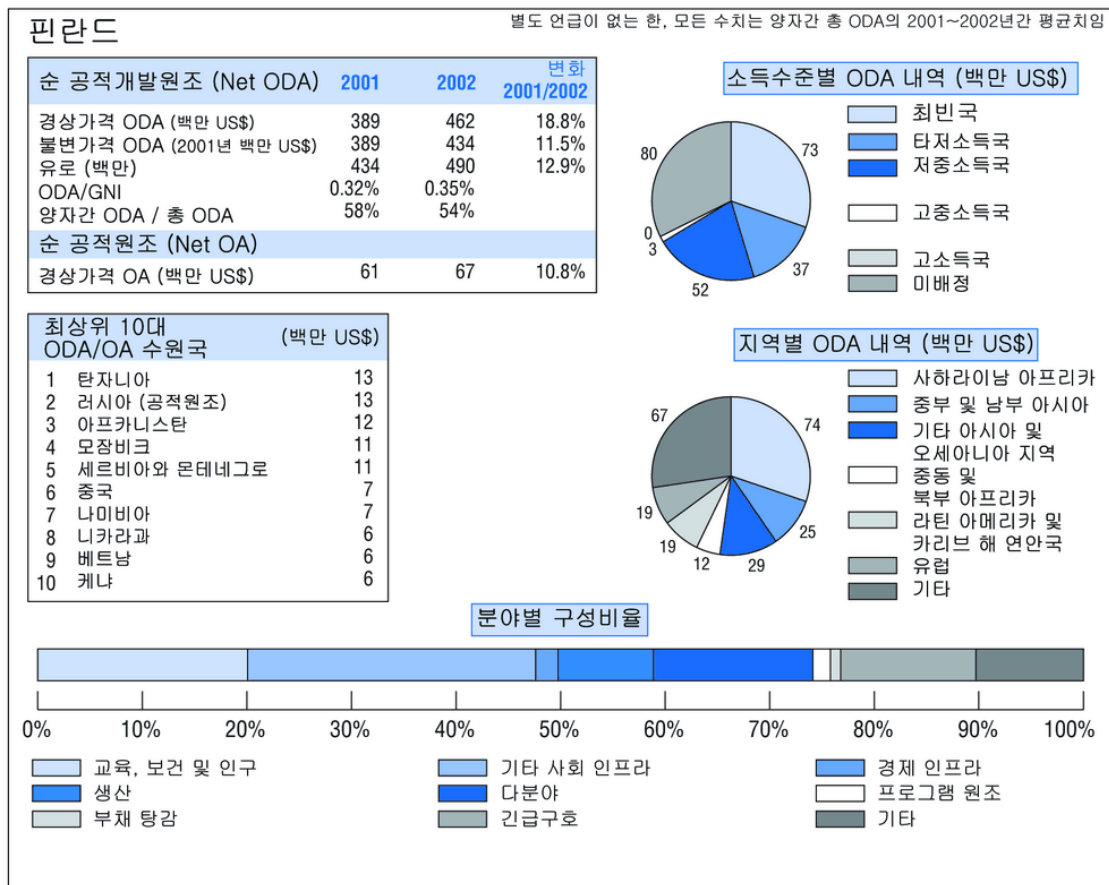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새로운 개발정책 백서가 2003년 하반기에 발표되었다. 동 백서의 목표는 핀란드 정부가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시한 공약을 더욱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 백서는 정부가 취할 행동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의 실질적 분야와 행정분야에 있어 중점을 둘 영역을 식별해 내는 한편, 새로운 원조 수단을 마련함과 아울러 원조 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증대시키는 것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양자간 개발협력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수원국들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핀란드 정부는 이들 수원국들과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원국 정부와 함께 양자간 협력문제에 관해 상호 정책대화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분야별 프로그램 및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빈곤감소. 빈곤감소는 핀란드 개발협력의 주요 목표이다. 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수원국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은 빈곤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특별심사를 받게 된다. 빈곤감소 관련 협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분야 이외에도, 인권, good governance, 민주주의, 문화, 무역 등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성평등 증진 또한 개발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일관성. 핀란드는 외교안보, 통상,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일관성 논의의 기반은 MDGs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취지에서 양자/다자/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이 서로 동질성을 가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원조의 투명성과 조정, 역할분담 및 각

공여국간 원조 관리 조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 측정. 핀란드는 성과 측정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서 MDGs를 들고 있다. 성과평가는 개별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원조수단, 그리고 국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여국 합동원조 프로그램은 그 성과평가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원국의 역량 강화 또한 함께 요구된다.



Box 4.2 핀란드에 대한 DAC 동료 평가 (2003.6.17)

평가자 : 덴마크와 뉴질랜드

핀란드의 개발 협력정책은 1998년 DAC 동료평가 이후로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최근 새로운 개발협력 백서와 실천계획이 발표되어 핀란드 개발원조의 목표, 우선순위, 원조수단, 그리고 원조대상 국가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명료화 하였다. 핀란드 원조정책은 종전에는 원조 프로그램의 유연성(flexibility)을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장기적 원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수원국, 원조분야 및 국제기구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3년 4월에 새로이 출범한 핀란드 정부는 이전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개발원조와 통상 관련 각료급 직책을 폐지하고, 대외통상 및 개발협력 장관직을 신설하였다.

2002년 핀란드의 ODA/GNI 비율은 0.35%이었으며 핀란드 정부는 국내 경제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동 비율을 2007년까지 0.45%로 증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핀란드의 전체 ODA 가운데 다자간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DAC 회원국 전체 평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주로 UN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핀란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DAC 회원국보다 개발협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며, 개발협력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

DAC는 핀란드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했다.

- 차기에 발표될 개발협력 백서에서는 빈곤감소를 핀란드 개발협력의 최우선적 목표로서 더욱 명료하게 규명하여 MDGs를 그 달성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이미 공약한 바대로 2010년까지 ODA/GNI 비율을 0.7%까지 증대해야 한다.
- 다른 공여국과 수원국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 및 교훈을 증대하기 위하여 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한 약 10여개 국가에 개발원조를 집중해야 한다.
- 개발 관련 정책일관성 달성 노력을 증진하고, 그 수단으로서 특히, 명확한 정책을 세우는 한편,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석력을 배양해야 한다.
- 양허성 신용계획이 빈곤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1998년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 신용계획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한다.

- 계획 중인 ODA의 증액에 대비하고 원조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원조업무 담당자 수를 늘리는 한편 이들의 개발원조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개발협력 대상 국가와 분야를 제한하고 지역 전문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원국 현장에 파견하는 대표단을 늘리는 한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개발협력 관련 직원의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
-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학습 메커니즘, 그리고 원조성과 평가시스템의 독립성을 높이고 그 관할권을 확장해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ODA는 2002년에 미화 55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1년 대비 실질기준 22%가 증가하였다. ODA/GNI 비율은 2001년 0.32%에서 2002년 0.3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다자간 원조(9% 증대)와 양자간 원조(30% 증대)를 비교할 때 양자간 원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프랑스 ODA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에 치중(72%)되어 있다. 2002년 프랑스는 ODA/GNI 비율을 2007년까지 0.5%로 증대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2012년까지는 0.7%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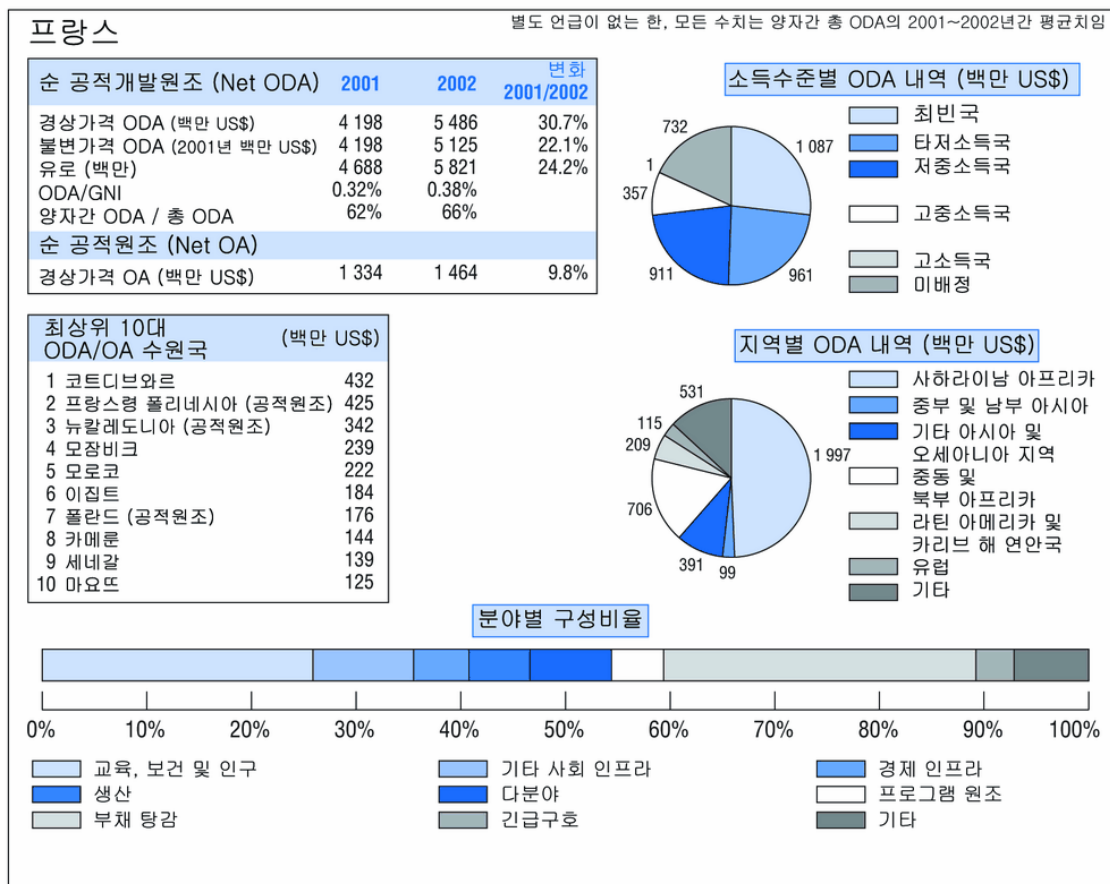
파트너쉽 접근방법. 파트너쉽 접근법은 남반구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는 프랑스 개발정책의 핵심이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NEPAD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스스로 빈곤감소전략(PRSPs)을 마련하고 있는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가 PRSP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기초교육이나 AIDS 기금마련 등과 같은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프랑스는 여러 번에 걸쳐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는 프랑스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부처간 국제협력개발위원회(CICID: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개발원조 전략의 주요 부분이기도 하다. 양자간 원조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초등교육과 전문교육, 기초보건 및 AIDS 예방, 설비와 인프라, 지역개발과 천연자원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투자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와 기술협력 또한 파트너쉽 측면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민간금융 또는 촉매제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용보증 내지는 차관과 같은 새로운 원조방법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정책일관성. 프랑스 개발협력 상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책임은 CICID가 지고 있다. 동 기관에는

개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2002년에 CICID는 프랑스 개발원조의 우선목표와 원조대상 분야를 마련하였다. 동 목표와 분야로서는 ODA를 증대하겠다는 공약 실천, 아프리카와 NEPAD에 대한 지원, MDGs와 지속가능개발 개념을 프랑스 원조 제도에 통합시키는 것, 그리고 원조 사업을 교육, 보건, AIDS, 인프라, 식수와 농업 등 5개 분야에 집중하는 것 등이 있다.

원조의 효과성. 프랑스는 원조효과를 제고하고 여타 원조국들과의 조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3년 2월 로마에서 개최된 원조조화에 관한 고위급포럼에서 프랑스는 ‘최빈국에 대한 ODA 언타이드에 관한 DAC 권고’처럼, DAC가 ‘공여국 관행의 조정 및 조화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원조절차의 조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02년 말 CICID는 동 실무작업반의 작업 결과를 승인했다. 동 작업반은 현재 원조효과성을 강화하는 행동계획을 완결 짓는 과정 중에 있다. 원조효과성 강화는 2003년 프랑스가 의장직을 맡는 G7/G8 회의에서 다루어질 최우선순위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독 일

독일의 ODA는 2002년에 53억 달러로, ODA/GNI 비율은 0.27%를 유지했으며, 독일은 2006년까지 동 비율을 0.33%로 늘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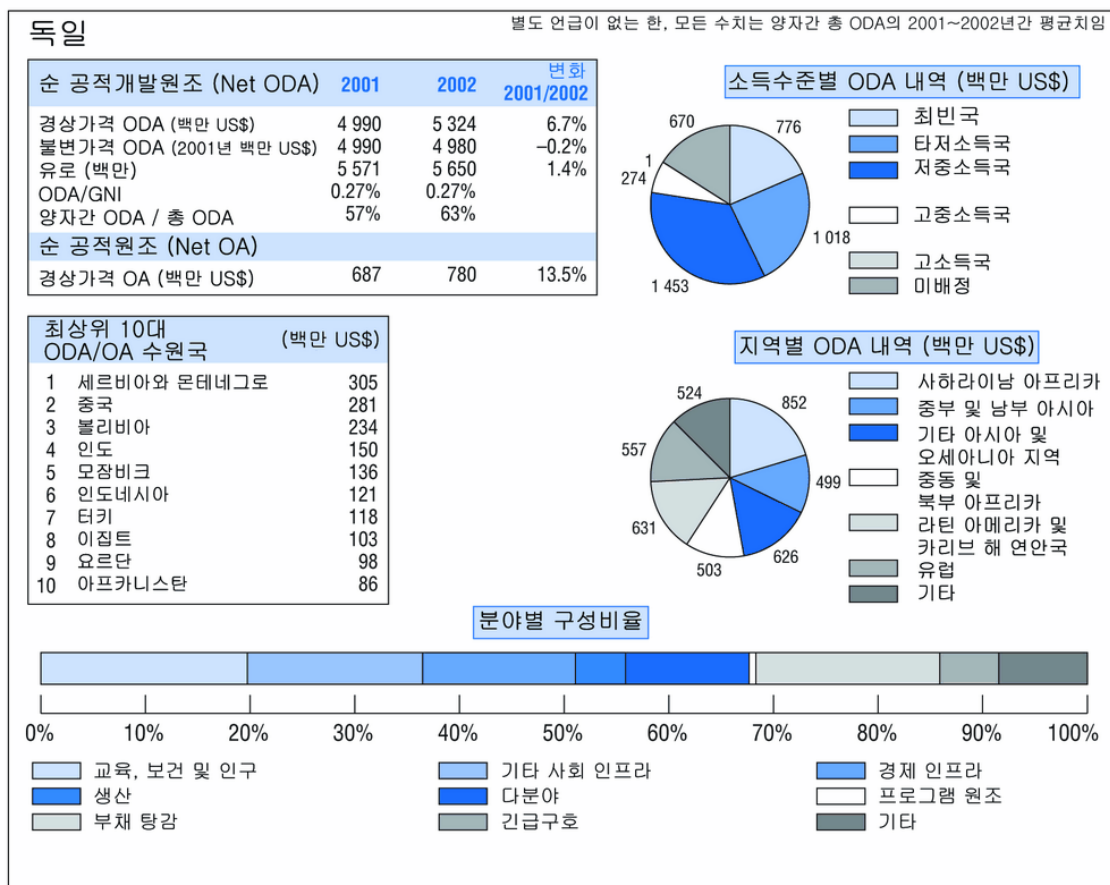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2002년 10월 구성된 독일 연립내각 협정은 새천년선언, 몬테레이 및 요하네스버그 회의와 일관성 있는 독일 개발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빈곤감소와 평화를 유지하여 올바른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다.

빈곤감소 정책. 2001년 4월 독일 연방내각은 UN 새천년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독일정부가 이바지해야 할 바를 명시한 ‘빈곤감소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 2015’을 승인했다. 동 프로그램은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말경에는 제2차 작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03년 10월 BMZ는 새로운 특별 작업반을 설치하여 세계 각국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원조 프로그램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MDGs의 목표와 원칙을 독일의 양자 개발프로그램에 주류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일관성. 정책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 개발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앞서 언급한 ‘행동 프로그램 2015’에서 독일은 전 세계적 빈곤 감소를 독일 외교정책에 있어서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명시하고 있다. 원조 프로그램 수립과정에서 정책일관성이 향상됨에 따라,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간의 연계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계성 향상의 결과, 양자/다자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재정지원이 증가하였다. 정책일관성과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독일의 여러 정부부처들이 독일 경제계, 그리고 NGO들과 함께 공정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독일이 자신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C와 적극적인 공조를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독일은 EC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보조금 지급 액수를 크게 줄이는 일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 농업 보조금은 무역왜곡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바, 개발협력정책의 일부 분야에서 정책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과 측정. 독일의 개발 협력정책은 개발협력의 성과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 ‘행동 프로그램 2015’에는 원조정책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재정 및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결과 지향적 구조가 개발됨으로써, 현재 KfW와 GTZ가 제출하는 보고서에서는 정책목표와 정책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독일의 2001년 동료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BMZ와 독일 외교부는 원조사업의 성과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해 오고 있다.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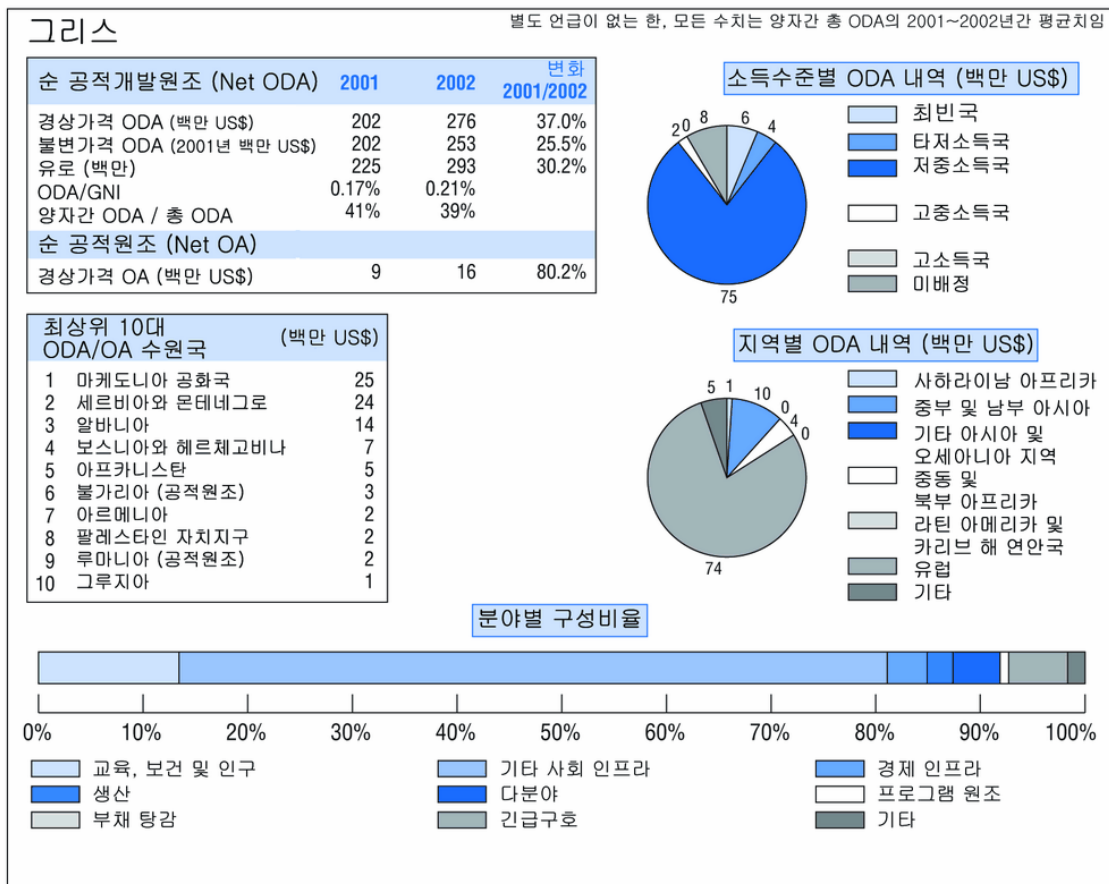
그리스의 ODA는 상당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276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원조관련 다자기구에 대한 상당수준의 기여금 증액, 특히 EC에 대한 기여금 증액을 들 수 있다. 2002년에 그리스 ODA/GNI는 0.21%이었으며 2001년에는 0.17%이었다. 그리스는 Hellenic Aid라는 체제 하에 외교부의 각종 원조프로그램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령에 따라 외교부 내에 국제경제관계 및 개발협력 사무총국을 신설하였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그리스 개발협력은 파트너십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개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수원국에게 있고, 공여국은 수원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형성한 수원국 개발전략 상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수원국의 필요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그리고 수원국 역량강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는 주요 수원국과 중기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동 협약은 그리스의 개발원조를 수원국측의 개발계획에 통합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그리스는 빈곤감소가 개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002년 이래 그리스의 원조 활동은 빈곤감소와 MDGs 달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스는 이라크, 여타 중동지역, 아프가니스탄 및 최빈국에 대한 ODA를 점진적으로 증대할 계획이다.

정책일관성. 그리스는 빈곤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부국들이 빈곤국들의 개발노력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스는 그러한 정책의 비일관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절차 및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개발의 정책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과 측정. 개발원조의 모니터링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그리스가 발칸지역 주요 양자간원조 수원국들과 체결한 6개 개발협력 협약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수원국에서 개선된 사항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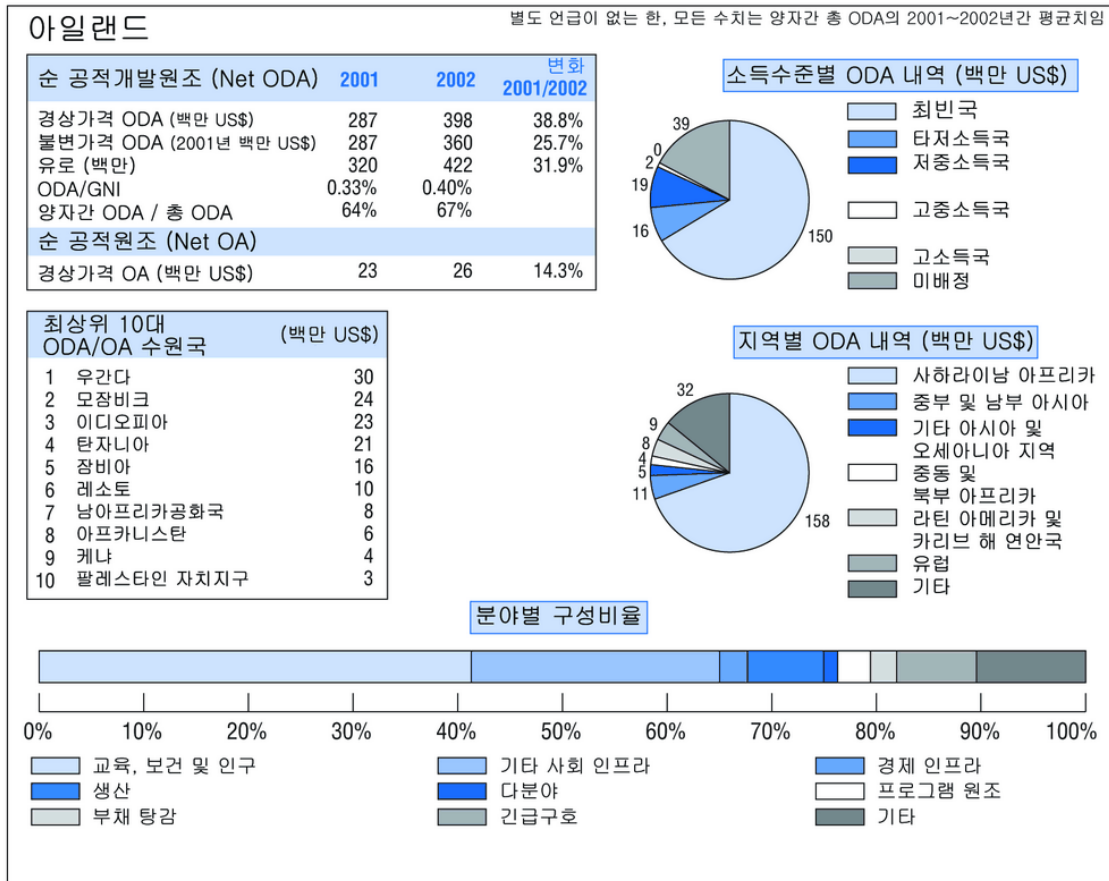
아일랜드의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도에 398백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1년 대비 실질증가율이 26%였음을 의미한다. ODA/GNI 비율은 2001년 0.33%에서 2002년에는 0.40%로 상승하였다. 아일랜드는 2007년까지 ODA 규모를 UN 목표치인 0.7%를 달성할 것임을 공약하고 있다. 2003년에 아일랜드는 ‘쌍방향협력(two-way “co-operative”)’이라는 원조활동의 본질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공적원조 담당기관 명칭을 "Development Co-operation Ireland(DCI)"로 변경하였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파트너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ODA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는 이 파트너십 원칙을 수원국, 국제 원조기구 및 국내외 NGO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 최근 DCI는 이러한 다양한 파트너들에 대한 다년간 자금지원 약속을 포함한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 감소는 여전히 DCI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목표이다. DCI는 모든 사업 수행시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빈곤감소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DCI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DCI 프로그램 협력 국가 6개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HIV/AIDS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일관성. 개발 관련 정책일관성은 효과적인 개발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일관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어려운 정책 결정이 수반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여러 의제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요구될 때, 개발의 측면을 분명히 부각시키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큰 가중치를 줌으로써 정책일관성을 달성코자 노력하고 있다.

성과평가. DCI는 성과지향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원조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기 위한 능력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과 MDGs 달성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시키고 있다.



Box. 4.3 아일랜드에 대한 DAC 동료평가 (2003.11.17)

평가자: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의 ODA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그 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3년과 2004년도에 개발원조 예산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UN이 설정한 ODA/GNI 비율 0.7% 목표를 2007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간 현재의 ODA 규모를 2배 이상 증가시켜야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중간규모 원조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만큼, 그에 걸맞은 입장에서 어떻게 10억 달러 규모의 ODA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실행할 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DCI 프로그램은 빈곤감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파트너십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의 ODA 정책과 차별화 된다. 2001년 아일랜드는 전체 ODA의 절반을 최빈국들에게 원조했으며 이는 22개 DAC회원국들 중 비율 측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장기간 아일랜드의 핵심사업분야였던 보건 및 교육부문은 HIV/AIDS 퇴치노력으로 한층 보장되고 있는데, HIV/AIDS는 DCI의 주요 사업 대상국인 사하라이남 6국에 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병이다. 본 동료평가를 위해 탄자니아를 현지 방문한 결과, 아일랜드는 탄자니아에서 헌신적인 개발원조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일랜드는 주요 양자간 협력이 7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적 관점을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수원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는 1999년 동료평가에서 지적된 인력문제를 해결했으나 ODA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DCI 직원 충원, 전문성 강화 및 개발관리기법 향상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 외교부내에서도 외교관들의 경력관리에 있어서 개발원조분야가 중점이 두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1999년 동료평가 이후 아일랜드가 이룬 성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DAC는 다음의 사항들을 아일랜드에 권고하였다.

- DCI의 비전,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과 주인의식을 높여 ODA/GNI 비율 0.7%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ODA 배분에 관한 다년도 예산협정(multi-annual agreement)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향후 빠르게 진행될 ODA 확장경로를 예측가능토록 하는 한편, DCI가 수원국, UN 원조기관, 아일랜드 개발 NGO들과 체결하는 이러한 다년도 예산협정을 통하여 원조성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 NGO들과 함께 더욱 전략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HIV/AIDS 및 환경과 같은 공통 이슈들을 주류화시키며 NGO파트너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회계감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장려해야 한다.
-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긴급원조와 재건원조(emergency and recovery assistance)를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고용하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HIV/AIDS 사업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HIV/AIDS 사업을 주류화 시키고자 하는 DCI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4년 전략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 할 때,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access-to-treatment 프로그램에서 여성, 인권 및 형평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DCI는 HIV/AIDS 퇴치사업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 정부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DCI 내에 정책일관성을 평가할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ODA 규모는 2002년 전년대비 33% 증가하여 23억 달러 수준이며, ODA/GNI 비율은 0.20%이다. 이탈리아는 또한 중채무빈곤국(HIPC)들과 12개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부채탕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이탈리아의 개발협력 정책은 수원국과 이탈리아의 원조 파트너들(정부, 민간부문, NGO 및 대학)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국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 사무소를 증설하고 있으나, 인력, 조직적인 지원, 재량권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감소는 이탈리아 개발협력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탈리아는 MDGs와 관련한 빈곤감소 정책의 내용과 접근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이탈리아는 동 정책에서 직접적인 자원배분 방법과 부채청산(debt-swap) 등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원국 측이 수립한 빈곤감소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특히 보건, 식량안보, 교육, 민간부문지원, 소규모 신용 및 무역 등 몇 가지 선별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일관성. 이탈리아 외무부, 통상부 그리고 재무부는 정례적으로 협의를 할 뿐만 아니라 특별 정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상호공조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위의 3개 부처를 포괄하는 개발협력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성과평가. 평가반이 기관장(Director-General)에게 직접 보고 한다. 현재 평가 피드백의 질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조치에는 이전보다 개선된 성과 평가기획 및 수행 지침이 포함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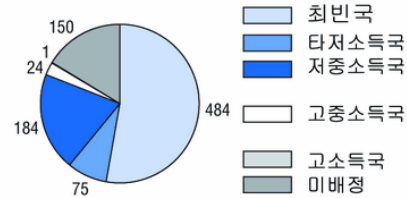
이탈리아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수치는 양자간 총 ODA의 2001~2002년간 평균치임

순 공적개발원조 (Net ODA)	2001	2002	변화 2001/2002
경상가격 ODA (백만 US\$)	1 627	2 332	43.3%
불변가격 ODA (2001년 백만 US\$)	1 627	2 157	32.6%
유로 (백만)	1 817	2 475	36.2%
ODA/GNI	0.15%	0.20%	
양자간 ODA / 총 ODA	27%	43%	
순 공적원조 (Net OA)			
경상가격 OA (백만 US\$)	281	..	

최상위 10대 ODA/OA 수원국 (백만 US\$)	
1 모잠비크	230
2 탄자니아	67
3 에리트레아	33
4 튀니지	32
5 이디오피아	32
6 아프카니스탄	25
7 알바니아	24
8 카메룬	23
9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19
10 소말리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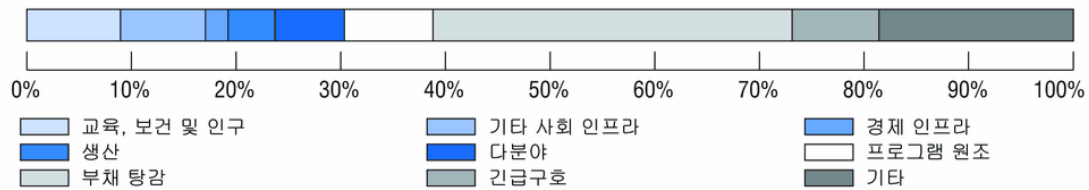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ODA 내역 (백만 US\$)



지역별 ODA 내역 (백만 US\$)



분야별 구성비율



일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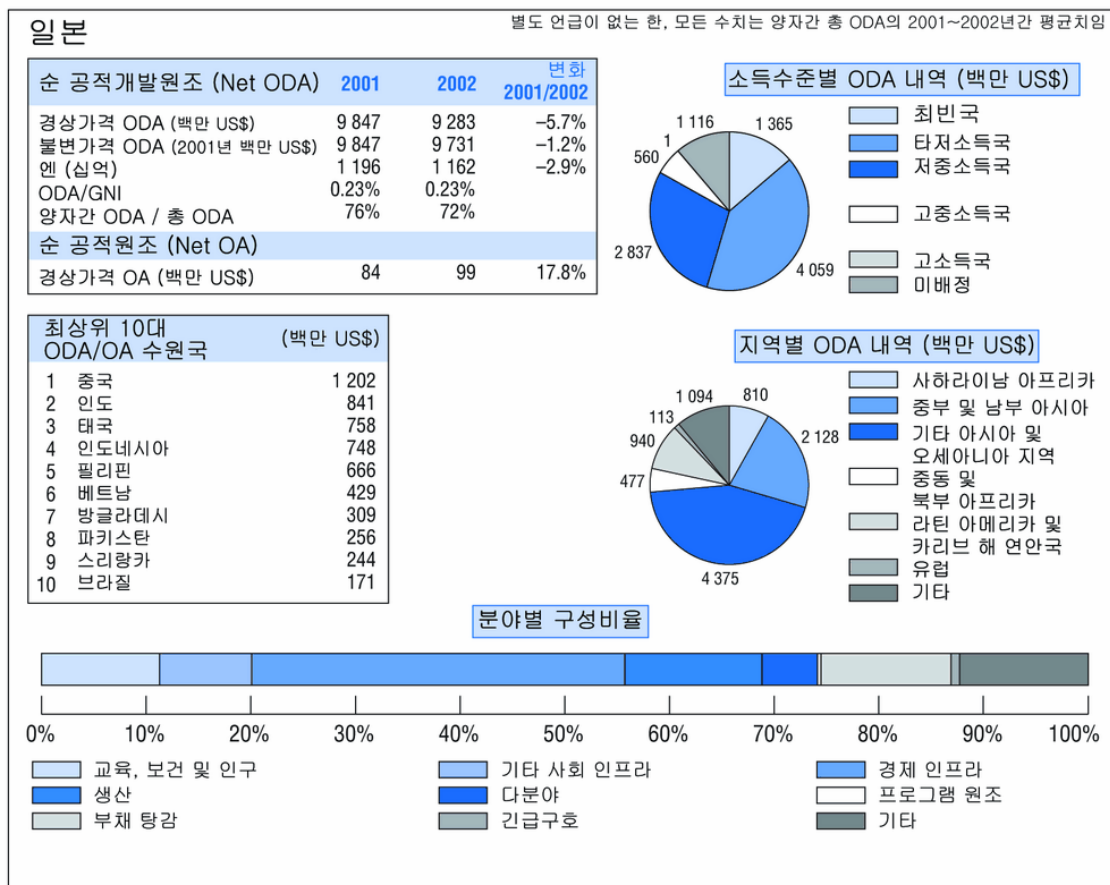
2002년에 일본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양자간 원조 공여국이었다. ODA규모는 93억 달러인데, ODA/GNI 비율은 0.23%로서 22개의 DAC 회원국 중 18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자국내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2003년도에 추가로 ODA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파트너쉽 접근방법. 2003년도 ODA 헌장(ODA charter)에서 파트너쉽을 일본 개발협력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제공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타공여국 및 수원국들과 공동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원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와 IDEA(Initiative for Development in East Asia)라는 개발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 일본은 파트너들과의 현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정책 집행에 있어서 현지사무소에의 권한이양을 시도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2003년도 ODA 헌장에 따르면 빈곤감소는 일본 ODA 전략의 4대 선결 이슈 중 하나이다. 개발원조사업에서 빈곤감소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프로젝트 차원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기초교육(BEGIN-Basic Education for Growth Initiative), 식수(Initiative for Japan's ODA on water) 그리고 전염병 예방과 치료(Okinawa Infectious Diseases Initiative)등에 관한 개발원조 전략이 포함된다. 일본은 다수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또한 효과적으로 빈곤감소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다.

정책일관성. 2003년 일본은 최빈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조건을 완화하였다. 개선된 일본의 GSP는, 47개 최빈국을 대상으로 436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항목을 포함한 2,287개의 상품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불법 벌목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제 환경보호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 일본 내 ODA 관련 기관들의 조정에 관한 제도정비를 통해 정책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

성과평가. 일본 정부는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ODA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일반대중들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ODA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고려하여, 개발원조 평가시스템을 개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평가기법의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Box. 4.4. 일본에 대한 DAC 동료심사 (2003.12.12)

평가자: 유럽연합(EC), 미국

2003년 동료심사는 일본의 개발원조 전략 및 관리에서 일련의 긍정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이 자국의 ODA 현장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발전략의 우선순위에 변화된 국내외 현실을 반영한 빈곤감소, 지속가능 성장, 범지구적 이슈와 평화구축 문제 등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일본은 자국의 양대 핵심 원조집행기관에도 변화를 시도했다. 2003년에 일본의 기술협력 기관인 JICA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켜 동 기관을 더욱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켰으며, 1999년에는 기존의 2개 유상원조 기관을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으로 합병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외무성은 다양하고 때로는 융화적이지 못한 ODA 집행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와 같이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일본은 원조와 관련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하여 원조자원을 분배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순 ODA 규모는 2002년 93억 달러였으며, 이는 세계 2위 수준이다. 일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10여년간 세계최대의 개발원조 공여국이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ODA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다. 일본의 2002년도 ODA/GNI 비율은 0.23%로서, 이는 1991-92년 기간동안의 0.31%보다 감소한 것이다. 몬테레이 회의에서 일본은 ODA 규모 증액을 서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DAC 동료 평가에서 일본에 대한 주요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ODA 현장의 집행에 있어 ODA의 주목적은 수원국의 발전인 바, 공여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목적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또한 ODA 현장의 지침(directions)에 의거, 기초보건,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 수원국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원조사업을 보다 균형 있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DAC는 일본이 빈곤국가 및 개별국가 내의 빈곤층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료한 정책 개발을 권고하였다.
- 일본은 경기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 확보를 통한 ODA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며, 정책일관성

이슈에 관해 국민을 계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해외직접투자와 지역협력협정 등으로 인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차원의 영향을 모니터링 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공통 이슈(crosscutting issues)들을 개별부문의 일부로 다루기보다는 개발의 주류 문제로 다루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빈곤감소는 MDGs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일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도적으로 볼 때 일본은 원조수단 중심(instrument-based) 협력 시스템에서 수원국 중심(country-based)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원국 별 독립예산(country budget envelopes)을 편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무상원조관리를 JICA에 이양하고, 정부의 역량을 전략, 정책개발, 시스템조정 등에 집중시켜야 한다. 끝으로, 베트남이나 탄자니아에서의 경우처럼 더 광범위하게 권한의 현장 이양을 지속하며 특정국가에서의 모든 인력, 자원, 전략을 이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일본의 개발원조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더 많은 개발협력 담당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성공적인 권한분산을 위해 더욱 시급하다. 개발원조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ODA 인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 인력정책에는 개발사업 담당직원의 수준과 기술에 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 일본은 ‘ 최빈국에 대한 ODA 언타이드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의 정신을 존중하여 DAC와 공동으로 무상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위한 점진적이고도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룩셈부르크

2002년도의 룩셈부르크의 ODA는 2001년보다 약간 상승하여 1억4천7백만 달러 수준이었다. ODA/GNI 비율은 0.76%에서 0.77%로 증가했다. 룩셈부르크는 2005년경에 동 비율을 1% 수준까지 올리기로 약속하였다. 룩셈부르크의 ODA는 대부분이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에 투입되었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룩셈부르크의 원조는 협력프로그램의 지침에 근거하여 10개 우선순위 원조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 지침은 룩셈부르크의 협력사업이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와 보다 잘 일치되고 사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원조 관리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현지차원의 협력은 세네갈과 카보베르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 또한 우선지원국에 대한 “다자/양자 원조정책(multi-bi)”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감소와 지속가능개발은 룩셈부르크 원조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이다. 룩셈부르크는 MDGs 달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교육과 보건 관련 과제에 특별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책일관성. 룩셈부르크는 정책일관성 유지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인간 얼굴을 가진(with a human face)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개발원조의 대부분은 언타이드 원조이며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원국의 현지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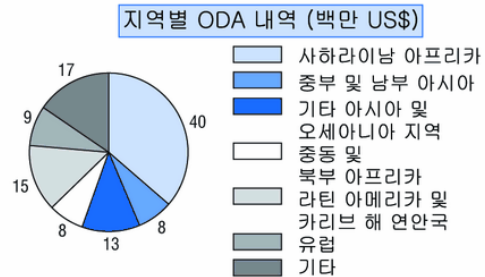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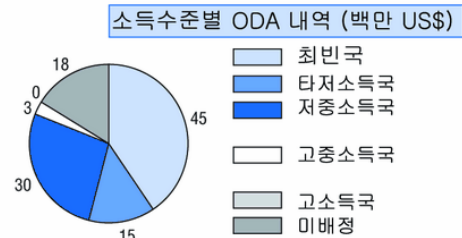
성과평가. 정부보조를 받는 NGO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개발원조 전반을 다루는 “평가 및 감사팀”이 설립되었다.

룩셈부르크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수치는 양자간 총 ODA의 2001~2002년간 평균치임

순 공적개발원조 (Net ODA)	2001	2002	변화 2001/2002
경상가격 ODA (백만 US\$)	139	147	5.6%
불변가격 ODA (2001년 백만 US\$)	139	139	0.2%
유로 (백만)	155	156	0.4%
ODA/GNI	0.76%	0.77%	
양자간 ODA / 총 ODA	77%	79%	
순 공적원조 (Net OA)			
경상가격 OA (백만 US\$)	9	10	15.4%

최상위 10대 ODA/OA 수원국	(백만 US\$)
1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7
2 카보베르데	7
3 엘살바도르	6
4 아프가니스탄	5
5 말리	5
6 부르키나파소	5
7 베트남	5
8 라오스	5
9 니카라과	4
10 나미비아	4



Box. 4.5. 룩셈부르크에 대한 DAC 동료심사 (2003.3.18)

평가자: 오스트리아, 그리스

2000년도에 룩셈부르크는 ODA/GNI 비율이 0.7%를 넘어선 국가그룹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지난 1998년 실시된 동료심사 이후 룩셈부르크의 ODA는 동년 9천9백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1억4천7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ODA/GNI 비율은 0.65%에서 0.77%로 상승하였다. 룩셈부르크의 ODA가 이렇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발협력에 대한 정치적, 대중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룩셈부르크의 ODA 자원은 명료하게 정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협력 분야에 배정된 정부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9년 이래로 정부는 ODA의 체계적 증액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구속력 있는 계획을 세워 왔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2005년까지 ODA/GNI 비율을 1%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DAC는 룩셈부르크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MDGs를 지원하기 위한 룩셈부르크의 빈곤감소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원조 대상국 중 절반 이상이 최빈국이며, ODA의 82%가 사회 인프라와 교육, 보건, 용수공급 및 위생과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원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조대상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원조프로그램을 수립하는 한편,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대한 DAC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속해서 한정된 국가에 개발원조를 집중하고 프로그램 접근방식과 연관시켜 개발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분야 선정 또한 각 대상국가 내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젝트의 수는 사업실시비용, 관리효율성 및 예상성과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룩셈부르크는 빈곤감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중소득 수원국들과의 협력을 재조정하여, 원조를 가장 가난한 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수원국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룩셈부르크는 여러 국제 포럼에서 개발도상국가의 이익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일관성은 정부 각 기관의 노력을 더욱 체계화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위해서는 외무부의 분석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개발협력 각료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의 임무를 확대하여 정책일관성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 내부의 개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개발협력관련 업무는 외무부 소관이다. 룩셈부르크 개발협력의 중점 분야와 관련하여 담당인원 확충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룩셈부르크는 현재 수원국 현지에 다수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현지에서의 개발원조 관리와 조정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도국의 개발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외무부와 개발원조 실행부서인 Lux-development간의 공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룩셈부르크와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은 빈곤감소와 성평등이라는 목표가 사업수행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2002년 ODA규모는 33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며, ODA/GNI 비율은 2001년도에 0.82%인데 비해 2002년에는 0.81%이다. 지리적으로 배분되는 네덜란드의 양자간 ODA는 최빈국들과 저소득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이남은 총 양자간 ODA의 45%를 차지하는 우선 원조 대상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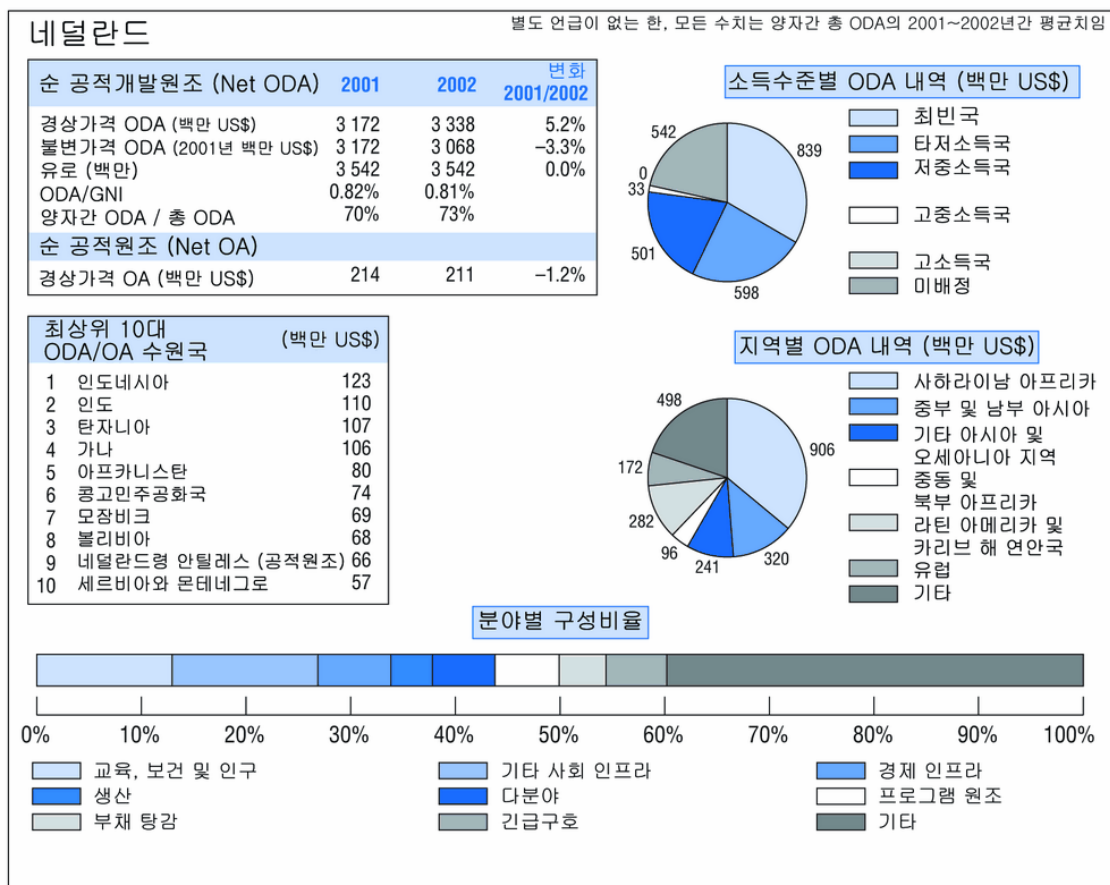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적격 수원국들과 개발원조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은 네덜란드 원조의 주요 특징이다. 최근 네덜란드는 원조대상국가를 36개로 감소시켜 원조를 더욱 전략적으로 집중화하고 있다. 원조대상국 선정은 투명한 선정기준과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분야별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관리능력을 갖춘 국가에 대한 원조를 선호한다. 네덜란드는 현지사무소에 대폭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다른 공여국과 원조조정을 통한 사업수행을 가능케 한다. 타공여국들과의 원조관행의 조화(harmonization)는 네덜란드의 원조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감소는 네덜란드의 외교정책 특히, 개발협력정책의 전반적인 목표이다. PRSP는 원조수행과 관련한 최우선적인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다. PRSP는 네덜란드 원조전략의 방향을 유도하고 사업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조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대화의 일차적 포럼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정책일관성. 네덜란드 내각은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일관성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한편, 국제회의시 정책일관성 문제를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2002년 정책일관성 이슈를 더욱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정책일관성 담당 부서를 창설했다. 네덜란드는 국제 포럼을 이용하여 정책일관성 이슈를 다루어 왔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유럽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평가. ‘네덜란드 정책 및 사업평가부(The Dutch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는 종합적인 개발원조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행정부서 차원에서의 학습과 의사결정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발은, 아직은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적 문제도 있다. 외교부 내에서는 새로운 부서(unit)가 설립되어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동 부서는 본격적으로 활동 중이다.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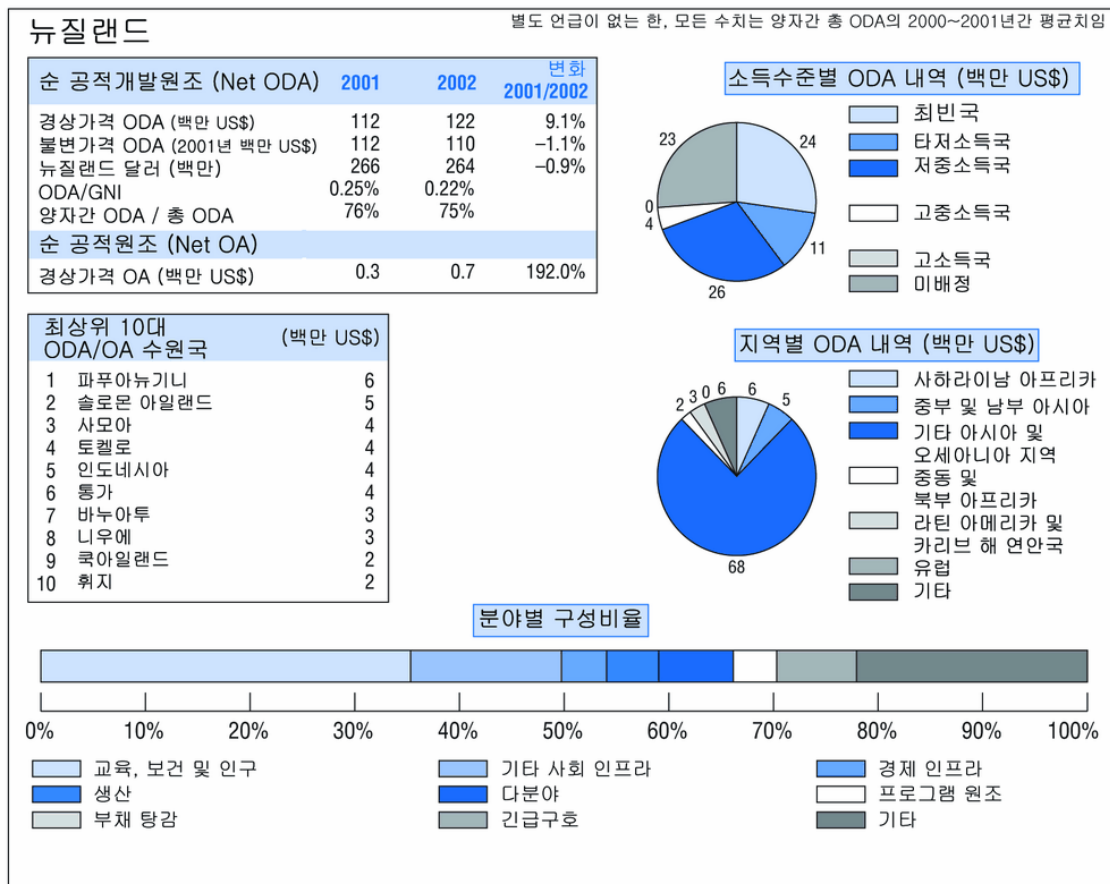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순 ODA는 2002년에 1억2천2백만 달러였는데, 이는 2001년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ODA/GNI 비율은 2001년 0.25%에서 2002년에는 0.22%로 떨어졌다. 2002년 7월에 설립된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은 사업을 조정하고 조직 개편과 인적 역량 개발 등 정책을 가다듬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NZAID의 기본 정책은 수원국 주도의 빈곤감소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수원국의 국가개발 전략을 뉴질랜드의 원조프로그램 수립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뉴질랜드의 ODA는 주로 태평양 연안 20개 핵심 수원국에 집중되고 있다. NZAID는 다자간 개발원조에 대하여도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지원하는 것보다 한정된 기관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원조 방법인 지를 검토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NZAID의 주요 관심사는 빈곤퇴치에 있다. 이를 위해, NZAID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극빈층에 집중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빈곤감소 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치(sustainable governance)와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상황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평등과 환경보전 원칙뿐 아니라 인권문제 또한 NZAID 원조정책의 모든 분야에 반영되고 있다.

정책일관성. 올바른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촉진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및 공공부문 관련 정책, 그리고 통상정책을 통한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뉴질랜드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다. 아·태지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 안보, 그리고 정치·경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전체 차원의 전략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과평가. 평가방법 개발은 NZAID 내부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잡아나가기 위한 넓은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NZAID의 최우선순위 중의 하나이다. NZAID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기본전략 개발을 계획 중이다.



노르웨이

2002년 노르웨이의 ODA는 실질가치로 13% 증가한 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ODA/GNI 비율은 0.89%이다. 노르웨이는 ODA 규모를 GNI 대비 1%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최빈국 7개국에 중점 지원되고 있는데, 대체로 노르웨이의 ODA는 저소득국가 및 최빈국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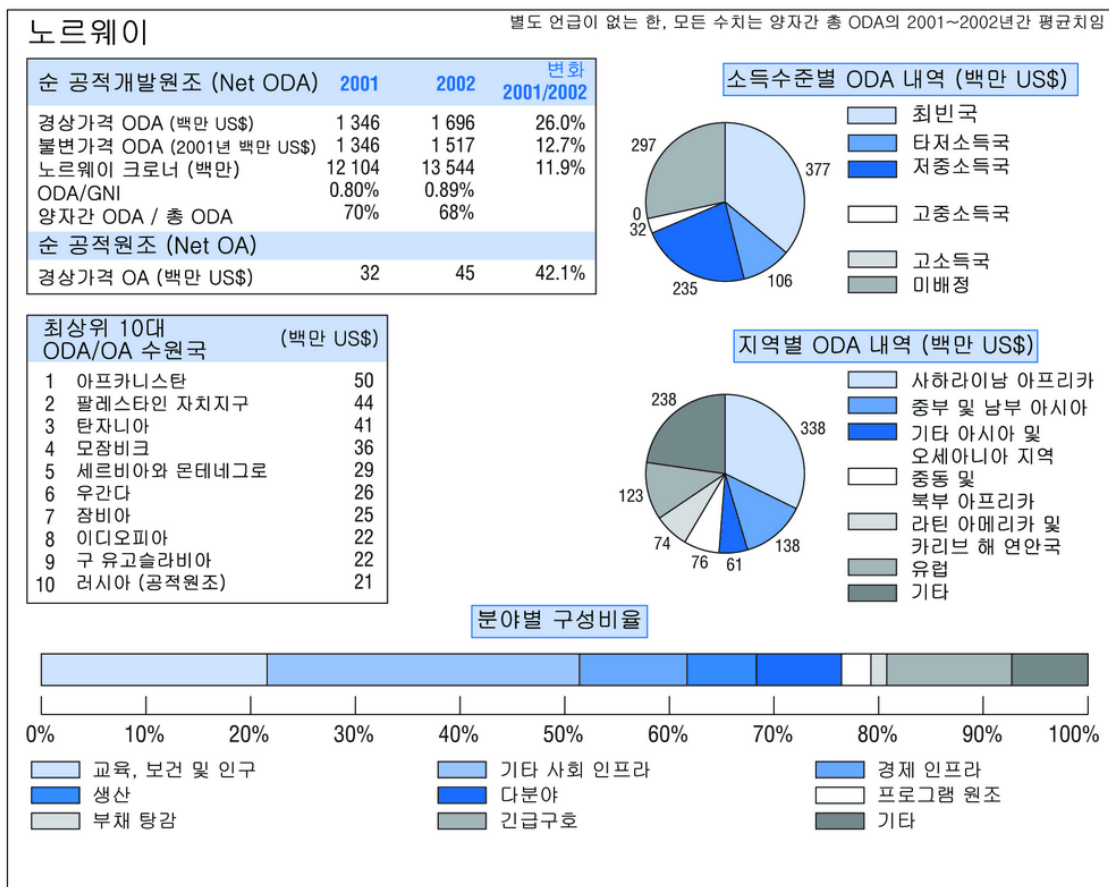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노르웨이는 공여국들의 원조관행과 공여절차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DAC와 기타 개발원조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는 수원국들이 스스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리더십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감소는 노르웨이 개발 협력의 주요 목표로서, MDGs의 달성은 빈곤감소 목표의 실현 과정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benchmark)로 삼고 있다. 노르웨이의 “ 남반구에서의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활동계획 2002(2002 Action Plan for Combating Poverty in the South)”에는 수원국의 빈곤감소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타나 있다.

정책일관성. 노르웨이는 제반 정부활동에 대한 정책이 개발정책 목표와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 평가하고 있다. 정책일관성 개선의 목표는 무역, 에너지, 농수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일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도국에서 노르웨이가 빈곤과의 싸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노르웨이는 또한 다양한 국제적 정책 이니셔티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이니셔티브는 OECD 국가들이 개도국의 빈곤감소 지원 정책에 있어서 정책일관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MDGs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성과평가. 노르웨이는 NGO, 민간부문, 연구소, 대학, 언론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 국제개발정책의 결과에 대한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ul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를 설립했다. 동 위원회는 개발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조성과, 원조의 질, 그리고 원조의 현대화 등의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르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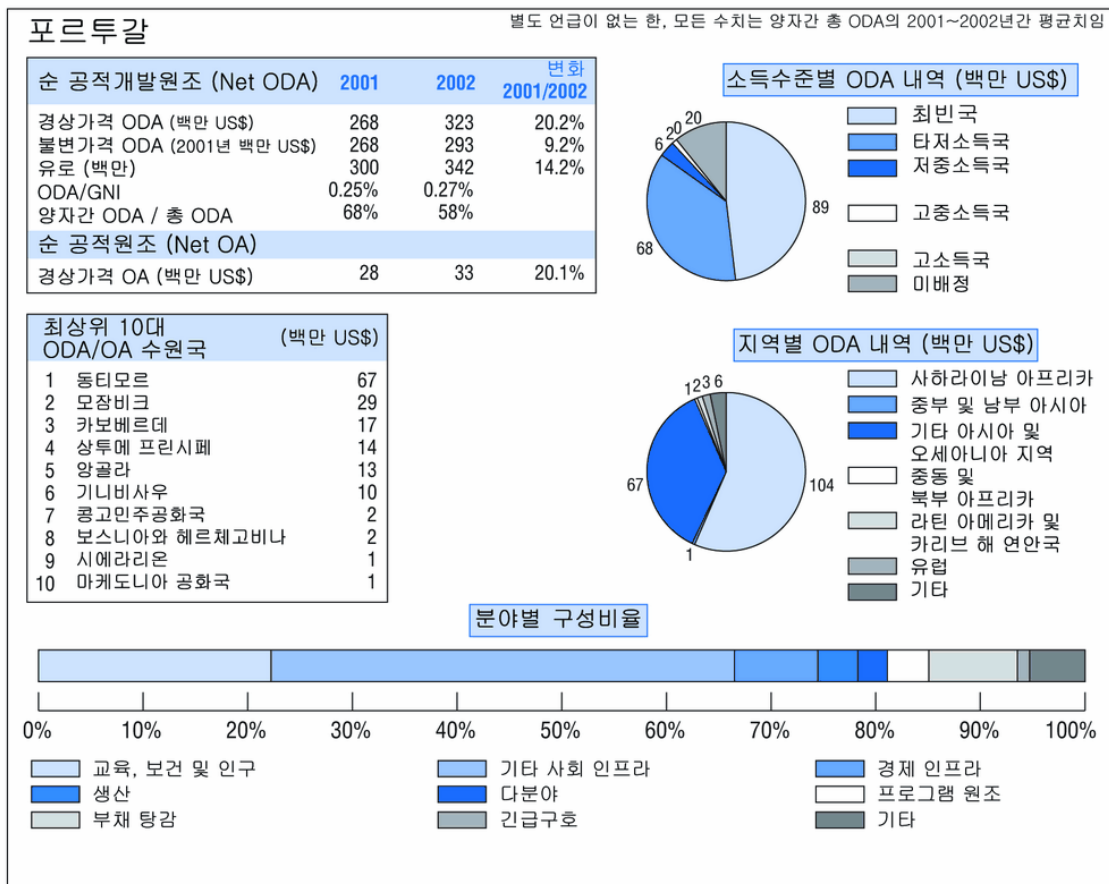
2002년 포르투갈의 ODA는 3억2300만 달러로 ODA/GNI 비율은 0.27%를 기록했다. 2001년 ODA/GNI 비율은 0.25% 였다.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은 2006년까지 ODA/GNI 비율을 0.3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포르투갈의 개발원조는 자국원조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수원국들의 개발 우선순위를 중요시하는 한편 수원국과 공동으로 개발 수요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을 존중하면서 수원국과 함께 3년마다 “기본 협력 프로그램 (Indicative Co-operation Programme)” 을 수립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과거 자국 식민지였던 국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동티모르(Timor-Leste)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동 국가는 1999년 이후 포르투갈 ODA의 주요 수원국이 되었다. 빈곤감소는 포르투갈 개발협력 사업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모든 원조사업의 공통 이슈이다. 포르투갈은 빈곤감소 전략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중채무빈국에 대한 채무경감 노력(HIPC Initiative)에도 참여중이다. 포르투갈은 자급자족도와 식량안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건강, 농업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동시에, 수원국 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개선에도 포르투갈 ODA의 일부가 투입되고 있다.

정책일관성. 포르투갈은 다양한 정부 부처간 공조 메커니즘을 확립해 왔는데, “부처간 협력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Co-operation)”와 사무국은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개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개발협력정책 관계 부처간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성과평가. 포르투갈은 지속적으로 개발원조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이러한 평가시스템 개선은 외부기관의 독립적인 원조정책수행평가, 그리고 평가절차 지침서나 개발협력 용어집과 같이 개발원조의 방법론과 관련된 자료의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인

2002년 스페인의 ODA는 전년도에 비해 10% 하락한 17억 달러였다. ODA/GNI 비율은 0.30%에서 0.26%로 떨어졌다. 2001년 스페인의 ODA를 전년대비 44% 증가시킨 원인이었던 3억7400만 달러에 달한 예외적인 대 니카라과 부채 탕감분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ODA/GNI 비율은 0.23%에서 0.26%로 증가했다. 스페인 ODA는 남아메리카 국가에 큰 비율이 할당되는데, 결과적으로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income countries)에 대한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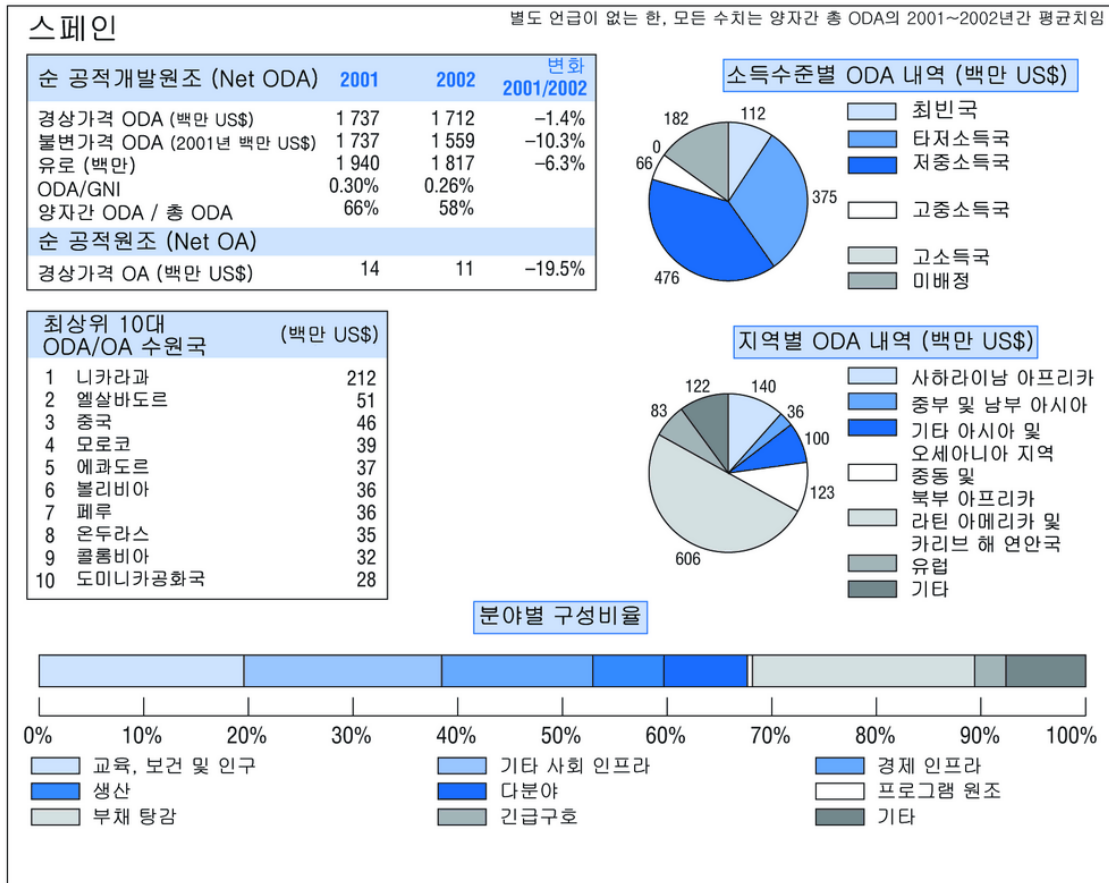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 협력에 관한 마스터플랜 2001-2004(Master Plan for the Spanish Co-operation 2001-2004)"을 채택한 스페인은 분야별 전략뿐 아니라 지역별/국별 원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원조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스페인의 개발협력은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있는바, 특히 NGO와 더불어 자치 지역정부에 의해 동원되는 개발원조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협력에 관한 마스터플랜(The Master Plan)은 MDGs의 달성과 함께 빈곤감소를 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 동 마스터플랜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스페인의 ODA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빈곤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특히 교육이나 식수공급 및 하수처리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 정부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농업 그리고 소액금융 등이 원조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다.

정책일관성. 스페인은 개발원조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는바,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특히 이민과 같은 이슈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DAC 권고안에 의거, 최빈국에 대한 스페인의 ODA는 2002년 1월 이후부터 언타이드 원조로 제공되고 있다.

성과평가. 상기 마스터플랜은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의 2002년 순 ODA는 GNI의 0.83%인 20억 달러로, 0.77%였던 2001년에 비해 늘어났다. 정부는 2006년까지 GNI의 1%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발 협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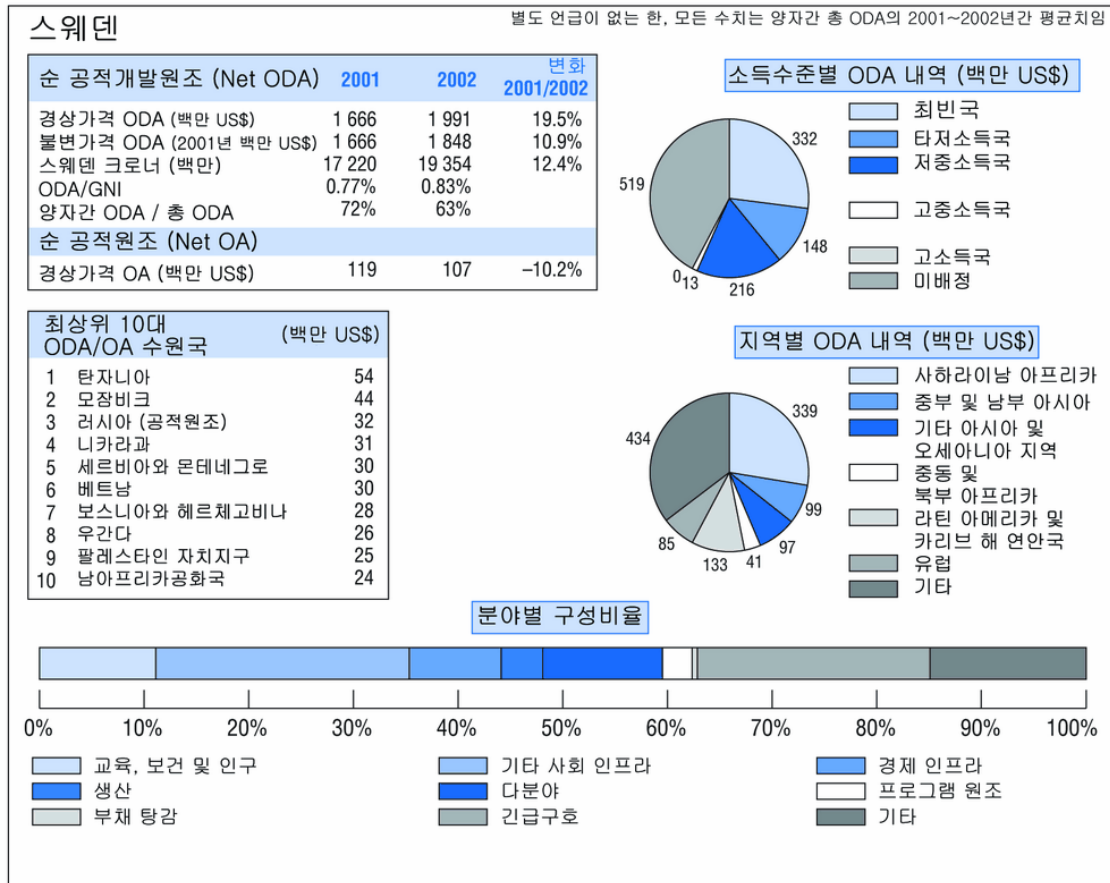
정책일관성. 스웨덴 정부는 개발원조만으로는 세계의 빈곤을 뿌리 뽑지 못하며 스웨덴 국내 정책이 종종 빈곤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정책(무역, 농업, 환경, 안보, 이민, 경제정책 등)에 개발이라는 이슈를 반영시킬 필요를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빈곤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적 도구를 동원할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정부부처는 지구촌 개발을 위해 스웨덴 정부가 설정한 제반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관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쉽 접근방법. 스웨덴은 파트너쉽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분야별 접근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공여국간 원조조정과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감소는 지구촌 개발을 위한 스웨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 최빈국에 대한 양자간 원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의 빈곤감소 접근방식은 주로 개인에 대한 원조를 집중 시행하는 것으로, 인권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평가. 스웨덴은 탄탄하고 잘 짜여진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개발원조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MDGs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왔다. 동시에 스웨덴은 자국의 원조 프로그램의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목표(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를 수립함으로써

MDGs를 보완하고 있다.



스위스

2002년 스위스의 ODA/GNI 비율은 2001년의 0.34%에서 0.32%로 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9억3900만 달러이다. 스위스는 2010년까지 동 비율을 0.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자간 원조는 주로 저소득 국가 및 최빈국에 집중되어 있다.

파트너십 접근방법. 스위스의 경우, 지역 사무소가 책임 있게 정책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선별된 수원국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구체적인 방식이 미흡하고 수원국의 경영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이 있긴 하지만, 스위스는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모잠비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섹터별 접근법을 시행 중이다.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스위스가 여러 국제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역할로 인해 지출하고 있는 다자간 출연금은 스위스 총 ODA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빈곤감소 정책. 개발협력의 근본적인 목표로서 빈곤감소 문제가 다시 강조되면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원조 프로그램에서 빈곤감소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지원을 주류화하기 위해 제도상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일관성. 정책일관성의 향상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스위스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목표들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원조는 이미 2001년의 DAC 권고안(DAC Recommendation)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언타이드 원조로 제공되었다.

성과평가. 새로운 원조전략에 따른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성과지향적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성과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MDGs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되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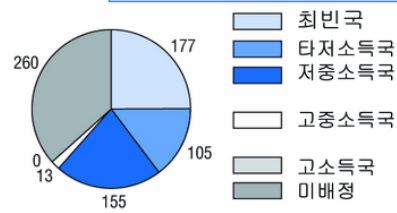
스위스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수치는 양자간 총 ODA의 2001~2002년간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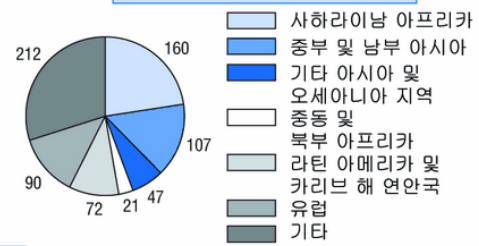
순 공적개발원조 (Net ODA)	2001	2002	변화 2001/2002
경상가격 ODA (백만 US\$)	908	939	3.4%
불변가격 ODA (2001년 백만 US\$)	908	863	-5.0%
스위스 프랑 (백만)	1 532	1 462	-4.6%
ODA/GNI	0.34%	0.32%	
양자간 ODA / 총 ODA	71%	81%	
순 공적원조 (Net OA)			
경상가격 OA (백만 US\$)	63	66	5.0%

최상위 10대 ODA/OA 수원국 (백만 US\$)	
1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29
2 인도	23
3 모잠비크	23
4 탄자니아	18
5 구 유고슬라비아	17
6 부르키나파소	14
7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14
8 네팔	13
9 방글라데시	13
10 볼리비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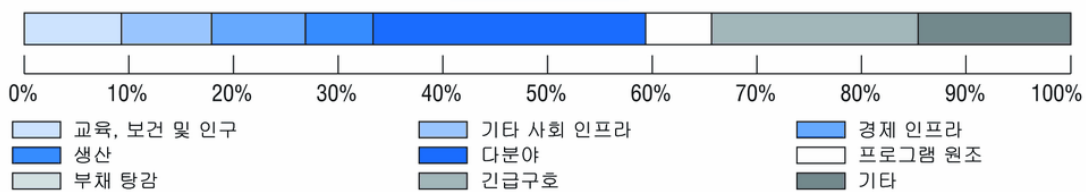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ODA 내역 (백만 US\$)



지역별 ODA 내역 (백만 US\$)



분야별 구성비율



영 국

2002년 영국의 ODA는 49억 달러로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ODA/GNI 비율은 2001년의 0.32%에서 약간 감소한 0.31%이다. 영국은 2005년까지 동 비율을 0.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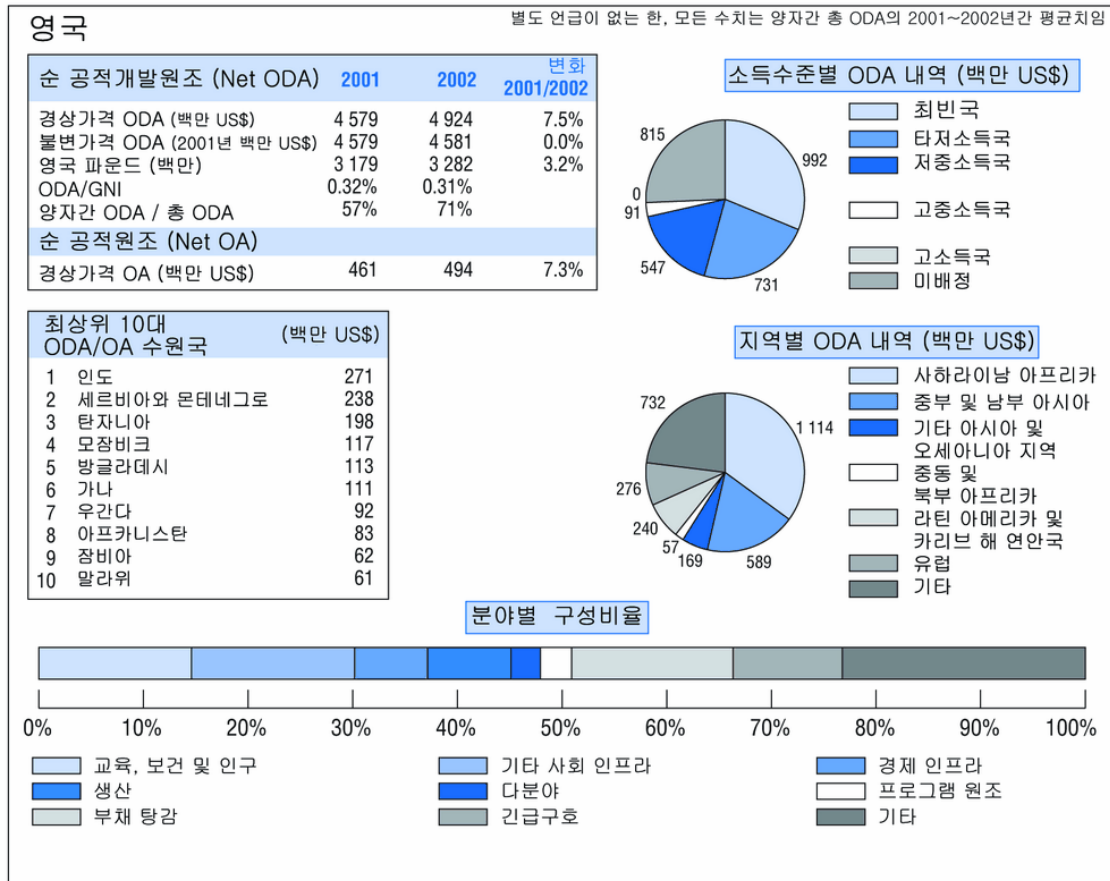
파트너쉽 접근방법. 영국은 파트너쉽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이다.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수원국에 더 많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회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G7, DAC, EU, 기타 다자간 포럼 등에서 개발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빈곤감소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DFID는 개발전략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다른 공여국들에게 저소득 국가에 원조를 집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DFID는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 중인데, 여기에는 빈곤친화적(pro-poor)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분야가 포함된다. DFID는 빈곤감소 전략과 분야별 접근법을 장려해 왔으며, 예산 지원 메커니즘 또한 발전시켜 왔다.

정책일관성. 영국은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일관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책일관성의 실천을 위해 DFID는 무역, 분쟁억제, 부채, 환경, 아동 노동 등의 다양한 이슈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성과평가. DFID는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나 개발원조 공동평가를 통해 이전보다 결과 중심적 접근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MDGs는 DFID의 중요한 참고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DFID의 “공공 서비스 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및 이를 위한 세부적인 “서비스 인도협정(Service Delivery

Agreement)"은 단기적으로 DFID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 국

2002년 미국의 ODA는 2001년에 비해 15%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ODA 절대 규모로는 DA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ODA/GNI 비율은 0.13%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DAC 회원국들 가운데서 가장 낮다. 2002년 초, 미국은 2006년까지 50억 달러를 증액하겠다는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양자간 ODA는 대체로 저중소득국가(54%)에 배정되는데, 그 원조방식은 주로 무상원조 형식이며, 지리적으로는 전 세계의 개도국 지역에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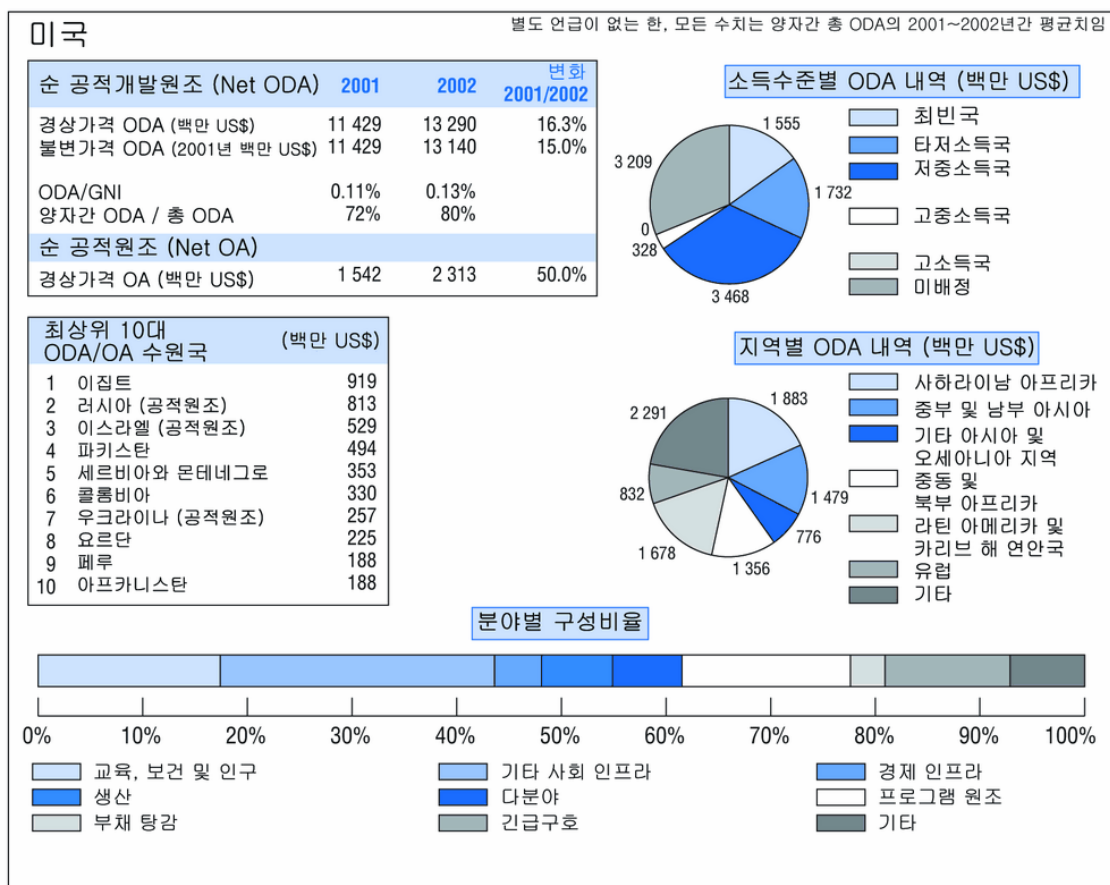
파트너십 접근방법. 2002년 발표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합의(New Compact for Development)”는 미국 내외의 개발원조 주체 담당기관 사이의 상호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수원국 현장의 기관들은 수원국과 협력함으로써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시키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USAID는 NGO, 재단, 학술기관, 기업 등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인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개발 동맹(Global Development Alliance)”을 발족시켰다. USAID는 HIV/AIDS 등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빈곤감소 정책. 미국은 2015년까지 절대 빈곤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USAID의 전략적 목표(경제성장, 농업과 무역, 범지구적 보건, 민주주의, 갈등예방, 인도적 지원 등)는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시에 미국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빈곤감소 목표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USAID는 “빈곤감소정책실(Office of Poverty Reduction)”이라는 명칭의 부서를 신설했다.

정책일관성. 해외 주재 미국대사들은 다양한 미국 정부기관 출신

직원으로 구성된 소위 “ Embassy Country Team”을 감독함으로써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조정을 실시한다. 미국정부는 개발협력에 종사하는 기관들 간의 조정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정업무가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미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일련의 고위급 정책 조정 위원회(Policy Co-ordination Committees)를 두어 정부 내부처간의 정책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개발원조 부문에도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성과평가. 1993년의 “ 정부성과 수행법(Government Results Performance Act)” 제정 이후 USAID는 정부 부처간 상호 조정된 개발원조의 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개발원조성과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새로운 MCA 프로그램은 사업성과에 기초한 결과를 운영상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Box 4.6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및 일본의 탄자니아 내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평가**

평가자: 벨기에, 덴마크, EC, 스위스, 미국

2003년 중반 DAC는 상기 4개 공여국이 최빈국의 하나인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원조사업에 대해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를 기초로 공동평가를 수행했다. 이 빈곤감소전략은 공여국의 사업수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데, 이 틀 내에는 공여국간 원조 조정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공여국은 빈곤감소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탄자니아와의 협력 파트너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지원, 분야별 접근, 프로젝트 역할, 기술지원 등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또한, 공여국들은 공여국간 정책 조정과 수원국의 주체적 정책결정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서로 달리 하고 있다.

2001년의 DAC 공동평가에서 얻었던 통찰을 바탕으로, 탄자니아에서의 원조 프로그램 공동평가는 공여국의 파트너십 접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었으며, 또한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현지의 주인의식을 고취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 평가는 원조와 관련한 4개 주요 부문에 대한 관찰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국별 개발전략(country strategy), 원조 기관의 조직과 운영,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그리고 개발전략 실천에 대한 관찰이 그것이다. 상기 네 가지 부문을 통해 원조성공을 평가한다는 것은 금번 평가대상이었던 4개 공여국에게 ‘합의된 사실’이었고, 이 관찰 결과는 4개 공여국들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원조사업 수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다.

공동평가를 통해 4개국은 파트너십 접근법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여국별로 그 전략과 탄자니아의 정책을 융화시키는 문제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파트너십 접근법은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조직상의 요인, 예컨대 현지 사무소와 공여국 본부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공여국간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가 종종 힘들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탄자니아의 개발을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의 중요한 교훈으로는,

- 공여국의 국별 전략은 수원국의 정책적인 틀과 충분히 조율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정책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사업성과와 주인의식을 모니터링하는 공동의 지침들을 확보할 수 있다.
- 공여국은 파트너십 요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여국은 어느 정도의 실험(experimentation)을 용인하여야 한다.
- 정책 대화와 개발수행 과정에서 공여국은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 또한,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용한 기간’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위한 방문의 자제)을 갖게 하는 등 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DAC 비회원국의 개발원조 현황

다음은 OECD/DAC 비회원국의 원조 내역이다. 한국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조동향" 란을 만들 수 있었다.

체코공화국

체코의 ODA는 2002년 44%의 실질증가율을 기록하여 4,5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ODA/GNI 비율은 0.07% 수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코의 ODA는 양자간 개발 프로젝트, 장학금, 인도적 지원, 난민지원, 채무탕감, 그리고 전체 ODA의 31%를 차지하는 다자간 개발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양자간 원조는 무상공여의 형태로 집행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양자간 원조가 발칸반도, 동남아시아, 구소련 및 중미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체코의 개발협력은 1995년의 "대외원조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oreign Development Aid)", 그리고 뒤이어 확정된 "체코 개발원조개요서(Concept of Czech Development Aid)"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 개요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조관련 주요 목표, 지침, 그리고 원조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체코는 전체적인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EU와 OECD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고려하면서 개발원조를 추진하는 제도 및 절차를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한 가지 예는 바로 체코의 ODA에 대한 중기예산 전망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앞으로의 ODA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성장에 대한 확실성을 주는 것이었다. 체코는 또한 EC, UNDP, 캐나다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원조의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능력향상에 도움을 얻고 있다. 2002년 9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신흥 원조공여국에 대한 국제워크숍은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켰다.

2002년 체코는 몬테레이 국제개발재원회의,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등의 주요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체코는 제57차 UN회의의장국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헝가리

2001년 헝가리는 GNI의 0.027%에 해당하는 약 41억 HUF(미화 1,400만불)를 개발원조에 지원하였다. 동 예산은 여러 정부부처 및 기관의 보조금 지급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었다. 동 원조규모는 2002년 57억 HUF(미화 2,200만불)로 증가하여 ODA/GNI 비율은 0.035%로 증가하였다. 2003년의 ODA 규모는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헝가리는 2006년까지 ODA/GNI 비율을 0.1%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헝가리 정부는 2001년 7월, "헝가리의 새로운 개발협력에 대한 개요서"를 승인하고 채택하였다. 2002년 11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외무부내에 신설되었다.

2003년 6월 채택된 법령에 의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외교부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외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부처간 각료위원회(IMC: Interdepartmental Ministerial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2003년 7월 29일 동 IMC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베트남,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등 4개국을 원조 수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몽골,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이디오피아, 라오스, 예멘 등도 헝가리의 원조대상국이다.

헝가리의 주요 개발목표는 빈곤감소이다. 헝가리는 EU 가입과 동시에 EU가 설정한 개발협력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헝가리의 국제개발협력은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 예를 들면, 체제전환 과정에서 헝가리가 겪었던 경험의 전수, 보건, 교육, 농업, 그리고 환경보호에 특히 중점을 둔 수자원관리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9월 활동을 시작한 민간자문위원회는 전직대통령이 의장이며, NGO, NGI, 민간부문, 정당 등의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 예정인 헝가리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중기전략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2004년 초 채택될 예정이다.

아이슬란드

2002년 아이슬란드 ODA 규모는 미화 1,260만불로서 ODA/GNI 비율은 0.15%에 달한다. 양자간 원조규모는 2001년보다 약간 줄어든 미화 480만불이며, 다자간 원조규모는 2001년의 480만불보다 늘어난 미화 780만불이다.

외무부의 관할 하에 있는 개발원조 업무는 아이슬란드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이슬란드 국제개발청(ICEIDA: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은 외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양자간 개발원조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양자간 개발원조의 주요 수혜국으로는 남아프리카의 모잠비크, 말라위, 우간다, 나미비아 등이 있다. 양자간 원조의 대부분은 언타이드 원조이며 무상원조로만 이루어져 있다. 다자간 개발원조는 대부분 세계은행, UN, 노르딕개발기금(NDF: Nordic Development Fund) 등을 통해 집행된다.

아이슬란드 개발원조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997년 이래 아이슬란드는 보건, 교육, 양성평등에 관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부문 개발에 대한 양자간 원조를 늘려왔다.

아이슬란드는 또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서 개도국의 어업 및 재활용에너지 분야에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개의 UN대학 프로그램 즉, 지열학 과정 및 어업학 과정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아이슬란드 개발업무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가 2003년 9월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아이슬란드가 향후 원조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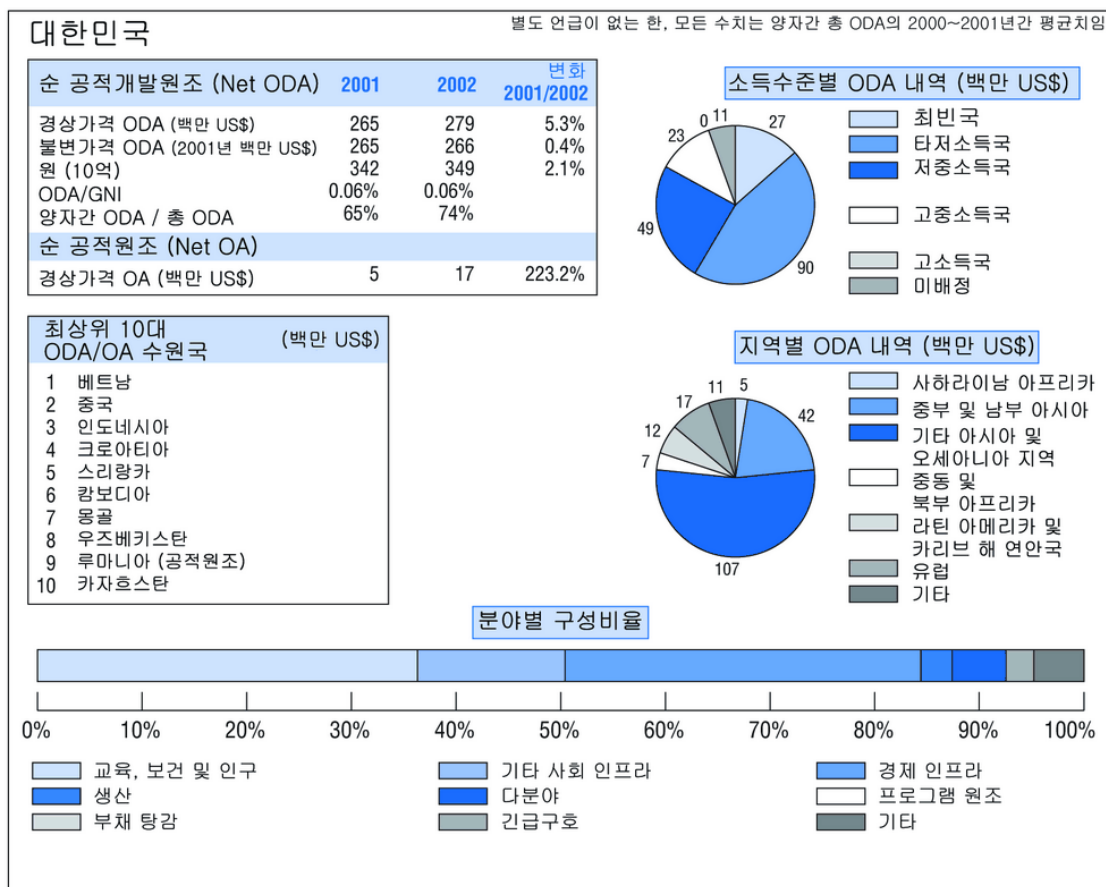
한국의 ODA 규모는 2001년 2억6,500만 달러에서 2002년 2억7,900만달러로 약간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다자간 ODA가 약간 줄었지만, 양자간 ODA는 2001년의 1억7,200만 달러에서 2억7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양허성차관이 13% 증가하고, 무상원조가 20% 증가함에 기인한 것이다. 다자간 ODA는 다자기구로부터의 대부금상환 증가로 2001년 9,300만 달러에서 2002년 7,2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양자간 ODA는 78%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지원되었다. 2002년 주요 지원분야로는 교통 및 통신(28%), 교육(27%), 보건(15%), 식수 및 위생(14%) 등이다.

한국의 ODA/GNI 비율은 0.06%로 낮은 편이지만, 조만간 동 비율을 0.1%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의 ODA 프로그램은 몇 가지 주요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개발원조는 인적자원개발 및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ODA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향상, 그리고 인권상황의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긴급구호의 확대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이다. 넷째, 한국은 환경, 양성평등, 빈곤감소 등의 광의의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의 국제개발협력은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며, 국내개발 노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자국의 경제개발 문제로 인해 멕시코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개발정도가 유사한 개도국간의 남남협력 체제에서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개도국의 이익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 국가는 특히 중미지역과 카리브해 연안국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사업은 멕시코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하여 수원국 고유의 문제 및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전문가,

공무원, 기술자가 참여하는 약 360개의 프로젝트가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분야로는 농업, 환경, 천연자원, 보건, 기술교육, 사회개발, 관광, 공공행정, 어업, 교통, 통신, 도시개발 등이 있다.

중앙아메리카지역과의 협력은 기술, 과학,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멕시코는 213개의 양자차원 프로젝트와 36개의 지역차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에게는 9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개의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육 분야 협력과 관련, 멕시코는 지속적으로 스페인어 교육을 지원하여 향후 역내 영어권 국가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 개발협력 원조를 제공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멕시코는 일본, 캐나다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합동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일본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캐나다와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서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동 3자 합동프로그램에서는 12개의 프로젝트가 농업, 환경, 천연자원, 어업 및 보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

2002년 폴란드의 ODA는 미화 1,430만불이며, ODA/GNI 비율은 0.008% 수준이다. 이 규모는 2001년의 미화 3,600만불에서 더 감소한 수치이다. 2002년 ODA가 줄어든 이유는 아시아 2개국과의 양허성차관 조약의 종료와 폴란드의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이다. 2002년 양자간 ODA는 890만불, 다자간 ODA는 540만불이었다. 그러나 DAC 원조수혜국 명단에서 제2부(Part II)에 속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OA)는 2001년 690만불에서 2002년 1,520만불로 증가하였다.

2002년 폴란드의 양자간 ODA는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몰도바 등의 소수 선별된 개도국에 지원되었다. 2002년 OA 주요 수혜국으로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외무부, 재정부, 교육부 등이 폴란드의 ODA와 OA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이들 부서는 주로 기술지원, 인도적 지원, 그리고 양허성 차관 등을 제공하였다.

"폴란드 개발협력전략서"는 개발정책의 주요 목표와 원칙, 그리고 대외원조제공과 관련한 제도적 메커니즘 및 절차 등을 정의하는 정부 문서로서, 현재 폴란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문서이다. 동 문서는 국가 원조정책에 있어서 외무부의 조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확립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U 가입을 위해 폴란드 외무부는 또한 OECD/DAC 및 EU의 규칙과 원칙, 그리고 모범관행 등을 폴란드의 법률체계에 도입하는 "개발협력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2002년 슬로바키아의 ODA 규모는 미화 670만불이고, ODA/GNI 비율은 0.024%로서 2001년의 0.042%에 비해 낮아졌다. 동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주로 정부의 재정감소 때문이었다(160만불 감소). GNI 증가 및 GNI 계산방법의 변화 또한 비율감소의 원인이었다. 양자간 원조는 총 ODA의 56%이고, 다자간 원조는 44%를 차지하였다. 양자간 원조의 72%(270만불)는 내무부 이민국에 의해 인도적 지원 부문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것은 이민국 외에 행정비용을 보고한 정부부서가 없었기 때문임.) 이와 함께 2002년 슬로바키아는 OA로 250만불을 지원하였다.

2003년 슬로바키아 ODA 지원체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외무부의 전반적인 책임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3년 6월 6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기 ODA 전략을 승인하였다. 동 전략에는 슬로바키아 개발원조의 주요 원칙, 목표 및 우선순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ODA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는 연간 국별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7월, 2003년에 예정된 연간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1억4,180만 SKK(미화 약 367만불)가 신규 프로젝트들을 위해 지원되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규 설립된 UNDP 신탁기금지원 형식의 다자간 ODA로 8,180만 SKK가 지출되었고,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에 지원한 양자간 ODA로 5,500만 SKK, 그리고 행정비용으로 500만 SKK 등이 지출되었다.

2002년 4월 슬로바키아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연간 프로그램을 위한 가용재원은 2011년 ODA/GNI 비율 0.125%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1억1,000만 SKK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 키

2002년 터키의 ODA는 미화 7,300만불로서, 2001년의 6,400만불보다 증가하였다. ODA/GNI 비율은 0.04%을 유지하였다. 터키의 공적원조(OA)는 2001년 4백만불에서 2002년 1,200만불로 현저하게 늘어났다. 터키의 원조는 모두 무상원조 형식이다. 양자간 지원은 터키 총 ODA의 37%로 증가하였는데, 기술협력이 양자간 ODA 및 OA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터키는 1985년부터 개발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부터는 ODA 공여액이 원조수혜액을 초과하여 순원조국이 되었다. 터키의 제8차 5개년계획(2001년~2005년)은 DAC 회원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된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은 모든 유관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계속될 것이다.

터키의 개발원조를 다루는 주요기관은 터키국제협력단(TICA: 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으로서 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기술협력 조직이다. TICA는 민간부문의 개발, 농업, 보건, 환경, 조세, 금융, 인프라, 입법,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통해 상대국의 제도적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TICA 협력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으로는 상대국의 국가, 사회, 문화적 가치존중, 수원국의 기존기술 활용,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동등한 책임 및 공동관리, 그리고 제도 및 인적자원에까지 우선순위를 확대시키는 것 등이다.

DAC 개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주요 양자간 원조공여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안을 조정하는 한편, 지속가능개발 지원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OECD의 핵심적인 토론의 장이다.

OECD 내에는 여러 주요 위원회가 있는데, DAC는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DAC는 여타 위원회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위원회에 비해 더 자주 회합을 가지며(1년에 15회 가량) 의장이 OECD 본부에 상주하고 있다. 둘째, DAC는 OECD 이사회뿐만 아니라, DAC 회원국에 대해 직접 구속력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 :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에 관한 권고). 셋째, 의장은 매년 DAC 회원국이 개발원조에 기울이는 노력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동 보고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하나의 참고기준이 되고 있다.

DAC는 매년 원조기관의 장, 또는 각료가 참가하는 고위급회의(HLM: High Level Meeting)를 개최한다. 또한 중견관리자회의(SLM: Senior Level Meeting)도 매년 위원회의 현안에 대한 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다. 일반적인 DAC 회의에는 DAC 회원국의 파리주재 대표단과 각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참석한다.

DAC의 사명(Mission)

DAC의 임무와 역할은 1961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DAC의 사명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호 조정되고, 통합적이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재정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DAC는 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개도국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이 세계경제에 참여하는 능력과 개도국 국민들이 기아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참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어떻게 국제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가에 그 역량을 집중한다. DAC의 기본적인 사명은 2002년 OECD 각료들이 발표한 "공동 개발의제를 위한 OECD의 행동(OECD Action for a Shared Development Agenda)"에 잘 정리되어 있다.

DAC의 임무와 역할(Mandate)
(준비위원회 보고서 Paragraph 14)

1960년 7월 23일자 각료이사회 결의(OECD(60)13)에 의해, 개발원조그룹(DAG)은 OECD의 창설과 함께 개발원조위원회(DAC)로 변경되며, 다음과 같은 임무와 역할(mandate)이 주어진다.

- a) 본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자원을 경제개발의 과정에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지원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 그리고 동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장기지원 자금과 기타 개발원조의 자금흐름을 확장,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 b) 본 위원회는 OECD 창설 당시 발족되었던 개발원조그룹(DAG)의 역할, 성격 및 회원국을 계승한다.
- c) 본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이사회와 DAC 회원국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무총장과 합의한 대로 사무국의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국가와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대표를 특정 회의에 초청한다.
- d) 개발원조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 OECD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 e) 본 위원회가 a)항에서 지정된 범위 이상으로 그 책임이 확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DAC 회원국이 아닌, 여타 OECD 회원국도 그 문제를 OECD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2003년도 DAC 대표자 명단
(2003년 12월 31일 현재)

□ DAC 의장실(Office of the DAC Chairman)

Mr. Richard Manning, DAC 의장 (영국)
Ms. Josie D'angelo, DAC 의장 비서

□ DAC 부의장

Mr. Daisuke MATSUNAGA (일본)
Ms. Pernilla JOSEFSSON (스웨덴)

□ DAC 상주대표

호주	Ms. Donelle WHEELER
오스트리아	Ms. Maria ROTHEISER-SCOTTI
벨기에	Mr. Martinus DESMET
캐나다	Mr. Pierre GIROUX
덴마크	Mr. Peter HERTEL RASMUSSEN
EC	Mr. Gilles FONTAINE
핀란드	Ms. Pirkko-Lissa KYOSTILA
프랑스	Mr. Dominique BOCQUET
독일	Mr. Eduard WESTREICHER
그리스	Mr. Dimitris SERRELIS
아일랜드	Ms. Anne-Marie CALLAN
이탈리아	Mr. Vincenzo DE LUCA
일본	Mr. Daisuke MATSUNAGA
룩셈부르크	Mr. Alain DE MUYSER
네덜란드	Mr. Jeroen VERHEUL
뉴질랜드	Mr. Brian WILSON
노르웨이	Ms. Birgit KLEVEN
포르투갈	Mr. Paulo NASCIMENTO
스페인	Mr. Jose Manuel ALBARES
스웨덴	Ms. Pernilla JOSEFSSON
스위스	Mr. Paul OBRIST
영국	Mr. David BENDOR
미국	Mr. George CARNER

□ DAC 비회원국 대표

체코공화국	Mr. Michal KAPLAN
헝가리	Mr. Gyorgy FEHER
한국	Mr. Hae-ryong KWON
멕시코	Mr. Noel GONZALEZ SEGURA
폴란드	Mr. Michal RUSINSKI
슬로바키아공화국	Mr. Juraj SYKORA
터키	Mr. Cingiz Kamil FIRAT

□ DAC 옵저버

세계은행	Ms. Dipa BAGAI
IMF	Ms. Sonia BRUNSCHWIG
UNDP	Mr. Luc FRANZONI

DAC의 주요 활동

DAC는 회원국이 개발협력 프로그램 실행에 지침이 되는 "정책 가이드라인과 참고사항(Guidelines and References)"을 채택한다. 이 가이드라인과 참고사항은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견해와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자기구 및 개도국 인사를 포함한 개발원조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2002-2003년간 DAC 가이드라인과 참고사항에 나타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공여국간 원조관행의 상호조화: 6편의 모범원조관행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2월 로마에서 열린 원조조화에 관한 고위급포럼(HLF: High Level Forum)에서 채택됨.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은 Box 3.6 참조)
- 테러방지에 관한 개발협력의 시각 - 행동을 위한 중요 출발점: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공여국의 대응책을 다루는 DAC 참고사항 문서로서 2003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됨.
- 빈곤과 보건: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저술한 DAC 참고사항 문서로서 수원국의 빈곤층을 위한 보건지원 접근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양자간 개발원조기관의 경험과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원조 성과를 토대로 작성됨.

DAC는 원조의 규모와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DAC 산하의 '원조효과성 및 원조공여국 관행에 관한 작업반(WP-EFF)'은 세계은행, IMF, UNDP, 아프리카 특별프로그램(SPA)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도 이 그룹의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수원국의 빈곤감소정책에 맞춘 원조관행 조화와 원조정책 조정 이슈,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체계, 그리고 개발과정 관련 이슈는 그 전체를 통합된 단일 의제로서 취급한다. WP-EFF는 오는 2005년 초 개최되는 차기 "원조조화에 대한 고위급포럼(HLF)"에서 상기 원조정책 조정과 원조조화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 3장에서 WP-EFF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한 DAC의 모든 보조기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역할과 임무(mandates) 및 주요 주제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DAC는 개발협력 전 분야에 걸쳐 회원국이 기울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상과 같이 DAC가 개발원조의 발전을 위해 추구하는 공동의 학습체계 및 개별 DAC 회원국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DAC 동료심사(peer reviews)”이다. 동 심사는 보통 4년 주기로 행해지며, 주로 검토하는 부분은 평가대상인 회원국의 원조 프로그램이 얼마나 DA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가, 원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회원국내 여타 정책과 개발목표간의 정책일관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자원의 규모와 배분에 있어서의 추세는 어떠한가 등이다. 2003년 동료심사 대상국은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등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 등은 2004년에 동료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모든 동료심사 보고서에는 체계적으로 개발에 대한 정책일관성을 다루는 장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DAC는 합동 수원국평가보고서(Joint Country Reviews)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보고서는 여러 DAC 회원국이 공동으로 어느 하나의 수원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개발원조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합동평가는 2003년에 탄자니아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주로 파트너십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중점을 두었다. 본 보고서 제4장에서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DAC는 상호대화의 장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조정책 및 원조관리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국제적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특정한 주제들은 고위급회의(HLM) 및 중견관리자급회의(SLM), 또는 연례 프로그램 및 중기 우선순위 사업들로부터 제기된다. DAC는 또한 몇몇 선별된 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파트너십 포럼”을 주최하는데, 동 포럼에는 수원국도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2002년 12월 개최된 파트너십 포럼에서는 “개발원조의 결과 및 원조 효율성 관리”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2004년에는 “부패와의 전쟁 속에서 원조효율성 증대”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DAC는 NEPAD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 상호간, 그리고 공여국간의 상호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와 협력하여 “개발원조 효과성에 대한 상호검토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확립된 두 가지 개념 즉, 개발은 모든 관련당사국과 개발 파트너의 공동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개발의 모든 측면에 관해 행해진 개발공약은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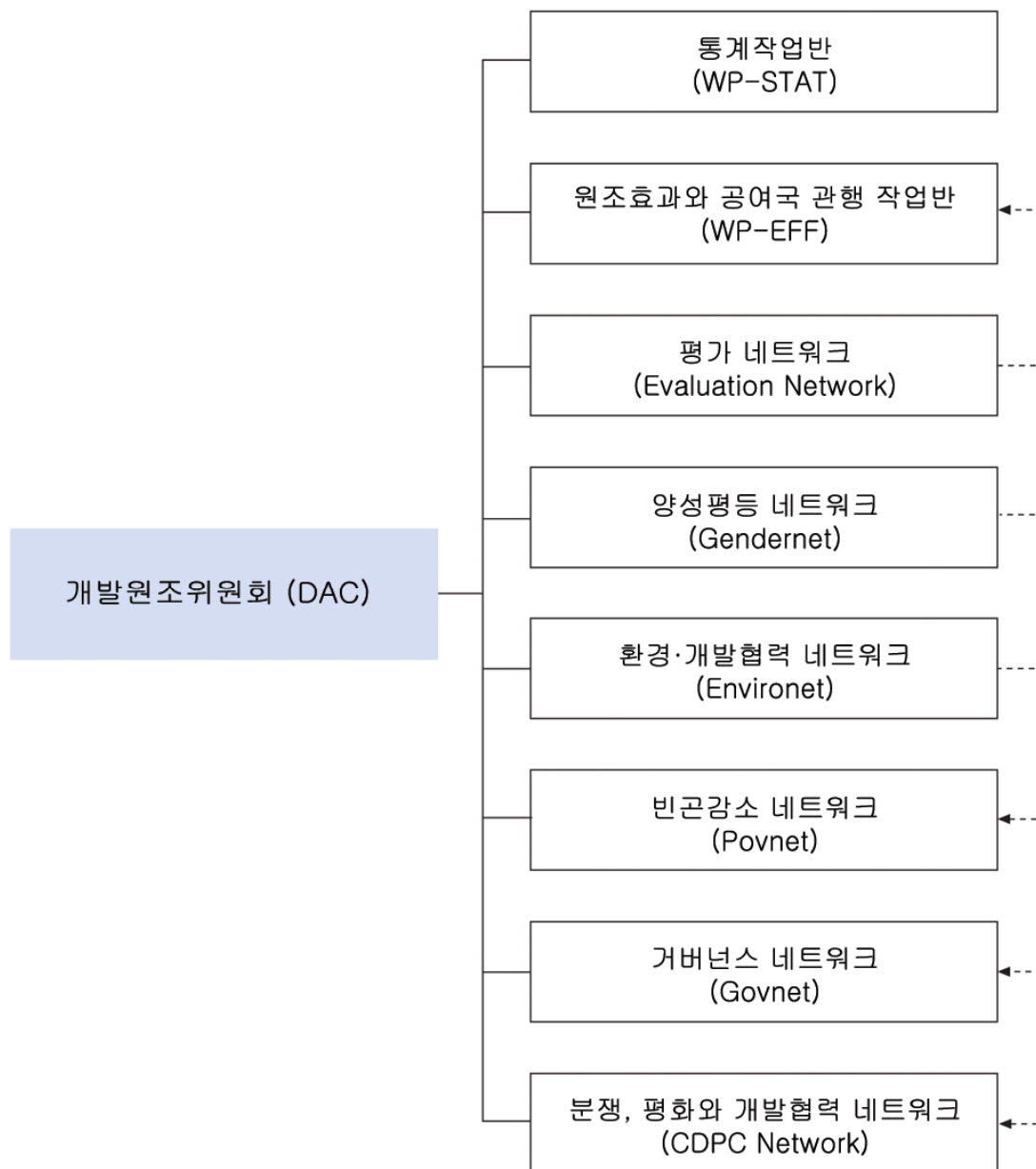
지속적인 논의의 주제라는 개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DAC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해 ODA와 기타 원조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 발간하고 있다. 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DAC 회원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ODA와 관련한 개념정의 및 “DAC 수원국 리스트”(본 보고서의 전문용어 색인 참조)는 DAC 회원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DAC의 하부기관

2003년 4월 DAC 회원국은 DAC의 하부기관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DAC 조직개편에 합의하였는 바, 다음 페이지의 조직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8개 DAC 하부기관들의 개발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역할, 임무 및 주요 주제는 조직도 다음에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

개발협력 : 위원회 조직도



점선은 한 산하조직의 의장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다른 산하조직에 당연직 (ex-officio)으로 회원이 됨을 나타냄.

DAC 산하기구의 임무, 역할 및 작업계획

DAC 통계작업반 (WP-STAT: DAC Working Party on Statistics)

창립일: 1968년

존속기간: 현재 활동 중 (현재 부여된 임무와 역할은 2006년까지)

작업반 의장: Mr. Fitz Meijndert (네덜란드)

임무와 역할: DAC 통계작업반의 임무와 역할은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다자간기관 등에 개발원조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와 관련한 통계보고서(statistical reporting)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동 작업반은 ODA 적격성, 보고관련 지침 및 정의, 자료 비교가능성, 그리고 DAC 통계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DAC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동 작업반은 DAC가 결정하는데 있어 통계보고지침(directives)의 개정안을 DAC에게 제안하고 DAC가 회부하는 통계관련 주제를 다루며 작업반 활동내역에 대해 DAC에 적절히 보고한다.

2003-2004 주요 작업 계획

- 1년에 2회 이루어지는 보고 지침 개정. 여기에는 수출 신용에 대한 것이 포함됨
- 통계관련 정책 이슈: 평화유지 부문을 포함한 안보분야에 대한 원조, 청정개발매커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세금감면, 할인율, DAC 수원국 명단, 공적 및 민간 자금의 범위, 혁신적인 재정지원 매커니즘
- DAC통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DAC 비회원국 공여국까지도 동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킴
- 특별 보고를 위한 CRS 활용: 예컨대, MDGs 달성 추진, 무역능력 향상, 리우 환경협약 등
- 원조효과성 지표에 관하여 WP-EFF와의 협력: 공여국간 원조조화

및 결과 중심적 경영, 원조 배분 및 귀속 조장

- AiDA(Accessible Information on Development Activities) 통한 개발관련 정보의 공유를 촉진

DAC 원조효과와 공여국 관행 작업반 (WP-EFF: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Donor Practice)

창립일: 2003년 4월

존속기간: 2006년 12월까지

위원장: Mr. Michel Reveyrand (프랑스)

임무와 역할: WP-EFF가 설립된 것은 지난 2002년 3월에 개최된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 국제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 컨센서스는 개발원조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MDGs를 향한 진전을 가속시키기 위한 제 국가들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WP-EFF의 설립으로 인해 DAC 회원국들이 최상의 개발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온 개발협력활동의 관리, 실행, 그리고 상호보완성 등에 관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WP-EFF는 그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에 관여한다. 첫째, 공여국들의 원조관행이 얼마나 수원국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 지원하는 일. 아울러 원조관행을 수원국들의 빈곤감소전략, 기타 개발의 틀, 시스템, 프로세스 등에 일치. 여기에는 원조조화와 조정에 있어서 제도와 자원배분이 어떤 비중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 둘째, 원조의 언타이드화(untying) 및 조달업무와 관련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파악하는 일. 셋째, 개발원조 결과를 파악,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일.

WP-EFF은 회원국들이 서로 합의한 개발원조 관련 정책과 모범관행의 실행을 촉진하는 한편, 원조 현장에서의 원조관행 발전상, 원조 모범관행의 추가적인 교환에 있어서의 발전상, 그리고 정책을 선별하여 개발하는 일 등이 모두 전반적으로 얼마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원국의 책임성 함양과 개발역량 배양 또한 WP-EFF가 임무수행 과정에서 고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다.

WP-EFF는 그 활동에 있어서 개도국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DAC 상주 옵저버(세계은행, IMF, UNDP 등)들 외에도 다른 다양한 개발원조기구들과 서로 공조하고 있다. 그 원조기구로서는 각 지역별 개발은행과 SPA(Strategic Partnership with Africa) 등이 있다.

WP-EFF는 DAC의 기타 산하기구들과 폭넓은 상호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특히 ‘DAC 개발평가네트워크(Evaluation Network)’와 많은 교류가 있다. Evaluation Network 의장은 당연직(ex-officio)으로 WP-EFF의 회원이 된다. WP-EFF는 특정 DAC 과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태스크포스 접근법을 DAC에 제안하여야 하며, 그 활동방식으로서 비공식적인 태스크 팀의 활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003-2004 주요 작업 계획

- 공여국의 원조관행을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조화하고 일치시키는 문제에 관한 로마선언을 실행하는 일. 여기에는 빈곤감소전략 기타 유사 접근방식 등이 포함됨
- 개발도상국들의 정부조달 능력 강화
- 국가재정 관리
- 언타이드 원조
- 개발원조 결과의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

DAC 평가네트워크 (Evaluation Network: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창립 일: 2003년 3월

존속기간: 현재 활동 중 (현재 임무와 역할은 2006년까지)

위원장: Mr. Rob D. van de Berg (네덜란드)

임무와 역할: DAC 개발평가네트워크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룬다.

첫째, 평가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 회원국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발 평가 파트너들과 평가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교환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a) 각 회원국들의 평가활동 개선; b) 방법론 및 개념상 틀의 조화와 표준화 장려; c) 주요 평가 연구활동의 상호 조정 촉진; d) 평가와 모범관행에 관한 새로운 방법 개발 장려.

둘째, 평가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에 기여 한다. a)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 전략 및 운영상의 교훈을 종합하여 추출함으로써 DAC 및 개발원조사회가 이러한 교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b) 개별 회원국들 간의 공동 또는 조정된 평가 및 연구 장려.

셋째, 평가네트워크는 DAC와 DAC 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특히 동료심사(peer reviews), 개발성과 및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평가네트워크는 파트너 국가들의 평가능력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2003-2004 작업 계획의 주요 주제

- 공동 연구 및 평가
- 새로운 원조 양식 평가
- 평가 도구 및 자질의 강화
- 평가 능력 및 평가 활용도 향상

DAC 양성평등 네트워크 (GENDERNET: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창 설 일: 1984년

존속기간: 현재 임무와 역할은 2006년까지

위 원 장: Mr. Phil Evans (영국)

임무와 역할: GENDERNET는 개발협력의 질과 효과성 향상에 기여한다. 개발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간 중심적(people-centered)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쌍방이 공히 지식, 통찰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과 여권신장을 향한 진보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GENDERNET는 DAC 정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 즉, GENDERNET은 각국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고 전문가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양성평등 문제가 DAC의 활동에서 주류화가 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회원국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문제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수원국의 개발노력을 지원한다.

GENDERNET는 모든 개발협력 분야에서 수원국이 스스로 기울이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및 여권신장 관련 전략과 관행에 대한 혁신적이고 유익한 생각을 교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DAC 회원국 및 GENDERNET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위와 같은 임무와 역할을 토대로 하여, GENDERNET은 양성평등 관점이 DAC 활동에서 주류화 되도록 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GENDERNET은 기타 DAC 산하기관들과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2003-2004 작업 계획의 주요 주제

- 성과 평가(Gender and evaluation).
- 성과 빈곤감소 전략.
- MDGs의 성관련 목표 및 지표의 모니터링
- 성과 평화, 안보와 재건 과정.

DAC 환경. 개발협력 네트워크 (ENVIRONET: DAC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창립일: 1989년 6월

존속기간: 2006년까지

위원장: Ms. Nancy Hamzawi (캐나다)

임무와 역할: DAC 환경. 개발협력 네트워크는,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OECD의 제분야 망라적(cross-sectoral) 접근방법이라는 맥락에서,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방법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며;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개발협력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며;

환경 문제를 개발협력에 통합시키는 것과 관련한 회원국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관행을 전파할 수 있는 정책포럼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2003-2004 작업 계획의 주요 주제

- 개발 및 기후변화 (환경정책위원회와의 공동 활동).
-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과 규제정책 및 정책집행수단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 중인 동종(horizontal)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OECD 이사회(DAF, AGR, ENV, ECH)와의 협조).
- 분쟁과 환경 (DAC 분쟁, 평화 및 개발협력 비공식 네트워크(DAC Informal Network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와의 공조).
- 지속가능 개발 전략을 위한 도구 및 분야별 접근방안 (“전략적 효과 평가(Strategic Impact Assessment)").
-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 관점에서 DAC 동료심사(peer review)에 지속적으로 기여. 개발협력 관점에서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OECD의 유사 작업에 대한 지속적 기여.

DAC 빈곤감소 네트워크 (POVNET: DAC Network on Poverty Reduction)

창립일: 1998년 6월

존속기간: 2006년에 활동 종료.

위원장: Mr. Claudio Spinei (이탈리아)

임무와 역할: POVNET은 빈곤이 가지는 다면성과 개도국에서의 불평등,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한다. POVNET은 빈곤층 친화적인 성장(pro-poor growth)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모범관행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경제성장 과정 속에, 그리고 경제성장과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얻는 계층 속에, 공히 빈곤계층이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POVNET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략과 정책을 다루게 된다. 그 영역으로는 인프라, 농업, 무역 및 투자 역량배양,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민간부문과 민간-공공부문간 파트너십의 역할 등이 있다. POVNET은 MDGs의 추구를 장려할 뿐 아니라, 포괄적인 성장과 그 성장의 결정요인이 빈곤감소전략의 전략적 틀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003-2004 작업 계획의 주요 주제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틀. 특히, 민간부문, 농업 및 인프라, 그리고 이들 분야간의 시너지 효과가 이러한 개념적 틀에 기여하는 사항.
- 통상역량배양, 중소기업(SMEs)과 개발, 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ODA/해외직접투자(FDI) 등 광범위한 의제의 운영 및 통합.
- 빈곤층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성장 및 그 결정요인들을 빈곤감소전략(PRSPs) 과정에 더욱 심도 있게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지침 및 모범관행 개요.

DAC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 DAC Network on Governance)

창립 일: 2001년 4월 첫 회의 개최

존속기간: 임무와 역할이 DAC 고위급회의(HLM)에 의해 갱신되어 2004년 12월까지 지속됨.

위원장: Mr. Luis Tejada (스페인)

임무와 역할: GOVNET은 공여국이 추진하는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역량개발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OVNET은 회원국들이 원조 모범관행을 확인, 확산시키고 빈곤층 친화적인(pro-poor) 정책과 분석도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상기 목표와 관련한 경험과 교훈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정책포럼의 장을 제공해 준다. GOVNET 업무는 어떻게 하면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분야에는 부패와의 전쟁, 공공서비스의 개혁, 능력배양,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거버넌스 진전상황의 평가, 그리고 어려운 협력(difficult partnerships) 역주. 개발원조 성과가 미미한 소위 문제국가(difficult states)에 대한 개발원조 협력을 의미함. 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GOVNET이 다루어야 할 주제는 많다. GOVNET의 업무는 국가, 시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문 상호간의 관계를 다룬다.

2003-2004 작업 계획의 주요 주제

- 어려운 협력관계에서 개발문제.
- 부패와의 전쟁.
- 여러 가지 지표 및 도구를 통해 거버넌스 평가
- 빈곤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개혁의 활성화.
- 개도국의 역량개발
- 인권과 민주화.
- 정치적 과정 및 역학 관계.

DAC 분쟁, 평화 및 개발 협력 네트워크(CPDC: DAC Network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창립 일: 1995년 (기존의 태스크포스가 2001년부터 네트워크로 됨)

존속기간: 현재의 임무와 역할은 2004년 말에 종료함

위원장: Mr. Mark Berman (캐나다)

임무와 역할: DAC는 CPDC를 통하여 DAC의 가이드라인 “폭력적 분쟁 예방 활동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에 제시된 원칙과 합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회원국들의 정책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PDC는 구조적인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고 폭력적 분쟁을 예방, 관리하며 위기 상황의 경우 인도적 원조 및 재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공여국과 개도국간의 협력, 특히 취약성이 높고 체제유지가 어려우며 분쟁이 빈발하는 나라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003-2004 작업 계획의 주요 주제

- 개발협력에 분쟁 예방을 통합.
- 안보와 개발, 그리고 정책 일관성.
- 테러예방에 있어서 개발협력의 역할.
- 취약성이 높고 체제유지가 어려우며 분쟁이 빈발하는 수원국에 대한 접근방법 개선.
- 전쟁의 정치경제, 사업 및 정책 일관성.
- ODA 수혜적격성(eligibility) 기준.
- 분쟁과 천연자원.

개발협력국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개발협력국(DCD) -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 참고 - 은 OECD 사무국 내의 12개 주요 국(局, directorate)들 가운데 하나이다. DCD의 역할은 DAC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수립, 정책조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DCD는 DAC의 업무와 더불어 OECD 기구 전반의 업무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DCD는 DAC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통상적으로는 DCD와 DAC가 거의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 섹션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DAC 웹사이트를 확인할 것).

DCD 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은 다음의 영역에서 70여명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발정책조정과(DCD/POL: Policy Co-ordination Division). 이 부서는 원조효과성과 공여국 원조관행, 거버넌스와 능력배양, 분쟁과 안보, 환경, 양성평등, 보건 문제 등 광범위한 정책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동 부서는 실패한 국가 또는 “어려운 파트너십(difficult partnership)” 국가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정책일관성과(DCD/COH: Policy Coherence Division). 이 부서는 DCD 이외에 다른 OECD 정책부서들(policy communities)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이 개발문제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에 관한 업무를 다룬다. **통상역량배양**(이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Box 참조) 이슈는 동 부서의 업무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DCD/COH는 또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간의 관계(POVNET에서 이 문제를 다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농업, 민간부문 개발, 그리고 국가기간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DCD/COH는 언타이드 원조와 정부조달 등의 이슈도 함께 관장한다.

DCD는 또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이 섹션 마지막 부분의 Box 참조) 이슈들에 관해 OECD 사무국 내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정책일관성 문제는 "개발클러스터"(Development Cluster)를 관장하는 사무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의 지도 감독하에 네트워크(Liaison Network)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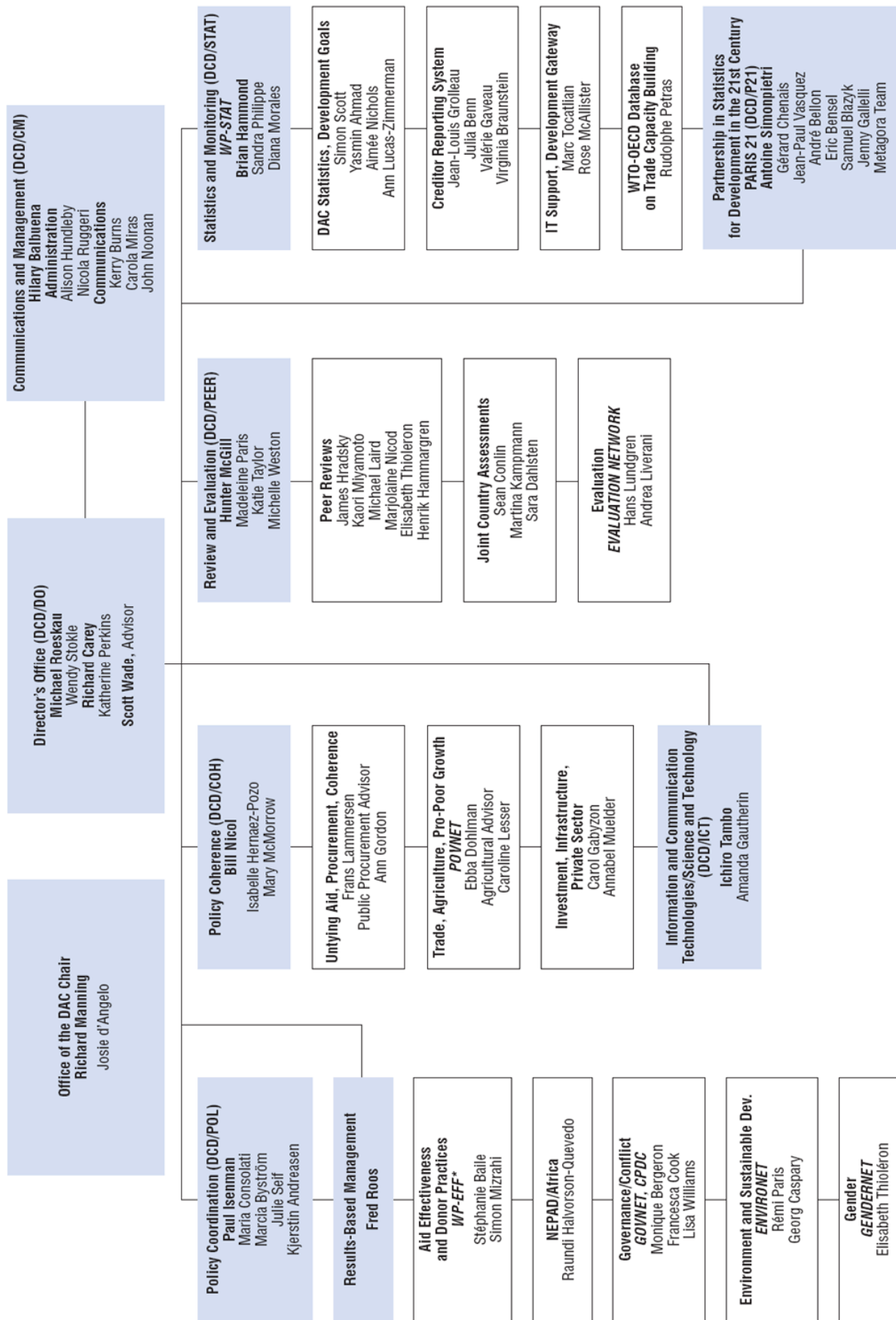
개발원조심사평가과(DCD/PEER: Review and Evaluation Division). 이 부서는 DAC의 개별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기타 원조공여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동료간 상호심사(peer reviews)와 수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이 부서는 원조사업 평가업무를 통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개발협력의 성과중심의 관리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 평가업무는 주로 평가 Evaluation Network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통계 및 모니터링과(DCD/STAT: Statistics and Monitoring Division). 이 부서는 원조 기타 관련 자료의 흐름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처리대상 항목으로서는 원조의 유형, 조건, 분야별 세부사항(sectoral breakdown), 그리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의 지리적 분포 등이다.

21세기 개발을 위한 통계 파트너십(PARIS21: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PARIS21 은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 빈곤국가의 통계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되었다. PARIS21 창설의 주역들은 UN, OECD, 세계은행, IMF, 그리고 EC 등이다. PARIS21 은 DCD가 주관하고 있다. (PARIS21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Box 3.2 참조.)

DCD는 OECD 사무국 내 “개발 클러스터(Development Cluster)”의 한 부분인데, 이 개발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OECD 비회원국과의 협력센터(CCNM: Centr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 체제전환국, 신흥경제발전도상국 및 선택된 개발도상국과의 대화 장려.
-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개발문제에 관한 연구조사에 있어서 OECD의 핵심조직.
- 사하라와 서아프리카 클럽(Sahel and West Africa Club): 최빈국들의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연계를 촉진하는 포럼.



통상역량배양(Trade Capacity Building)

OECD/DAC의 ‘개발을 위한 통상역량배양 강화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 정의에 따르면, 통상역량배양이란 다음의 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포괄적인 국가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통상전략을 참여적 방법으로 수립하고 시행.
- 국내 무역정책 및 제도를 강화시켜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수출품의 부가가치와 전체수출규모를 증대시키는 한편,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도모. 아울러 해외직접투자(FDI)를 보다 많이 유치하여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도모.
- 교역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WTO와 다른 교역협상에 참여

그동안 무역제도에 대한 개혁과 시장개방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지만, 세계의 수많은 빈곤국가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역이라는 기회를 이용할 역량을 갖추지 못해왔으며, 따라서 무역이 가져다주는 성장촉진과 빈곤감소라는 혜택을 향유할 수 없었다. 2001 11월에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은 무역역량강화를 다자무역체제의 개발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여국들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역량강화와 관련한 활동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고 원조규모를 확대해 왔다.

OECD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역량강화에 관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OEC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여국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2002년 11월 OECD는 WTO와 공동으로 ‘무역역량배양 데이터베이스(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 *를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로써, 개발원조사회와 무역관련 기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도하 선언에서 이루어진 공약들의 실천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칸쿤 각료회의에 제출된 ‘WTO/OECD 합동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관한 제2차 보고서(Report on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초에 걸쳐 8000여건의 무역역량배양 관련 활동이 있었으며, 2001-2002년 동안 이루어진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배양에 관한 공약들은 같은 기간 원조관련 공약 전체의 4.8%에 이르고 있다.

OECD는 WTO 및 여타 협력주체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개선하는 한편 이 데이터베이스가 국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무역과 관련된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OECD는 점증하는 개별국가 연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최빈국과 다른 저소득국가가 직면한 공급부분의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연구에 대한 수요 모두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경쟁력 있게 교역” 하는 방안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수행되어 2002년에 그 결과물이 출판되었다. 또한 케냐(2002. 8)와 캄보디아(2003.12)에서 개최된 지역워크숍은 원조현장에서 무역능력배양의 실천을 위한 “모범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OECD가 취할 다음 단계의 작업은, 공여국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하에 무역역량배양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의 틀(evaluation framework)을 만드는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http://tcdbdb.wto.org> 참조 요망. 또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ww.oecd.org/dac/trade 참조 요망.

OECD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in the OECD)

OECD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원조 그 자체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도국의 요구를 온전히 다룰 수 없다. 농업, 교역, 투자 등의 영역과 관련한 정책들은 초국경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정책은 개발 정책들의 목적과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OECD 이니셔티브는 각국 정부가 시행중인 여러 정책들이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정책일관성 관련 작업의 목표는, 다수의 OECD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책일관성 문제가 개발관련 부문만이 아니라 정부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로 간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서,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의 정책변경을 장려하여 개도국의 개발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쌍방향이다. 즉, OECD가 다루는 제반 분야에서 생산되는 조사결과와 모범관행들 역시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적 매커니즘, 그리고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지도자들의 관여 없이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기저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를 다루는 데에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관련 결과에 대하여 서로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일관성 문제들을 다룬 최근의 어느 세미나에서, 국회의원들은 OECD 같은 기관이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분석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개발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책일관성 목표 추진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위해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인정했다.

정책일관성을 위한 제도 관련 이슈들은 DAC의 동료간 상호심사(peer reviews)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료간 상호심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정책일관성 개선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복잡한 주제임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동 평가보고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무역, 농업, 타이드 원조, 노동시장, 그리고 이민정책 등이다. 몇몇 OECD 회원국들은 정부(내각과 의회)가 개발 관련 정책일관성 문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이미 취하였으며 또한 취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몇몇 회원국들은 행정부내의 정책분석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정책일관성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와 관련한 이상의 교훈들과 모범관행들이 더 많은 나라들에게 정책일관성 추진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종합되고 있는 중이다.

도하개발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각국의 의지에 따라, 무역과 농업 관련 정책이 OECD 정책일관성 의제 관련 연구주제의 최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은 다른 부문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곧, OECD의 무역정책(무역과정에서 제공하는 특혜조치가 주는 효과 등을 포함)과 농업지원 정책이 여러 부류의 개도국 그룹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과, OECD 회원국 시장접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역량배양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라는 상호 보완적인 작업은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측면의 제약요건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빈곤층 중에서 높은 비율이 농촌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관심은 개도국들이 농업분야에서 갖는 비교우위를 최적화하고 노동력의 고용처를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OECD국가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에 기반을 둔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해야한다. OECD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관련 정책일관성에 관한 작업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www.oecd.org/development/policycoherence 참조 요망.

DAC Web Site Themes and Aliases

Themes and sub-themes	Direct URL to themes and sub-themes
DAC Home Page	www.oecd.org/dac
Aid Statistics	www.oecd.org/dac/stats
● Aid Activities	● www.oecd.org/dac/stats/crs
● Aid from DAC members	● www.oecd.org/dac/stats/dac
Aid Effectiveness and Donor Practices	www.oecd.org/dac/wpeff
● Harmonization and Alignment	● www.oecd.org/dac/wpeff/harmonisation
●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 www.oecd.org/dac/wpeff/results
● Public Financial Management	● www.oecd.org/dac/wpeff/pfm
● Procurement Capacity Building	● www.oecd.org/dac/wpeff/procurement
Aid Untying	www.oecd.org/dac/aiduntying
Conflict and Peace	www.oecd.org/dac/conflict
Development Partnerships	www.oecd.org/dac/partnerships
Evaluation	www.oecd.org/dac/evaluation
Gender Equality	www.oecd.org/dac/gender
Govern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www.oecd.org/dac/governa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www.oecd.org/dac/ic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ww.oecd.org/dac/goals
Peer Reviews of DAC members	www.oecd.org/dac/peerreviews
Poverty Reduction	www.oecd.org/dac/poverty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Finance	www.oecd.org/dac/fi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ww.oecd.org/dac/environment
Trade,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www.oecd.org/dac/trade

기술적 용어

주요용어 및 개념정리

(Cross-references are given in CAPITALS)

AID: The words “aid” and “assistance” in this publication refer only to flows which qualify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r OFFICIAL AID (OA).

AMORTISATION: Repayments of principal on a LOAN. Does not include interest payments.

ASSOCIATED FINANCING: The combin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ether GRANTS or LOANS, with other official or private funds to form finance packages. Associated Financing packages are subject to the same criteria of concessionality, developmental relevance and recipient country eligibility as TIED AID credits.

BILATERAL: See TOTAL RECEIPTS.

CLAIM: The entitlement of a creditor to repayment of a LOAN; by extension, the loan itself or the outstanding amount thereof.

COMMITMENT: A firm obligation, expressed in writing and backed by the necessary funds, undertaken by an official donor to provide specified assistance to a recipient country or a multilateral organisation. Bilateral commitments are recorded in the full amount of expected transfer, irrespective of the time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DISBURSEMENTS. Commitments to multilateral organisations are reported as the sum of *i*) any disbursements in the year in question which have not previously been notified as commitments and *ii*) expected disbursements in the following year.

CONCESSIONALITY LEVEL: A measure of the “softness” of a credit reflecting the benefit to the borrower compared to a LOAN at market rate (*cf.* GRANT ELEMENT). Technically, it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minal value of a TIED AID credit and the present value of the debt service as of the date of DISBURSEMENT, calculated at a discount rate applicable to the currency of the transaction an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nominal value.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committee of the OECD which deals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matters. A description of its aims and a list of its members are given at the front of this volume. Further details are given in the DAC at Work section of this volume.

DAC LIST OF AID RECIPIENTS: For statistical purposes, the DAC uses a List of Aid Recipients which it revises every three years. The “Notes on Definitions and Measurement” below give details of revisions in recent years. From 1 January 2000, Part I of the List is present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word “countries” includes territories):

-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Group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To be classified as an LDC, countries must fall below thresholds established for income,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DAC List is updated immediately to reflect any change in the LDC group.
- **Other LICs:** Other Low-Income Countries. Includes all non-LDC countries with per

capita GNI \$760 or less in 1998 (World Bank Atlas basis).

- **LMICs:**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i.e.* with GNI per capita (Atlas basis) between \$761 and \$3,030 in 1998. LDCs which are also LMICs are only shown as LDCs – not as LMICs.
- **UMICs:**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i.e.* with GNI per capita (Atlas basis) between \$3,031 and \$9,360 in 1998.
- **HICs:** High-Income Countries, *i.e.* with GNI per capita (Atlas basis) more than \$9,360 in 1998. Part II of the List comprises “Countries in Transition”. These comprise *i)* more advance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i)*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See also OFFICIAL AID.

DEBT REORGANISATION (also: **RESTRUCTURING**): Any action officially agreed between creditor and debtor that alters the terms previously established for repayment. This may include **forgiveness** (extinction of the LOAN), or **rescheduling** which can be implemented either by revising the repayment schedule or extending a new **refinancing** loan. See also “Notes on Definitions and Measurement” below.

DISBURSEMENT: The release of funds to, or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for a recipient; by extension, the amount thus spent. Disbursements record the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or of goods or services valued at the cost to the donor. In the case of activities carried out in donor countries, such as training, administration or public awareness programmes, disbursement is taken to have occurred when the fund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service provider or the recipient. They may be recorded **gross** (the total amount disbursed over a given accounting period) or **net** (the gross amount less any repayments of LOAN principal or recoveries on GRANTS received during the same period).

EXPORT CREDITS: LOANS for the purpose of trade and which are not represented by a negotiable instrument. They may be extended by the official or the private sector. If extended by the private sector, they may be supported by official guarantees.

GRACE PERIOD: See GRANT ELEMENT.

GRANTS: Transfers made in cash, goods or services for which no repayment is required.

GRANT ELEMENT: Reflects the **financial terms** of a COMMITMENT: interest rate, MATURITY and grace period (interval to first repayment of capital). It measures the concessionality of a LOAN, expressed as the percentage by which the present value of the expected stream of repayments falls short of the repayments that would have been generated at a given reference rate of interest. The reference rate is 10% in DAC statistics. This rate was selected as a proxy for the marginal efficiency of domestic investment, *i.e.* an indication of the opportunity cost to the donor of making the funds available. Thus, the grant element is nil for a loan carrying an interest rate of 10%; it is 100% for a GRANT; and it lies between these two limits for a loan at less than 10% interest. If the face value of a loan is multiplied by its grant element, the result is referred to as the **grant equivalent** of that loan (*cf.* CONCESSIONALITY LEVEL). (Note: in classifying receipts, the grant element concept is not applied to the operations of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nstead, these are classified as concessional if they include a subsidy (“soft window” operations) and non-concessional if they are

unsubsidised (“hard window” operations).

GRANT-LIKE FLOW: A transaction in which the donor country retains formal title to repayment but has expressed its intention in the COMMITMENT to hold the proceeds of repayment in the borrowing country for the benefit of that country.

LOANS: Transfers for which repayment is required. Only loans with MATURITIES of over one year are included in DAC statistics. The data record actual flows throughout the lifetime of the loans, not the **grant equivalent** of the loans (*cf.* GRANT ELEMENT). Data on net loan flows include deductions for repayments of principal (but not payment of interest) on earlier loans. This means that when a loan has been fully repaid, its effect on total NET FLOWS over the life of the loan is zero.

LONG-TERM: Used of LOANS with an original or extended MATURITY of more than one year.

MATURITY: The date at which the final repayment of a LOAN is due; by extension, the duration of the loan.

MULTILATERAL AGENCIES: In DAC statistics, tho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governmental membership which conduct all or a significant part of their activities in favour of development and aid recipient countries. They includ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e.g.* World Bank, regional development banks), United Nations agencies, and regional groupings (*e.g.* certain European Community and Arab agencies). A contribution by a DAC member to such an agency is deemed to be multilateral if it is pooled with other contributions and disbursed at the discretion of the agency. Unless otherwise indicated, capital subscriptions to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re presented on a **deposit** basis, *i.e.* in the amount and as at the date of lodgement of the relevant letter of credit or other negotiable instrument. Limited data are available on an encashment basis, *i.e.* at the date and in the amount of each drawing made by the agency on letters or other instruments.

NET FLOW: The total amount disbursed over a given accounting period, less repayments of LOAN principal during the same period, no account being taken of interest.

NET TRANSFER: In DAC statistics, NET FLOW minus payments of interest.

OFFICIAL AID (OA): Flows which meet the conditions of eligibility for inclus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cept that the recipients are on Part II of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s (see RECIPIENT COUNTRIES AND TERRITOR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GRANTS or LOANS to countries and territories on Part I of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s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undertaken by the official sector; with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as the main objective; at concessional financial terms (if a loan, having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In addition to financial flows, TECHNICAL CO-OPERATION is included in aid. Grants, loans and credits for military purposes are excluded. For the treatment of the forgiveness of loans originally extended for military purposes, see “Notes on Definitions and Measurement” below.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 Used in measuring the inflow of resources to recipient countries: includes *a)* bilateral ODA, *b)* GRANTS and concessional and

nonconcessional development lending by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c*) those OTHER OFFICIAL FLOWS which are considered developmental (including refinancing LOANS) but which have too low a GRANT ELEMENT to qualify as ODA.

OFFSHORE BANKING CENTRES: Countries or territories whose financial institutions deal primarily with non-residents.

OTHER OFFICIAL FLOWS (OOF): Transactions by the official sector with countries on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s which do not meet the conditions for eligibility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r OFFICIAL AID, either because they are not primarily aimed at development, or because they have a GRANT ELEMENT of less than 25%.

PARTIALLY UNTIED AI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which the associated goods and services must be procured in the donor country or among a restricted group of other countries, which must however include substantially all recipient countries. Partially untied aid is subject to the same disciplines as TIED AID credits and ASSOCIATED FINANCING.

PRIVATE FLOWS: Consist of flows at market terms financed out of private sector resources (*i.e.* changes in holdings of private LONG-TERM assets held by residents of the reporting country) and private grants (*i.e.* grants b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et of subsidies received from the official sector). In presentations focusing on the receipts of recipient countries, flows at market terms are shown as follows:

-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made to acquire or add to a lasting interest in an enterprise in a country on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s (see RECIPIENT COUNTRIES AND TERRITORIES). “Lasting interest” implies a long-term relationship where the direct investo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reflected by ownership of at least 10% of the shares, or equivalent voting power or other means of control. In practice it is recorded as the change in the net worth of a subsidiary in a recipient country to the parent company, as shown in the books of the latter.
- **International bank lending:** Net lending to countries on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s by banks in OECD countries. LOANS from central monetary authorities are excluded. Guaranteed bank loans and bonds are included under OTHER PRIVATE or BOND LENDING (see below) in these presentations.
- **Bond lending:** Net completed international bonds issued by countries on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s.
- **Other private:** Mainly reported holdings of equities issued by firms in aid recipient countries. In data presentations which focus on the outflow of funds from donors, private flows other than direct investment are restricted to credits with a MATURITY of greater than one year and are usually divided into:
 - **Private export credits:** See EXPORT CREDITS.
 - **Securities of multilateral agencies:** This covers the transactions of the private non-bank and bank sector in bonds, debentures, etc., issued by multilateral institutions.
 - **Bilateral portfolio investment and other:** Includes bank lending and the purchase of shares, bonds and real estate.

SHORT-TERM: Used of LOANS with a MATURITY of one year or less.

TECHNICAL CO-OPERATION: Includes both *a)* GRANTS to nationals of aid recipient countries receiving education or training at home or abroad, and *b)* payments to consultants, advisers and similar personnel as well a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serving in recipient countries (including the cost of associated equipment). Assistance of this kind provided specificall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capital project is included indistinguishably among bilateral project and programme expenditures, and is omitted from technical co-operation in statistics of aggregate flows.

TIED AID: Official GRANTS or LOANS where procurement of the goods or services involved is limited to the donor country or to a group of countries which does not include substantially all aid recipient countries. Tied aid loans, credits and ASSOCIATED FINANCING packages are subject to certain disciplines concerning their CONCESSIONALITY LEVELS, the countries to which they may be directed, and their developmental relevance so as to avoid using aid funds on projects that would be commercially viable with market finance, and to ensure that recipient countries receive good value. Details are given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s** for 1987 (pp. 177-181) and 1992 (pp. 10-11).

TOTAL RECEIPTS: The inflow of resources to aid recipient countries (see Table 1 of the Statistical Annex) includes, in addition to ODF, official and private EXPORT CREDITS, and LONG- and SHORT-TERM private transactions (see PRIVATE FLOWS). Total receipts are measured net of AMORTIZATION payments and repatriation of capital by private investors. **Bilateral** flows are provided directly by a donor country to an aid recipient country. **Multilateral** flows are channelled via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active in development (*e.g.* World Bank, UNDP). In tables showing total receipts of recipient countries, the outflows of multilateral agencies to those countries is shown, not the contributions which the agencies received from donors.

UNDISBURSED: Describes amounts committed but not yet spent. See also COMMITMENT, DISBURSEMENT.

UNTIED AI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which the associated goods and services may be fully and freely procured in substantially all countries. See also Chapter 3, Box 3.5, which outlines progress with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VOLUME (real terms): The flow data in this publication are expressed in US dollars (USD). To give a truer idea of the volume of flows over time, some data are presented in constant prices and exchange rates, with a reference year specified. This means that adjustment has been made to cover both inflation in the donor's currency between the year in question and the reference year, and changes in the exchange rate between that currency and the United States dollar over the same period. A table of combined conversion factors (deflators) is provided in the Statistical Annex (Table 36) which allows any figure in the Report in current USD to be converted to dollars of the reference year ("constant prices").

용어의 정의 및 각종 수치측정 관련 참고사항

본 보고서에 인용된 각종 데이터의 범위는 최근 수년간 계속 변화해 왔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ODA 개념 변화 및 GNI 산출과정에 포함되는 데이터 범주의 변화

1972년 이래로 공적개발원조(ODA)라는 용어의 정의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나, ODA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ODA의 개념은 보다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주요한 변화상으로는 행정비용의 ODA 계상(1979년부터), 수원국 출신 학생을 교육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ODA 계상(1984년부터), 수원국 출신 난민의 공여국 도착 후 공여국이 제공하는 지원의 최초 1년간 지원액의 ODA 계상(1980년대 초기부터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1991년이 되어서야 광범위하게 사용됨)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ODA 개념이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을 정확히 계량화 하여 측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기법 및 수집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통계자료상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향의 규모는 대단히 클 것이다. 예컨대, 1993년에 캐나다가 제출한 ODA 보고서에는 캐나다 내의 난민(in-Canada refugee)에 대한 지원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난민지원규모는 미화 1억8400만 달러로서 캐나다 ODA의 거의 8%를 차지했다. 1980년대 후반에 호주 정부의 ODA 보고서에 나타난 원조흐름은 그보다 15년 전의 ODA 계산규칙 및 절차를 통해 산출했을 경우보다 약 12%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¹

국민소득계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분야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한편 데이터 수집기법 또한 향상됨으로써 항목의

¹ S. Scott, "Some Aspects of the 1988/89 Aid Budget", in Quarterly Aid Round-up, No. 6, AIDAB, Canberra, 1989, pp.11-18

범주가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특히, OECD 및 기타 주요 국제기구가 관련 경비를 공동으로 지원한 바 있는 새로운 국민소득계정체제(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GNI 개념을 적용하여 ODA/GNI 비율을 산출하면 공여국의 ODA/GNI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신 SNA를 도입한 이후에 ODA/GNI 비율은 6~8%까지 하락하였다. 그보다 더 나중에 핀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ODA/GNI 비율은 2~4%까지 소폭 하락했다. 현재 모든 DAC 회원국들은 신 SNA를 사용하고 있다.

수원국의 범위

1990년 이래 다음의 국가 및 영역들이 ODA 수원국 명단에 추가되었다. 남아프리카 흑인공동체(Black Communities of South Africa, 현재는 남아프리카임. 1991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상 1992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이상 1993년), 팔레스타인 행정지역(1994년), 몰도바(1997년). 에리트레아(구 에티오피아의 일부)는 1993년부터 독립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구 미국 태평양 군도 신탁통치지역(US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은 지속적으로 신생독립 승계국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마셜군도(이상 1992년), 팔라우 군도(1994년)즉 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같은 기간, 다음 국가 및 영역들이 ODA 수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포르투갈(1991년), 프랑스령 가이아나, 과들루프(Guadeloupe), 마티니크(Martinique), 레위니옹(Réunion), 생피에르 미켈론(St. Pierre and Miquelon) (이상 1992년), 그리스(1994년).

1993년부터 일부 구소련연방 소속 체제전이국가들(CEEC/NIS)이 DAC 수원국 목록 Part II에 포함되었다(다음 페이지의 수원국 목록 참조). 동 국가들에 제공되는 원조는 ODA가 아니라 공적원조(OA: Official Aid)로 분류된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Part II에는 이미 ODA 수원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CEEC/NIS 국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6년부터 다음의 고소득국이 Part I에서 Part II로 이동하였다. 바하마,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1997년부터는 다음의 7개 고소득국들이 추가로 Part II로 이동하였다. 버뮤다, 케이먼 제도, 대만, 사이프러스, 포클랜드 제도, 홍콩, 이스라엘. 2000년 1월1일부터는 아루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지브롤터, 한국, 리비아, 마카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뉴 칼레도니아, 북 마리아나 제도가 Part II로 이동하였다. 2001년에는 세네갈이 LDC 국가그룹으로 자리를 옮겼고, 북 마리아나제도는 수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특정 연도의 Part I 국가에 대한 원조(ODA) 총액 및 Part II 국가에 대한 원조(OA) 총액 관련 데이터는 해당 연도의 수원국 명단을 따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Part I에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그룹에 대한 원조총액을 소급하여 조정함으로써 현행 수원국 명단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공여국의 범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991년 DAC에 가입하였고, 룩셈부르크는 1992년, 그리스는 1999년에 신규 가입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개발원조는 현재 DAC 원조 총액에 계상되고 있다. 동 국가들이 DAC 가입이전 제공한 개발원조는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시점까지의 DAC 원조총액에 포함되었다. 신규회원국 참여로 DAC ODA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대개의 경우 ODA/GNI 비율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신규 회원국들의 GNI 대비 원조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회원국들에 비해 더 작기 때문이다.

부채탕감 처리

원래는 ODA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탕감을 다루는 방식은 초창기에는 다양했다. 1992년까지는 비 ODA(non-ODA) 부채탕감도 ODA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ODA로 계상할 수 있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비 ODA 부채탕감은 개별국가의 ODA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DAC ODA 총액에서는 제외되었다. 1993년부터는 원래 군사적 목적을 띤 부채탕감은 “기타공적흐름(Other Official Flows)”으로 계상된 반면, 기타 비 ODA 부채탕감(주로 수출신용)으로서 ODA로 기록된 항목은 1989년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별 ODA 및 DAC ODA에 공히 포함되고 있다.

원래 ODA에 포함된 미결제 채무 원금탕감(forgiveness of outstanding loan principal)은 새로운 순 ODA 지출로 계상되지는 않는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때 생기는 이점은, 상환취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순 ODA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 연도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는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역년(calendar year)을 의미한다.

2002년 DAC 수원국 목록

Part I: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art II: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 (Official Aid)		
LDCs	Other LICs (per capita GNI < \$760 in 1998)	LMICs (per capita GNI \$761-\$3 030 in 1998)		UMICs (per capita GNI \$3 031-\$9 360 in 1998)	HICs (per capita GNI > \$9 360 in 1998) ¹	CEECs/NIS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Afghanistan	* Armenia	* Albania	Palestinian	Botswana	Malta ¹	* Belarus	● Aruba
Angola	* Azerbaijan	Algeria	Administered	Brazil	Slovenia ¹	* Bulgaria	Bahamas
Bangladesh	Cameroon	Belize	Areas	Chile		* Czech	● Bermuda
Benin	China	Bolivia	Papua New	Cook Islands		Republic	Brunei
Bhutan	Congo, Rep.	Bosnia and	Guinea	Croatia		* Estonia	● Cayman Islands
Burkina Faso	Côte d'Ivoire	Herzegovina	Paraguay	Gabon		* Hungary	Chinese Taipei
Burundi	Ghana	Colombia	Peru	Grenada		* Latvia	Cyprus
Cambodia	Honduras	Costa Rica	Philippines	Lebanon		* Lithuania	● Falkland Islands
Cape Verde	India	Cuba	Serbia and	Malaysia		* Poland	● French
Central African	Indonesia	Dominica	Montenegro	Mauritius		* Romania	Polynesia
Republic	Kenya	Dominican	South Africa	● Mayotte		* Russia	● Gibraltar
Chad	Korea, Dem. Rep.	Republic	Sri Lanka	Mexico		* Slovak	● Hong Kong,
Comoros	* Kyrgyz Rep.	Ecuador	St Vincent and	Nauru		Republic	China
Congo, Dem. Rep.	* Moldova	Egypt	Grenadines	Palau Islands		* Ukraine	Israel
Djibouti	Mongolia	El Salvador	Suriname	Panama			Korea
Equatorial Guinea	Nicaragua	Fiji	Swaziland	● St Helena			Kuwait
Eritrea	Nigeria	* Georgia	Syria	St Lucia			Libya
Ethiopia	Pakistan	Guatemala	Thailand	Trinidad and			● Macao
Gambia	* Tajikistan	Guyana	● Tokelau	Tobago			● Netherlands
Guinea	Timor-Leste	Iran	Tonga	Turkey			Antilles
Guinea-Bissau	* Turkmenistan	Iraq	Tunisia	Uruguay			● New Caledonia
Haiti	Viet Nam	Jamaica	* Uzbekistan	Venezuela			Qatar
Kiribati	Zimbabwe	Jordan	● Wallis				Singapore
Laos		* Kazakhstan	and Futuna				United Arab
Lesotho		Macedonia		Threshold for World Bank Loan Eligibility (\$5 280 in 1998)			Emirates
Liberia		(former					● Virgin Islands
Madagascar		Yugoslav					(UK)
Malawi		Republic)		● Anguilla			
Maldives		Marshall Islands		Antigua			
Mali		Micronesia,		and Barbuda			
Mauritania		Federated		Argentina			
Mozambique		States		Bahrain			
Myanmar		Morocco		Barbados			
Nepal		Namibia		● Montserrat			
Niger		Niue		Oman			
Rwanda				Saudi Arabia			
Samoa				Seychelles			
São Tomé and Príncipe				St Kitts and Nevis			
Senegal				● Turks and Caicos Islands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udan							
Tanzania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Zambia							

*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CEECs/NIS)
● Territory

1. These countries and territories transfer to Part II on 1 January 2003.

As of July 2002,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are : Angola, Benin, Bolivi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Dem. Rep.), Congo (Rep.), Côte d'Ivoire, Ethiopia,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onduras, Kenya, Laos,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icaragua, Niger, Rwanda,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Sudan, Tanzania, Togo, Uganda, Viet Nam, Yemen and Zambia.

Source: OECD.

약자 (acronym) 목록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AsDB	ASIAN DEVELOPMENT BANK
AsDF	ASIAN DEVELOPMENT FUND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CA	COMMON COUNTRY ASSESSMENT
CDF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Kyoto Protocol)
CE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ECs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PE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of the DAC)
CSO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DR	DOHA DEVELOPMENT ROUND
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C	EUROPEAN COMMUNITY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EU	EUROPEAN UNION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GNI	GROSS NATIONAL INCOME
HIPC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PI	HUMAN POVERTY INDEX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RTA	INVESTMENT-RELATED TECHNICAL ASSISTANCE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JCLA	JOINT COUNTRY LEARNING ASSESSMENTS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IS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NSSDs	NAT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OF	OTHER OFFICIAL FLOWS
PDGG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RG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IMF)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OGRAMME
RBM	RESULTS-BASED MANAGEMENT
SAF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SDR	SPECIAL DRAWING RIGHT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PA	STRATEGIC PARTNERSHIP WITH AFRICA
SPS	SECTOR PROGRAMME SUPPORT
SSA	SUB-SAHARAN AFRICA
SWAPs	SECTOR-WIDE APPROACHES
TC	TECHNICAL CO-OPERATION
TRPM	TRADE POLICY AND REVIEW MECHANISM (WTO)
TRTA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UN	UNITED NATIONS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1992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DAF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PA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USD	UNITED STATES DOLLAR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200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2003 년 DAC Report 번역 및 감수자 명단

목차	세부항목	번역자	1 차 감수자	최종감수자
제 1 장 DAC 의장 개관	서론	태국사무소 김은섭 과장	김상태 인력사업이사	김상태 인력사업이사
	개발정책의 일관성 제고	민간협력팀 임소연	이해균 개발사업이사	이해균 개발사업이사
		프로젝트 2 팀 전지혜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	프로젝트 2 팀 김종범	조상우	이종선
	건설적 대화의 촉진	프로젝트 1 팀 황재상	IT 협력팀장	이라크아프간 지원부장
제 2 장 원조흐름의 동향	서론 / 원조흐름의 전반적 개관 / DAC 와 비 DAC 공여국 /지역별 및 소득 그룹별 원조 /다자간 ODA 의 비율	연수사업 2 팀 최선영	김상태 인력사업이사	조한덕 협력정책반 차장
	분야별 원조경향 /형태별 원조집행 동향 /원조 증가	IT 협력팀 박준성	한충식 인력사업부장	※자료취합 및 정리: 협력정책반
	부록: 농업분야 원조감소	연수기획팀 김지훈	김상태 인력사업이사	
제 3 장 MDGs 달성 진전현황	서론 / MDGs 를 향한 진척 현황	봉사기획팀 황기성	한충식 인력사업부장	협력정책반 조한덕 차장
	원조효과성 제고	협력정책반 조형래	협력정책반	
제 4 장 양자간 원조 공여국들의 정책 및 노력	DAC 회원국의 원조 규모와 원조 프로그램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 캐나다	홍보실 임인영	김승범 홍보실장	김승범 홍보실장
	덴마크(동료심사)/유럽공동 체(EC)/핀란드(동료심사)/ 프랑스/독일/그리스	사업평가팀 성화수		

	아일랜드(동료심사)/이탈리아/일본(동료심사)/룩셈부르크(동료심사)/네덜란드	이라크아프간 2 팀 정영선	이종선 이라크아프간 지원부장
	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이라크아프간 3 팀 손성일	
	원조합동평가 /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 현황	IT 협력팀 전경식	최성호 인사교육팀장
개발원조위원회 개관	DAC 의 사명 DAC 의 주요 활동 DAC 의 하부기관	IT 협력팀 전경식	최성호 인사교육팀장
	DAC 산하기관의 임무, 역할 및 작업계획	이라크아프간 지원 3 팀 정성호	김진오 이라크아프간 지원 2 팀장
	개발협력국(DCD)	기획조정팀 황선영	최성호 인사교육팀장
중요개념 및 수치측정 관련 참고사항		협력정책반 조형래	협력정책반 조한덕 차장
그래프 정리 및 PDF 제작		봉사기획팀 김응지	